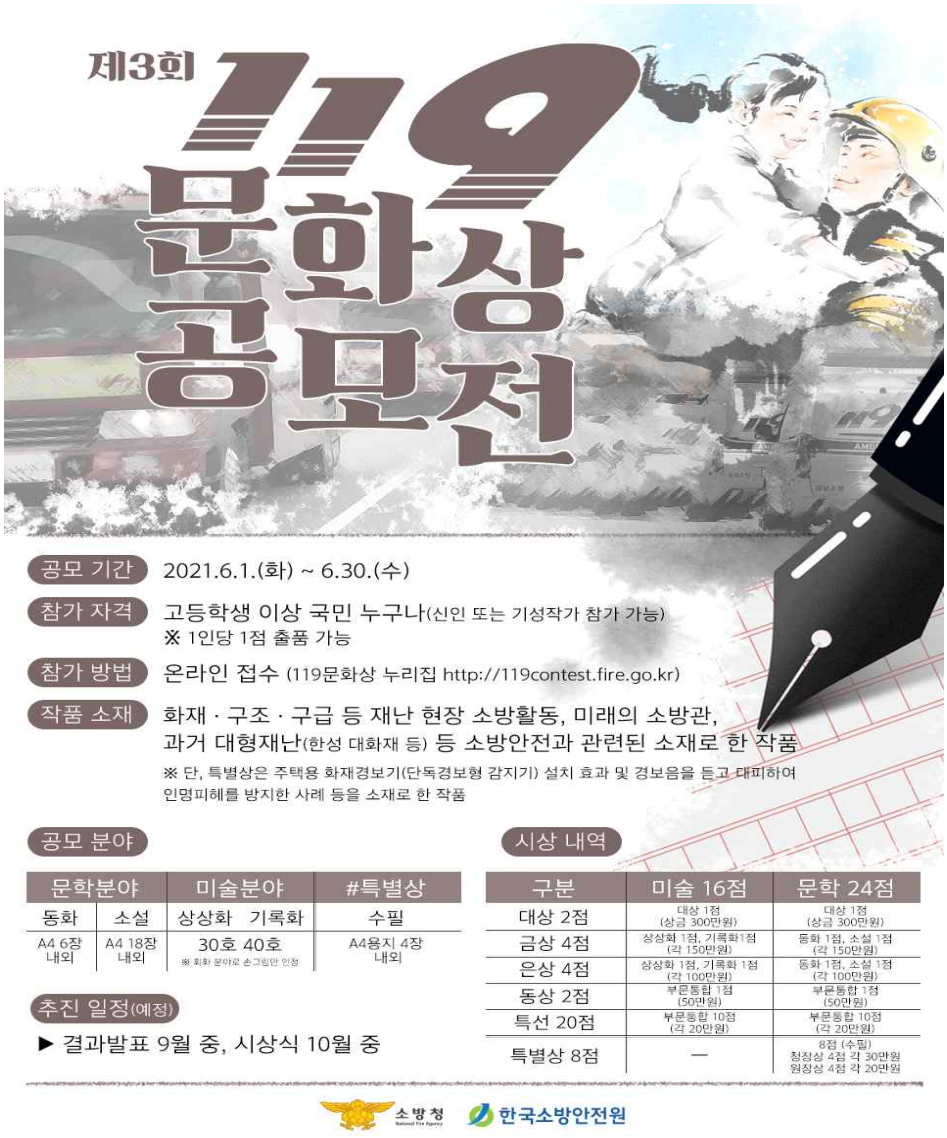
제3회 119문화상 수상예정작

(소 설)



National Fire Agency 119

소방청

(대변인실)

접수번호	11	제 목	얼음과 불의 노래

그는 용광로에 빠진 친구를 찾아달라고 말했다.

어젯밤 9시쯤 쇳물 분배기의 뚜껑을 고친다고 공장으로 돌아간 것이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했다. 자신의 이름은 '부따'고 사라진 친구의 이름은 '리타'라고. 그는 검게 그을린 얼굴에 비쳐 더욱 투명해 보이는 눈물을 흘리며 훈의 소매를 붙잡았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우는 모습에 훈은 정리하던 소방호스를 놓고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리타가 용광로에 떨어진지 꼬박 24시간이 지난 후였다.

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는 말에 부따는 '못해요.'라고 말했다. 직원들에게는 알렸냐는 말에도 '아무도 믿지 않아요.'라고만 짧게 답했다. 훈은 자신의 근무 시간이 끝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차고 앞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그 때문에 쉽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출동하려면 신고 접수를 해야 해요. 알아요?"

부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소방서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말해줘요. 알았어요?"

고개를 숙인 그는 강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출동할 수 없어요. 친구를 찾을 수가 없다고요. 알아들어요?"

그때 그의 손이 훈의 소매를 다시 붙잡았다. 처음에는 그렇게 강한 강도가 아니었는데 부따는 조금씩 훈의 소매를 잡은 손에 힘을 주고 있었다.

"원하는 게 뭐예요?"

훈은 부따의 손을 떼어내며 물었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요?"

천천히 고개를 든 그는 자신의 나랏말 억양이 그대로 밴 말투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불을 꺼주세요. 당신이, 용광로 불을 꺼주세요."

부따의 목소리가 차고 위를 날아올라 천장에 부딪힐 때까지도 훈은 그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다.

21주기 마지막 주간 근무를 끝낸 훈은 집으로 가려던 생각을 접고 부따의 공장으로 차를 돌렸다. '내일 아침이면 용광로의 쇳물을 부어버릴 거예요.' 다급한 그의 목소리가 훈의 발목을 잡았다.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자세히 말해 봐요."

훈은 속도를 높이며 부따에게 물었다. 가로등이 몇 개인지 세는 것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그는 어제 일어난 사고가 아닌 5년 전의 일을 하나씩 들려주기 시

작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셰르파였어요."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시내의 도로는 꽉 막혀 있었다. 훈은 부따가 네팔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며 도로 앞에 사고가 났거나 어디선가 공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셰르파가 되는 거예요. 셰르파로 태어났으니까."

차들이 거북이처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훈은 부따의 얘기를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이며 눈으로는 앞차의 브레이크 등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빠는 캉첸중가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빠가 죽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셰르파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니까, 또 다른 누군가의 길을 인도하러 떠났다고 생각하죠."

훈은 부따의 표정을 살피기 위해 잠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다행히 부따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때, 아빠와 함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한국인들이었어요. 두 명이었죠. 한 사람은 왼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었는데, 혼자서도 산을 잘 올랐어요. 같이 온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짐 한 번 맡긴 적이 없었으니까요."

부따는 뭔가 생각났는지 자신의 안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잠시 후 품에서 꺼낸 지갑에서 그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훈에게 내밀었다.

"이 사람들이에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아빠, 바부 치리예요. 최고의 셰르파죠."

훈은 차가 신호에 걸린 틈을 타 사진을 쳐다보았다. 왼쪽과 오른쪽 커다란 배낭을 멘 한국인들과는 달리 그는 키가 조그맣고 덩치가 작은 사람이었다. 어두운 불빛에 실내등을 켜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얼핏 부따와 얼굴의 생김새가 닮은 것도 같았다.

"저랑은 안 닮았죠."

부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2년이 지난 후에 아빠와 한국인들은 돌아왔어요. 우리는 그들이 돌아왔다고 믿어요. 비록 그들의 몸을 가져올 순 없었지만 그들이 그곳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걸로 된 거예요."

차는 어느덧 시내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훈은 부따의 낮은 목소리를 들으며 눈으로는 내비게이션의 화살표를 따라가고 있었다.

"단지 다리가 불편한 줄만 알았어요. 그의 바지를 들춰볼 순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차는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깜깜한 길을 훈은 헤드라이트 불빛 하나에만 의지해 나아가야 했다.

"그의 왼쪽 다리는 쇠로 돼 있었어요."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에 훈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뒤로 튕겨져 나간 그는 부따가 괜찮은지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의족이라고 하죠. 그의 다리는 쇠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차분한 부따의 모습에 훈은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의족. 그는 몇 해 전 의족을 하고 뛰어가는 육상 선수를 본 적이 있었다. 그때 훈은 그 선수가 마치 로봇 같다고 생각했다.

한동안 말이 없어진 부따를 의식하며 훈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산을 올라갔다. 산길은 산 초입의 완만한 경사를 지나 어느덧 가파른 중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여긴 버스도 안 다닐 것 같은데, 어떻게 내려왔어요?"
훈은 몇 번의 고개를 넘어선 뒤 잠시 숨을 돌리며 부따를 쳐다보았다. 그는 의족 얘기를 한 이후로는 무슨 생각에 잠겼는지 말없이 차창 밖 스쳐 지나는 나무들만 내다보고 있었다.
"잊었어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셰르파였다는 걸."
잠시 후 들려온 목소리에 훈은 부따가 긴 생각에서 마침내 벗어났음을 알았다.
"사실 셰르파는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일 뿐."
훈이 정면 계기판을 바라보았을 때 시계는 밤 11시 24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몇 개의 고개를 더 넘어야 부따의 공장이 나올지 훈은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있는 발에 조금 더 힘을 주었다. "저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낮은 부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곳, 산 정상과 다음 산의 능선이 이어진 곳에 거대한 제철 공장이 우뚝 서 있었다. 훈은 깜깜한 능선 사이에서 강력한 헤드라이트들을 비추고 있는 그 공장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차를 공장 뒤편 담벼락에 세우고 훈은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히 발을 떼어놓았다. 아무리 소리를 내지 않으려 해도 바싹 말라버린 낙엽들이 바스락 바스락 소리를 냈다.
"그들은 없어요."
공장 입구에 도착한 부따는 굳게 닫힌 쇠문 대신 개구멍처럼 구멍이 난 철조망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다. 훈이 몸을 밀어 넣고 나자 그는 철조망을 원래처럼 엮어 놓았다. 텅 빈 주차장을 가로질러 공장으로 다가갈수록 쇠가 부딪히는 것 같은 마찰음이 조금씩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훈은 공장 셔터 문이 보일 때까지 부따의 발뒤꿈치를 보며 걸어갔다.
"그들은 내일 아침 6시에 나타날 거예요."

희미한 부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과 동시에 셔터 문을 밀어 올리는 소리가 들렸다. 훈은 멈춰 선 부따의 옆으로 걸어가 공장 안을 둘러보았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기계들이 오래된 시간을 그러안은 채 일사분란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 괘도의 정중앙에 시뻘건 열기를 끌어안은 용광로가 리타를 집어삼킨 채 계속해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적어도 부따의 말이 맞는다면 말이다.

"리타는 내가 먼저 걸어간 길을 따라왔을 뿐이에요. 우리는 셰르파니까."

부따는 훈을 남겨놓고 정면 용광로를 향해 걸어갔다. "그게 무슨 말이죠?" 훈은 날카로운 쇳소리 사이에서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부따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훈은 부따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그를 따라갔다.

"5년 전에 내가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그에게 보답하기 위해서였어요."

부따는 아무렇지 않게 용광로 옆에 걸쳐져 있는 사다리를 올랐다. "그라뇨?" 훈은 용광로 아래 멈춰선 채 그런 그의 행동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다.

"의족을 한 사람 말이에요. 우리 아빠를 끌어안고 잠들어 있던 그 한국인."

부따는 용광로 덮개 위로 올라가 너무도 태연하게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훈은 조금 전부터 전해져오는 용광로의 열기에 몇 발짝 뒤로 물러섰지만 그 위에 올라간 부따는 열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그의 다리를 이루고 있던 쇠가 반짝거렸어요. 헬기를 타고 조난자를 찾던 구조대가 그 빛을 발견한 거죠. 그의 의족을, 우리 아빠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있던 그의 몸을 말이에요."

부따가 합장을 푼 시간은 새벽 1시 20분쯤이었다. 그는 처음 잡은 자세 그대로 1시간을 넘게 앉아 있었다. 뜨거운 용광로 덮개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은 것도 모자라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문을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훈은 용광로와는 열 발자국 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었는데 그의 입이 웅얼거리는 것만 보일 뿐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단지 하나, 그 말이 한국어가 아닌 자신의 나랏말이라는 것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이었다.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리타를 구해달라고?"

훈은 합장한 손을 내리고 편안히 앞을 바라보는 부따에게 물었다. 그의 두 손은 창공을 날다 들판에 내려앉은 새처럼 사뿐히 무릎 위에 내려와 있었다.

"리타를 구할 수 없다는 건 알아요."

부따는 오랜 기도를 끝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몸짓으로 일어섰다. 그마저도 실내화처럼 얇은 신발을 벗어던지고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음바페 음바페 호호~"

훈의 귀에는 그 노래 가사가 마치 프랑스 축구 선수의 이름처럼 들렸다. 음바페 음바페 호호, 음바페 음바페 호우호우, 음바페 음바페. 부따의 노래는 쿵쿵 구르는 발동작과 함께 아주 오랜 시간 계속되었다. 마치 아프리카 원주민의 전통 음악 같은 박자에 훈은 자기도 모르게 부따의 발동작을 따라해 보기도 했다. 음바페 음바페 호호. 반복되는 음이 금세 훈의 귀에도 익숙해졌다. 음바페 음바페 호우호우.

"꽤 흥겨운 음악 같군요?"

훈은 입으로 노래 가사를 웅얼거리며 부따에게 물었다. 음바페 음바페. 부따는 대답 없이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다. 그의 발동작은 조금씩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하늘로 향한 두 팔은 무언가를 받쳐 올렸다가 어느 순간 힘없이 툭 허리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1시간 남짓 계속된 부따의 춤이 무릎을 꿇고 용광로 덮개에 엎드린 동작으로 끝이 났다. 부따는 마치 엄마 뱃속으로 돌아간 태아처럼 동그랗게 몸을 말고 용광로 덮개 위에 엎드려 있었다.

"얼음의 노래예요."

부따는 말라 부르튼 입술로 뜨거운 바닥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행동이 너무도 태연스러워 훈은 혹시 용광로가 식은 건 아닐까 착각했다.

"눈 속에 갇히면 우리는 얼음의 노래를 불러요. 불의 노래가 아닌 얼음의 노래를 말이에요."

리타의 숨결이 전해지는 듯 부따는 용광로 덮개 위에 지그시 손을 올려놓았다.

"불로는 히말라야의 눈을 녹일 수 없어요. 태양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죠."

리타! 부따는 작은 목소리로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리타! 작지만 분명한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쇳소리를 뚫고 훈의 귀로 전해져왔다.

"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눈과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우리 셰르파들은 마치 얼음이 된 것처럼 힘을 내 노래를 부르죠."

리타! 그 순간 훈은 부따의 손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부따~어서 내려와요. 어서!" 훈은 사다리로 올라가 그의 손을 잡아챘다. 내려오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그를 데리고 내려올 때에도 용광로는 거센 불빛을 토해내며 완강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소독약을 찾기 위해 부따의 숙소에 들어갔을 때, 훈은 제일 처음 매캐한 냄새에 놀랐다. 처음에는 가스 냄새가 아닐까 의심했지만 부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이불을 밟고 걸어와 앉았다. "저기" 그가 가리키는 곳에 까맣게 때가 탄 약품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여기서 지내는 거예요?"

훈은 부따의 오른손을 소독약으로 씻어내며 물었다. "불을 끌 수 있는 건 당신뿐이에요." 그는 화상을 입은 손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훈의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기계를 끄면 되잖아요?"

훈은 두 번 세 번 부따의 손을 닦아내며 치료에 집중했다. "어디 있는지만 가르쳐주면 제가 기계를 끌게요. 됐죠?" 훈의 말에도 그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소독을 마치고 그나마 쓸 수 있는 거즈 몇 장으로 그의 손을 모두 감쌌을 때 부따는 남은 한 손으로 훈의 소매를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훈은 부따의 뒤를 따라가며 그의 발도 화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부따는 빨갛게 달아오른 발바닥으로 쇠 계단을 밟고 올라갔다. 한 계단 한 계단 디딜 때마다 끔찍한 고통이 느껴질 텐데도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 긴 계단을 올랐다.

"저길 봐요."

2층에 올라선 부따는 손가락으로 정면 사무실 문을 가리켰다. 그가 가리킨 문손잡이에는 도어락 뿐만 아니라 열쇠고리에 쇠사슬까지 칭칭 감겨져 있었다.

"저기 안에 제어반이 있어요. 이 공장 안의 모든 기계들을 통제할 수 있는 버튼이 저기 사무실 안에 있다고요."

부따는 그제야 통증이 느껴지는지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주저앉았다. 2층 난간에 기댄 그의 몸이 앙상한 나뭇가지 같다고 생각한 것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난밤 소방서 차고에서 그를 처음 만나고, 자신의 차에 태워 이 깊은 산속으로 올 때까지, 그리고 차에서 내려 이 거대한 공장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심지어 그가 용광로 위에 올라가 얼음의 노래를 부를 때까지도 훈은 그가 그렇게 마른 사람인지를 몰랐다. 그의 몸은 모든 영양분이 빠져 나가고 얼마 남지 않은 수분 몇 방울로 견디고 있는 사막의 식물 같기도 했다. 곧 말라죽을 것만 같은, 잎의 흔적도 모자라 가지까지 사라진 외줄기 생명이었다. 흡사 그는 빛 하나 가릴 수 없는 사막의 늘어난 그림자 같기도 했다. 어쩌면 그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죽어간 동물의 뼈이기도 했다.

"리타에게 난 셰르파였어요. 나에게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리타에게는 내가 걸어간 길이 곧 길이었으니까요."

부따는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는 듯 눈을 감은 채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한국에 들어오고 이듬해, 리타가 한국에 오겠다는 편지를 받고 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행복한 기억은 사라지고 부따에게는 다시 현실이 다가온 것 같았다. "첫 번째는 리타가 오면 힘이 나겠다는 생각이었고" 그는 뒤로 몸을 돌려 난간을 짚고 일어섰다. "두 번째는 리타를 못 오게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는 난간에 기대 선 채 아래에서 불타고 있는 용광로를 내려다보았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 순간 둔탁한 기계소리와 함께 삐익 하는 경고음이 공장 전체로 울려 퍼졌다. 훈은 부따의 곁으로 달려가 1층을 내려다보

았고 “또 걸렸네요.” 그가 나지막하게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날은 회식을 하고 있었어요.”

1층으로 내려온 부따는 용광로 옆에 걸쳐진 사다리를 오르며 말했다.

“웬일인지 리타와 나도 오라는 거예요. 삼겹살을 사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는 용광로 덮개 위로 올라가 끄트머리에 낀 쇳조각을 툭툭 발로 차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빨갛게 달아올랐던 그의 발바닥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그만해요, 부따!” 훈은 용광로를 향해 걸어가며 소리를 질렀다. “피가 나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공허한 공장 안을 돌아다니며 메아리를 울렸다.

“맛있게 구워진 삼겹살을 하나 집어 먹으려는데”

부따는 훈의 말에도 아랑곳 않고 더욱 세게 쇳조각을 발로 찼다. “전화가 온 거예요.” 툭. 툭. 조금씩 움직이던 쇳조각이 마침내 용광로 안으로 떨어지자 용광로를 시작으로 연결된 기계들이 하나둘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용광로가 멈췄다고 말이에요.” 그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지 붉게 충혈된 눈으로 훈을 쳐다보았다.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부따는 화가 나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한 사람처럼 묘한 웃음을 지며 훈에게 물었다. 이제 막 사다리를 오르고 있던 훈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부따를 올려다보았다. 잠시 사다리를 집고 있었지만 이미 그의 손에는 견딜 수 없는 열기가 느껴지고 있었다. “내려와요, 부따. 어서요!” 하지만 부따는 훈의 눈만 아득히 쳐다볼 뿐 용광로 위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리타가 공장으로 돌아가는 걸 뻔히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용광로 위에 무릎을 꿇은 부따는 양손을 바닥에 대고 절을 올렸다. 잠시 후 이마가 바닥에 닿는 것과 동시에 그는 두 팔과 두 다리를 곧게 뻗으며 바닥에 엎드렸다. 일순간 그의 두 손바닥이, 그의 얼굴이, 심지어 그의 모든 몸이 뜨거운 용광로 덮개 위로 곧게 퍼졌다.

“가다가 그 길이 아닌 것 같으면 돌아오면 되요.”

훈은 부따의 몸 사방에서 뜨거운 열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갔던 길을 부정할 순 없죠. 이미 바닥에는 길이 생겨버렸고, 그 길은 다음 셰르파에게는 걸어가야 하는 길이 될 테니까요.”

훈은 꼼짝하지 않는 부따가 겁이 나기 시작했다.

“셰르파가 처음부터 길을 찾는 건 아니에요. 정상으로 가는 길은 수십, 아니 수백 개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하나씩 걸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 5분이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훈에게는 5시간보다도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일어난 부따가 자신을 향해 무릎을 꿇었을 때 훈은 조금의 안도감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걸은 길은 잘못된 길이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길은 없다고 하더라도, 리타에게 그 길을 걷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부따는 잠시 숨을 고르고 훈을 향해 말했다.
“아침이 오면 쇳물을 부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리타도, 리타가 걸어간 길도 모두 사라지고 말아요.”
이내 부따의 무릎에서도 피어오르는 열기를 보며 훈은 그가 결코 제 발로는 용광로를 내려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훈은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고 그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잠시 후 공장을 뛰쳐나가는 훈의 등 뒤로 다시 시작된 얼음의 노래가 헛헛한 공장 안을 떠다니고 있었다.

무슨 생각으로 차를 몰고 내려왔는지도 모르게 훈은 시내에 접어들었다. 아침 6시면 그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와 무슨 말을 하고 소방차를 가져와야 할지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소방차를 출동시키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오는 길에 신고를 받았어요.’라고 하기에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새벽 4시가 조금 지나 소방서 앞에 도착한 훈은 바로 차고로 들어가지 않고 상황을 살폈다. 그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차를 몰래 가져갈 생각은 없었다. 단지 아직까지 생각들이 정리되지 않았을 뿐, 훈은 팀장에게 어떤 말을 해야 최대한 빨리 소방차를 출동시킬 수 있을지 그 생각뿐이었다.
“사람이 용광로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팀장을 이해시킬 수 있는 말은 그 말뿐이었다.
“처음 신고 받은 시점은?”
“지난밤 9시경이었습니다.”
“현장은?”
“지금 확인하고 오는 길입니다.”
“필요한 인원은?”
“우선은 저 혼자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할 말은?”
“없습니다.”
훈은 최종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의 마음으로 팀장의 대답을 기다렸다. 손목의 시계를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팀장에게도 소방차를 출동시킬 확실한 명분이 필요할 것이었다.
“뭐해? 불 끄러 안 가?”
차고를 향해 달려가며 훈은 리타가 걸어간 길이 사라지지 않기를, 또한 용광로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부따가 조금만 더 견뎌주기를 바랐다. 사이렌을 울리며 시내로 접어든 소방차 위로 어스름이 걷히며 조금씩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펌프차로 산비탈을 오르며 훈은 일 년 전 있었던 사고를 떠올렸다. 그날도 어스름이 걷히던 이 무렵이었다. 야간 근무를 서고 있던 훈과 동석에게 출동 명령이 떨어진 것은 오전 5시경이었다. 패널 제조공장에서 불길이 치솟는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훈과 동석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모든 공장으로 번진 뒤였다.
진압조 관창수였던 훈과 동석이 펌프차에 호스를 연결하고 있을 때, 달려온 공장 관계자가 안에 경비원이 있다고 말했다. 야간에 도난사고가 있어서 지난달부터 경비원을 한 명 고용했다는 것이다. 출동하는 차 안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화재 신고를 최초로 한 사람도 이 공장의 경비원이었다.
그 순간 훈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다. 불길은 공장 입구뿐만 아니라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는 전 공장을 집어 삼킨 지 오래였다. 동석과 자신이 할 일은 어서 빨리 화재를 진압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동료이자 제일 친한 짝이었던 동석은 생각하는 바가 달랐다. 관창수 보조였던 훈에게 노즐을 넘기고 그는 공장 안으로 진입하려 했다.
"미쳤어?"
훈이 건넬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때까지도 훈은 동석이 저 거센 불길 속으로 달려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소방관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라고, 다음 달이면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동석이 그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다.
"잡아. 그리고 내가 사인을 보내면 화점을 향해 공격해. 알았어?"
훈은 동석의 소매를 놓지 않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미친 녀석이 아니고서야 이미 화재가 절정기에 접어든 공장 안으로 진입할 리가 없었다. 분명 동석과 자신은 소방학교에서 그런 무모한 짓은 동료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배웠다. 구조자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소방관의 안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가지 마! 늦은 거 너도 알잖아."
끝까지 소매를 붙잡는 훈에게 동석은 작지만 분명한 말투로 말했다.

"불난 곳에서 사람 구하는 게 우리 일이야. 잊었어?"

매정히 뿌리치는 동석의 손길에 훈은 달려가는 그의 뒷모습만 망연히 지켜보고 있었다. "뭐해? 노즐 잡아!" 달려가면서도 동석은 뒤에 남은 훈의 마음을 다잡았다. "꽉 잡고, 잘 봐!" 그리고 뒤이어 사라진 그의 모습은 훗날 까맣게 탄 얼굴로, 짙은 갈색빛 관에 들어가 누워있던 모습으로, 건들면 쓰러질 것 같은 제

수씨의 품에 안긴 도기의 푸른 빛깔로 훈의 가슴속에 남았다. 훈은 아직도 불길 속에서 손을 휘젓던 동석의 모습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쏴! 쏘라고!” 그의 목소리가 남아 있던 1년 동안 훈은 단 한 번도 관창을 잡지 않았다. 아니, 잡을 수 없었다. 심지어 부따가 소방서로 찾아온 날도,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의 간절한 부탁에도 소방관을 잘못 찾아왔다고 생각했다. 모든 소방관이 동석처럼 용맹하지는 않다고,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꼼짝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소방관도 있다고 그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음바페 음바페 호호. 음바페 음바페 호우호우. 음바페 음바페.”

훈은 부따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펌프차를 밀고 들어갔다. 자물쇠로 잠겨있는 공장의 쇠문을 열 시간이 없었다. 제철공장과 마주하고 있는 먼 산에서는 어느덧 날이 밝으려 붉은 기운이 산 능선을 적시고 있었다.

부따의 다리는 무릎까지 검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훈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얼음의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그가 아직 녹아내리지 않았음을, 용광로의 열기에 스러지지 않았음을 고마워할 따름이었다.

“용광로 덮개를 열고 내려와요.”

훈은 입구에 멈춰 선 펌프차에서 호스를 연결하며 부따에게 소리쳤다. 부따는 춤과 노래를 멈추고 마지막 힘을 다해 용광로의 덮개를 열었다. 지금까지 덮개 안에서 이글거리던 열기가 용광로 밖으로 뿜어져 나오며 일순간 거대한 불길이 천장으로 솟아올랐다. 훈은 다시 한번 일 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발은 사다리에서 조금씩 뒷걸음질치고 있었다.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그 순간 사다리를 내려온 부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훈의 소매를 붙잡지 않았지만 그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 얼굴이었다. 훈은 부따의 눈빛에서 지난날 동석의 눈빛을 보았고, 용광로 위로 치솟는 열기 속에서 패널 공장 안의 불길을 보았다.

‘쏴! 쏘라고!’

훈은 관창을 잡고 사다리를 올랐다. 용광로 덮개 위가 아닌 맞은편 기계 위로 올라가 화점을 응시했다. 더는 화마가 리타를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그가 지금 구해야 하는 사람은 리타이자 동석이었다.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훈은 동석과 함께 부르던 노래를 부르며 화점을 향해 노즐을 열었다.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분사된 물이 용광로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난날 화마 속에서 죽어간 동료들을 떠올리며 ‘소방관의 기도’라는 시에 음을 붙여 만든 노래였다. 훈과 동

석은 그들의 선배에게서, 또한 그들의 후배에게는 훈과 동석이 직접 가르쳐준 노래였다.

"그건 무슨 노랜가요?"

서서히 꺼져가는 불빛을 보며 탈진한 부따가 물었다. 그는 용광로에서 내려온 순간부터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불의 노래예요. 동료와 제가 두려울 때 부르던 노래죠."

훈은 아직도 자신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그것은 숨길 수 없는 것이었다. 소방관의 책임감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자의 가슴에 두려움이 없을 리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가사는 슬퍼서 부르기 싫어요."

훈은 남은 불을 향해 물을 분사하며 부따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리타의 마지막 길을 지켜주어 고맙다고, 다음 셰르파가 리타의 길도 또한 길이었음을 알게 해주어 고맙다고 말하며 울었다. 훈은 리타의 흔적이 용광로 안에 남아있기를, 동석의 흔적이 자신의 가슴 안에서 편안히 잠들어가기를 바랐다.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훈의 노래가 끝나갈 때쯤 제철공장을 바라보던 먼 산에서는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했다. 「신의 은총으로 아내와 우리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훈은 느닷없는 부따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얼음의 노래 마지막 가사와 같군요."

부따는 있는 힘을 다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훈은 사다리를 내려와 부따를 향해 걸어갔다. 걸어가 그의 손을 잡으며 소방관들이 곧 도착할 거라고 말해주었다. 셰르파가 눈 속에서 함께 간 동료를 버리지 않듯, 소방관도 불길 속에서 생명을 포기하지 않음을 나직이 알려주었다. 셰르파와 소방관이 걸어가는 길이 다르지 않음을, 서로의 어깨를 의지한 두 사람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공장 밖으로 걸어 나갔다.

접수번호	29	제 목	트라우마

햇빛을 받은 안양천이 반짝거리며 흘러가고 있다. 물소리가 제법 듣기 좋게 은연하다. 안양천을 따라서 걷다 보면 산책로가 길게 이어진다. 산책로 옆으로 자전거길이 보인다. 자전거를 타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한여름 소나기처럼 싱그럽다.
산책로를 따라 쭉 내려가면 양천구 근처에 이른다. 양천구와 구로구 사이에 작은 다리가 하나 있다. 그 다리 아래로 흐르는 안양천의 모습은 평화롭고 유유자적하다. 작은 다리 오른쪽에 흰색 5층 건물이 있다. 5층 건물 외벽에 강남효심요양원이라는 간판이 커다랗게 붙어있다. 영수는 강남효심요양원 411호에서 생활한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다리를 못 쓰는 사람들이 많다.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체가 약하고 대소변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411호에서 생활하는 4명의 남자 노인들은 모두 하체를 못 쓴다. 그들은 모든 것을 침대에서 해결한다.
침대는 요양원 노인들에게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의 일상은 침대에서 시작해서 침대로 끝난다. 지금 시간은 오전 7시다. 영수는 침대에서 눈을 빼꼼히 뜬다. 그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받아들이려고 준비한다. 눈두덩을 조금씩 열어서 동공 안으로 환한 빛을 들어오게 한다. 지난밤에 잠을 잘 잤는지 어쨌는지는 모를 일이다. 기억은 안 나지만 여느 때처럼 뒤척거리면서 잔 것 같다.
7시 즘이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잠에서 깬다. 7시 조금 지나면 요양보호사들이 물수건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노인들의 얼굴과 손을 씻겨 준다. 아침 먹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다. 오전 일상이 시계 바퀴 돌아가듯 이어진다.
영수 옆으로 미숙 씨가 다가온다. 친절한 미숙 씨다.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한다. 다른 요양보호사들은 은연중에 뚱뚱한 영수를 싫어하거나 무시하는 언행을 한다. 몸집이 크면 침대생활을 하는 노인에게도 또 직원들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영수는 거구에 가깝다. 그가 일부러 살이 찌고 싶어서 살이 찐 것은 아니다.
한때 그도 70킬로그램 밖에 나가지 않는 늘씬한 남자였다. 키 175 센티미터에 몸무게 70킬로그램이면 보기 좋은 몸매였다. 한참 일하던 때는 건강과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화재진압을 위해서 방화복, 방화모, 산소통 그리고 모든 장비를 착용하면 20킬로그램 이상 나간다. 그런 차림으로 긴 수관을 끌고 다니면서 화재를 진압했다.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다. 영수뿐 아니라 동료들 모두가 그렇게 일을 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영웅이라 불렀다. 그러나 아무나 영웅이 될 수는 없다. 준비된 자만이 영웅이 된다. 영수는 체력관리를 철저히 했다. 왕복 오래달리기는 기본이고 시간

날 때마다 아령으로 근육을 키웠던 기억이 그의 눈앞에서 아물거린다.
영수도 한때는 근육질 많은 섹시한 소방관이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침대에서만 생활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지금 영수의 눈가에는 눈곱이 끼어있다. 입가에는 자면서 흘러내린 침이 굳어있다. 꾀죄죄하고 추레한 모습이다. 침대에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머리는 까치 머리다.
미숙 씨가 다가온다. 지저분한 그의 얼굴을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닦아주는 미숙 씨가 고맙기만 하다. 따듯한 물수건으로 수면 자국을 지우는 그녀의 친절한 마음이 영수에게 그대로 느껴진다.
“한영수 어르신. 어젯밤에 주무실 때 소리 지르신 것 기억나세요? 왜 그러셨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다 깨셨잖아요. 저희가 어르신 모시고 휠체어 태워서 로비 한 바퀴 돈 건 기억나세요?” 미숙 씨가 조용히 일러준다. 그러나 그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미숙 씨의 설명을 듣자 ‘내가 왜 소리를 질렀을까? 악몽을 꾸었나 보다. 꿈속에서 병태야, 하고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겠다.’라고 영수는 생각했다.
요즘에 자면서 소리를 지른다고 요양 보호사들이 말해주지만 영수는 그들이 알려주는 그 사실조차도 곧 잊어버린다. 망각하고 또 새로운 망상의 세계로 빠져든다. 지금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이 순간에 대해서도 곧 잊을 것이다.
모든 것이 뿌옇고 흐리기만 하다. 뇌에 뭔가가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그의 뇌는 매일 퇴락하는 가옥 같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지어내다가 또다시 무너뜨리는 작업을 한다. 이런 반복을 하다 보면 가옥이 천천히 쇠락해 가듯이 뇌 건강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으리라. 그래도 그를 돌보는 가족이 있어서 그는 감사하다.
특히 큰 딸 은주가 고생을 많이 한다. 은주는 가정이 있고 일을 하는지라 바쁘고 힘들다. 그런데도 일주일에 두 번씩 아버지를 찾아왔다.
은주는 영수의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여러 방면으로 애를 썼다. 치매 4등급 환자인 아버지에게 동화책을 읽게 하고 어린이 산수 문제집도 풀도록 도와줬다. 무엇보다도 운동에 신경을 많이 썼다. 손가락 운동과 상체운동을 시켰다. 영수의 노화는 뇌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손가락이 류머티즘 관절염에 걸렸다. 그의 손가락은 빳빳하게 휘어서 굳어버린 나뭇가지 같다. 겨우 숟가락질, 젓가락질 할 정도로만 움직일 수 있다. 그 정도라도 할 수 있으니 다행이었다.
하루는 점점 굳어가는 영수의 손가락을 보고 은주가 슬프게 울었다. 그도 코끝이 찡해서 같이 울었다. 부녀간의 울음은 서로를 향한 동정과 측은지심이었다. 그날 은주는 손가락 운동을 끝내고 상체운동을 시켰다. 영수에게 자신의 몸동작을 따라 하라고 했다. “아빠. 팔을 올려서 쭉 펴세요. 양팔을 쭉 펴서 목뒤로 올리고 양옆으로 움직이세요.”라고 했다. 영수는 몇 번 따라 하고서 힘들다고 했다. 은주는 운동시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빠... 그럼... 이번에는 양팔을 옆으로 뻗어서 돌리세요.”라고 했다. 영수는 바람개비 날리듯이 양팔을 허공에 대

고 마구 흔들었다. 그랬더니 실제로 겨드랑이에서 바람이 나오는 상상이 영화처럼 그려졌다. 그의 특기를 살리는 순간이었다. 상상의 나래를 펴는 일이 즐겁고 신났다.
겨드랑이 바람이 시원한 산바람으로 바뀌는 장면으로 연출됐다. 신록으로 치장한 산천이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5월이었다. 산새들이 즐거이 노래를 부르고 나무 밑동에서 작은 생명체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다. 갑자기 아름다운 장면이 바뀌면서 바람이 산을 넘어뜨릴 정도의 힘으로 거세게 달려들었다. 나무를 뿌리째 뽑으려는 강풍이었다. 영수는 바람을 잠잠하게 하려고 겨드랑이에게 힘을 빼라고 명령했다. 이상하게 겨드랑이도 바람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전히 세찬 바람이 불었다.
저만치 잿빛 연기가 올라왔다. 처음에는 잿빛이었는데 점점 검은색으로 변했다. 그는 검은색 연기 안에서 악마를 봤다. 놈의 목적은 파괴였다. 멀리 있던 검은 연기가 가까이 다가왔다. 영수는 소방관 복장을 하고 비장한 모습으로 물을 뿌렸다. 나무와 나무 사이의 검은 연기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검은 악마와 싸우기 위해서 전투 자세를 취했다. 적에게 공격을 가했다. 악마는 그의 공격을 받고 주춤하더니 한 걸음 물러섰다. 선전하고 있던 영수에게 난감한 일이 벌어졌다.
소방차와 연결된 수관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병태야를 외쳤다. “병태야 물이 안 나온다. 어찌 된 거지?” 하고 절규했다.
그때 은주가 픽 하고 웃었다. “아버지는 팔을 양옆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좋아하시는군요. 병태 아저씨 이름도 부르고...” 라고 했다. 은주의 웃음소리가 그의 겸연쩍음을 해소시켰다. 그의 뇌 활동은 이런 식이었다. 현실과 상상, 과거와 망상이 뒤죽박죽으로 섞여있는 상태였다.
영수의 기억력은 컨디션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랐다. 몸 상태가 안 좋은 날은 기억력도 최악으로 치달았다. 은주가 일주일에 두 번씩 찾아올 때였다. 그날은 그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날이었다.
“은주야, 너네 엄마는 어디 있니? 병태는 어디 있지?”
“아빠...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당뇨합병증으로 병태 아저씨는...하여튼 돌아가셨어요.”
처음에는 은주가 친절하게 대답했다. 그날 은주는 상체 운동을 시키고 있었다. 상체운동을 마치고 은주가 손뼉을 치라고 했다. 영수는 건성으로 손뼉을 치면서 똑같은 질문했다.
“은주야, 너네 엄마는 어디 있니? 병태는 어디 있지?”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박수는 치매환자나 노인들에게 좋은 운동이다. 은주는 영수가 집중을 하지 않자 자신이 환자인 양 더 열심히 손뼉을 쳤다. 영수에게 박수를 더 열심히 치라는 몸짓이었다. 영수는 여전히 건성건성 손뼉을 쳤다. 조금 전에 그는 질문을 했고 은

주는 대답을 했었다. 1분도 안 지나서 그는 또 은주를 약 올리듯이 같은 질문을 했다.
“은주야, 너네 엄마는 어디 있니? 병태는 어디 있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아빠...손뼉 치는 것 집중하세요.”
“알았어, 그런데...너네 엄마는 어디 있니? 병태는 어디 있지?”
“뭐야? 오늘 왜 그래요? 아빠...정신 차려요. 도대체 왜 그래? 왜 노력을 안 해? 내가 지금 5분 동안 5번이나 대답을 했잖아요. 아무리 치매라도 그러면 안 되지. 정말...왜 그렇게 노력을 안 해? 내가 대답을 했으면 잘 기억해야지. 오늘은 안 되겠다. 나 그냥 집에 갈게요.”
영수의 엉뚱한 기억력과 지겨운 질문 때문에 은주는 411호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집으로 가버렸다. 화난 얼굴로 그렇게 떠나 버렸다. 그날 영수가 왜 그랬는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아무리 치매라도 그날처럼 그렇게 쉬지 않고 똑같은 질문을 하지는 않는데 말이다.
은주가 떠나자 ‘바보스러운 질문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영수는 후회를 했다. 후회와 함께 우울감이 몰려왔다.
이틀 후에 은주가 다시 찾아왔다.
“아빠, 제가 이틀 전에 화내고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래? 네가 화를 냈었니?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제가 상태가 안 좋았어요. 짜증내서 미안해요.”
“아니다. 괜찮다.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내가 치매잖아. 나는 다 잊어버렸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내가 미안하다. 내 상태가 안 좋았나 보다.”
은주는 눈물을 보이면서 늙은 아버지에게 사과를 했다. 딸의 눈물을 보자 영수의 코가 찡해졌다. ‘은주가 속으로 얼마나 속상했을까...아! 나는 어쩌자고 아이들에게 마음고생을 시킬까.’ 하고 생각했다.
이틀 전에 은주는 요양원을 나가면서부터 마음이 불편했다. 아버지에게 짜증 낸 자신이 미워서 죄책감에 시달렸다. 아버지의 치매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는 상태가 싫었다. 아버지가 치매환자라는 현실이 원망스러워서 울었다.
은주의 눈물을 보자 영수도 미안해서 같이 울었다. 그러나 이틀 전에 은주가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은 기억하지 못했다. 은주가 말해 주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게다가 그는 은주가 말해준 사실도 곧 잊고 말았다. 그는 치매환자니까...그날이 2020년도 초에 은주가 영수를 찾아온 마지막 날이었다.

요양원의 노인들에게는 식욕, 수면욕, 배설욕이 중요한 삶의 요소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본능밖에 없는 듯이 보인다.
영수가 치매 등급을 받기 전에 요양원 입소를 놓고 고민한 적이 있었다. 그의 상

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때였다. 그는 지인들을 통해서 요양원에 들어가면 장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 말은 영수에게 회의적인 마음만 들게 했다.
“내가 만약 요양원에 들어가서 살면 무엇이 좋을까?” 하고 은주와 대화를 했다.
“삶의 질이 좋아지지요...사람들이 그러는데...요양원 들어가면 오래 사실 수 있데요.”
“그래? 그런데 왜 오래 살아야 하지? 무엇을 위해서 오래 살지? 오래 살기 위해서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말이니?”
“장수하면 좋은 거죠...”
“글세...”
영수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면서 여든이 다 되어가던 즘에 치매 증상이 나타났다. 그는 그전부터 요양원에 들어가면 죽을 사람도 생명이 연장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인들은 영수에게 요양원에 들어가서 살 것을 권했다. 그들은 영수가 요양원에서 살면 “오래 살 거야.” 라고 말했다.
이제 영수가 요양원 생활을 한지 삼 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영수는 지인들의 말처럼 건강하게 살고 있다. 아마도 규칙적인 생활, 영양가 있는 음식, 생명을 연장시키는 의약품 때문이리라. 그의 신체 건강은 아직 양호했지만 치매 상태는 나빠지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 은주가 보이지 않았다. 영수가 은주를 마지막으로 본 이후, 얼추 한 달이 지난 2월이 됐어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영수는 은주가 시키는 대로 운동을 잘 따라 하지 않고,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아서 딸이 삐친 줄 알았다. 아니면 은주의 가정이나 직장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주는 2020년 3월이 되어도 영수를 찾아오지 않았다. 영수는 미숙 씨에게 “우리 은주가 요즘에 왜 안 오죠?” 라고 질문했다. 미숙 씨는 “어르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면회가 중단됐어요.” 라고 했다. 영수는 코로나가 뭐냐고 물어봤다. 그녀는 “코로나란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것인데요...요즘 전염병이 창궐해서 보호자들 면회가 중단됐어요."라고 했다. 요양보호사들과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유난히 일회용 장갑을 많이 사용했던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었다.
2020년 5월 8일 어버이날에도 은주는 오지 않았다. 전염병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대신 은주가 손 편지를 보냈다.
“아버지 건강히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뵙지는 못하지만 은석이와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고 계시죠? 언제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곧 아버지를 뵙길 바라면서. 은주 올림”
편지를 여러 번 읽고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놓았다.
편지를 읽을 때는 그렇게 은주가 그립더니, 편지를 협탁 위에 올려놓고 나서는,

은주에게서 편지가 왔었다는 사실을 잊고 말았다. 그리고서 미숙 씨에게 은주가 언제 오는지를 물어보았다.
두 달 후에 요양원에서 비접촉 면회를 허락해서 은주와 만날 수 있었다. 영수는 마스크를 쓰고 손에 비닐장갑을 착용했다. 은주와 영수 사이에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이 있었다. 은주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흥분한 영수는 은주를 보고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손을 흔들었다. 은주도 아버지를 따라 했다. 부녀는 그렇게 그들만의 방식으로 상봉을 했다.
"은주야. 엄마는 잘 지내니? 병태 아저씨도 잘 있지?"
"네, 아버지 모두 다 잘 지내세요." 은주는 아버지와의 말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마치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아버지 저희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건강 잘 챙기세요. 알았죠?"
"엉...알았다. 그런데 너는 지금 어디 사니?"
"저는 구로동에 살아요."
"그랬구나. 엄마는? 병태 아저씨는?"
"....."
"너는 지금 어디 사니?"
영수는 지겨운 질문으로 은주의 귀를 괴롭혔다. 영수가 똑같은 질문을 하는 바람에 부녀는 할당된 15분 동안 계속해서 같은 대화만 반복했다. 바보들의 대화 같았다.
은주가 떠나자 영수의 머릿속에 혼란이 왔다. 갑자기 아내에 대한 기억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아내가 당뇨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난 일은 기억이 났다. 병태에 대한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강남효심요양원 411호의 노인들은 8시에 아침을 먹고 한 움큼의 약을 먹는다. 영수는 치매약, 부정맥약, 혈압약, 관절염약 그리고 변비약을 먹는다. 약을 먹은 후에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한다. 다시 침대에 누워서 늘어지게 낮잠을 잔다.
오전 11시 반이 되면 요양보호사들이 낮잠 자는 노인들을 깨우고 점심 먹을 준비를 시킨다. 아침 먹는 절차와 같다. 요양 보호사들이 침대 아래 손잡이를 돌려서 누워있던 침대를 일으킨다. 침대가 일어나면 영수의 몸도 침대를 따라서 올라간다. 침대와 영수는 한 몸이다.
점심을 먹고 또 한 움큼의 약을 입에 넣는다. 모두 영수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지만 약을 너무 많이 먹는다. 영수를 포함해서 411호의 노인들은 모두 그만큼의 약을 먹는다. 약이 후식처럼 많다.
영수는 치매를 앓고 있지만 가끔씩 정상인처럼 생각이 돌아올 때도 있다. 그때 그는 나름대로 철학을 하기도 한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약을 먹을까? 내 병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서겠지...결국 오래 살려고 약을 복용하는 꼴이 되었네...내가 왜 치매에 걸렸을까? 잘 모르겠다.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슬프지는 않다. 내가 치매에 걸린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은주도 모르고 의사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알겠지. 하나님도 모르실라나? 치매란 여러 가지 이유로 걸린다고 하니 누가 정답을 알겠는가. 수학 문제도 아니니까 정답도 없다.” 라고 중얼거린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요양원에서 하는 활동이 꽤 다양했었다. 종이접기, 색칠공부, 노래교실, 꽃꽂이 등을 했었다. 요양원의 이런 활동 때문에 영수가 휠체어를 탈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모든 활동이 중단됐다. 대외적인 활동은 중단됐지만 건강 상태가 양호한 몇몇 노인들이 로비에 모이기도 했다.
영수는 또 생각에 빠진다. ‘노인들이 로비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내 방까지 들린다. 저 노인들은 비교적 상태가 좋고 몸이 가벼운 사람들이겠지. 내가 로비에서 활동하는 노인들 축에 끼지 못하는 이유는... 내 몸이 뚱뚱해서다. 요양보호사들이 코로나 핑계를 대지만 그들이 나를 활동에서 제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뚱뚱해서 그럴 것이다. 나 한 사람을 휠체어에 태우려면 요양보호사 5명이 붙는다. 아... 나도 정말 미안하다. 그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그래도... 나도... 가끔씩은... 휠체어를 타고 싶다. 휴...’ 생각에 빠진 영수는 한숨을 쉰다.
요즘 영수가 침대에서만 생활하니 죽을 맛이었다. 그나마 그가 치매환자니까 견딜 수 있지, 정신이 말짱한 노인 같았으면 일상이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다.
“휠체어를 타고 로비라도 나가서 콧바람을 쐬고 싶다. 내가 휠체어를 타고 싶은 이유는... 휠체어를 타는 일은 재미있으니까... 하하하... 바퀴가 달려서 재미있다. 자전거 타는 기분과 같다. 나는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다. 소방대원으로 일할 때 자전거 타기를 즐겼지...” 그는 누구라도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411호에는 4명의 노인들만 있었고 요양보호사들은 없었다. 요양보호사들은 다른 방에서 기저귀 케어를 하고 있었다.
영수는 계속해서 혼자만의 생각에 빠졌다. ‘아! 이제 기억이 난다. 나는 병태와 함께 자전거를 많이 탔었다. 우리 둘이서 시간 날 때마다 자전거 여행을 하곤 했는데... 자전거 타기는 스트레스를 날리는 최고의 약이었는데... 우리의 삶이란... 목숨을 내려놓고 사는 삶이었지. 외줄 타기 같은 긴장의 연속이었어... 맞아. 그랬지... 화재현장으로 출발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생각했다. 그날이 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날이 마지막 출동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날이 가족과 함께한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화재 진압하러 출동하는 소방대원으로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늘 가슴에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하나씩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화재현장으로 달려가는 이들이니까...'
영수에게 있어서 자전거 타기는 최고의 취미생활이었다. 자전거를 씽씽 타고 달리면 소방대원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자전거길에 모두 떨구는 느낌이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와 그 중압감을 바람에 맡기면 바람은 영수의 고뇌를 자신의 숨결로 치유해 주곤 했다.
영수와 병태는 평소에 한강 자전거 길을 달렸다. 안양천에서 시작해서 마포대교를 지나면 잠수교가 보인다. 잠수교 근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자전거를 타면 한강 아이유 고개로 진입한다. 아이유 고개를 넘으면 하남시다. 하남시에서 조금만 더 가면 팔당대교가 나온다. 영수와 병태는 팔당대교를 건너서 국수 한 그릇을 먹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코스를 좋아했다.
그날도 두 사람은 같은 코스로 달리고 있었다. 반포대교에 도착했을 무렵 병태가 잠시 쉬자고 했다. 두 사람은 자전거에서 내려 천천히 한강 둔치 쪽으로 걸어갔다. 자전거는 그들을 따라가면서 덜거덕 덜거덕 바퀴 소리를 냈다.
갑작스러운 정지는 체력을 방전시켰다. 한참 달리던 다리의 힘이 풀려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다. 영수는 약간 피곤을 느낀 채 병태 뒤를 쫓아갔다. 영수보다 앞서가던 병태의 침묵이 그를 더 피곤하게 했다. 그날 병태는 평소보다 말수가 없고 얼굴 표정이 어두웠다. 영수 앞에서 걷던 병태의 뒷모습은 무거운 자전거를 힘겹게 끌고 가는 고독 그 자체였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반포대교 건너편의 동네가 한강과 어울리는 도시 전망을 뽐내고 있었다. 한강은 유유히 흐르면서 병태와 영수를 유혹하듯 쳐다보고 있었다.
영수는 자전거를 세워 놓고 둔치에 털퍼덕 앉았다. 병태도 그의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한참이 지나도 병태는 입을 열지 않았다. 과묵한 병태의 옆모습이 영수를 숨 막히게 했다. 영수는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항상 병태에게 먼저 말을 시키고 또 쉬지 않고 말을 하는 유형의 남자였다. 결국 그는 병태의 침묵을 깨뜨렸다.
"병태야.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냐?"
"....."
"말을 해야지. 답답하다. 나 성질 급한 거 다 알잖아."
"내가 말 안 했나? 내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 말이야."
"무슨 문제?"
"내가 불안증과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상담받고 있다는 사실."
"말했지. 너 병원 다니면서 좀 좋아진 거 아니었어?"
"나 병원 다니는 거 너 혼자만 알고 있지?"
"당연하지. 네가 부탁했잖아. 그리고 너만 힘든 거 아니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 누구에게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알아. 우리 모두 힘들지.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그러니까. 우리 소방서 사람들 대부분이 악몽에 시달리고 있을 거야. 아니,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관이 다 똑같지 않을까? 나도 악몽에 시달린다고 너한테 말했잖아. 오죽하면 내가 수면제 먹고 자겠냐?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사람 구하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영웅이라고 부르지만... 실상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우리 자신이고...”
“나 도저히... 더 이상 못 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병태야. 병가를 내고 잠깐 쉬어 보는 것은 어떨까?”
“.....”
“나도 가끔씩 병가 생각을 해. 그런데 나는 딸린 가족이 세 명이잖아. 그래서 망설이곤 하는데... 너는 혼자잖아. 혼자니까... 나보다는 비교적 쉽게 병가 낼 수 있을 거야."
“알았어. 생각해 볼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영수와 병태가 소방대원으로 일할 때는 어려움이 많았다.
사람들은 소방대원을 영웅, 히어로(hero), 슈퍼맨 (superman)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위기에 처한 시민을 구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인지라 화염 속으로 뛰어들거나 화마와 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 영웅들 안에는 시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보이기를 꺼려하는... 그들만의 트라우마가 있다. 화마를 보고도 무섭지 않은 듯 행동해야 하는 강박 자체가 심리적 부담이다. 화염 속에서 죽어가던 시민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악몽이 된다. 진압 후에 잿더미에서 발견한 시체는 유골로 남아있거나 일그러진 얼굴이다. 그들의 모습은 언제나 소방대원의 가슴에 남아있다.
불과 싸우는 소방대원, 산이나 계곡 등에서 요구조자를 구하는 구조대원, 응급환자를 도와주는 구급 대원. 이 모든 이들이 시민의 영웅이요 슈퍼맨이다. 인명을 구하지 못했을 때의 죄책감은 영웅들을 옥죈다. 미처 구하지 못한 시민들의 환영은 그들의 가슴에 남아서 환청으로 또 환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시민의 영웅으로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들의 허울 좋은 자존심은 점점 더 그들을 지치게 한다.
영수도 항상 불면증에 시달렸다. 오죽해야 숙면을 하는 것이 현직에 있을 때의 소원이었을까. 잠을 자려고 하면 귀에서 사이렌 소리가 나는 듯했다. 영수는 이런 문제를 누구에게 속 시원히 말할 수 없었다.
병태는 말이 없고 과묵해서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그런 성격이 병태를 강한 사람으로 보이게 했다. 실상 그의 과묵함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기제이었을 뿐이었다. 내면의 갈등과 고통, 소방대원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중압감, 화재현장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병태를 앗아가고 있었다. 악마는 조금씩 병태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

“아... 배 아프다. 똥이 마렵...다... 미숙 씨... 똥...똥 쌌어요.” 그는 미숙 씨를 불렀다. 엉덩이에 뭔가가 척척하게 들러붙는 느낌이 싫다. 여느 때처럼 그는 기저귀에 묽은 똥을 쌌다.
‘배변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침대에서만 생활하는 나는 인간일까 동물일까?’ 영수는 또 거침없는 생각에 빠진다. 먹기만 하고 걷지도 못하고 침대에서만 24시간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그의 장에 문제가 많았다. 요양원 입소 전부터 문제가 있던 영수의 장은 더 이상 스스로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는 매일 변비약을 먹는다.
변비약을 먹어야만 배변이 가능했다. 그래서 똥이 묽게 나온다.
미숙 씨 대신에 이제 금자 씨가 들어와서 영수의 기저귀를 갈고 있다. 영수가 기저귀 차고 생활한지 삼 년이 됐는데도 적응이 안 된다.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싶은 배변욕구는 여전히 그를 힘들게 한다. 수치스럽고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늘 혼재되어 있다. 금자 씨가 물티슈로 뽀송뽀송하게 그의 엉덩이를 닦아줬다.
“어르신, 자세를 오른쪽으로 돌렸다 왼쪽으로 돌렸다 하세요. 한 방향으로만 누워계시면 저번처럼 욕창 생겨요.”
“알았어요.”
“욕창 생기면 어르신 또 고생하세요. 피부가 다 벗겨지고... 얼마나 아프셨는데... 그때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프다는 단어가 영수의 뇌리를 스쳤다. 아픔이라는 단어가 그의 감정을 자극했다. 슬픈 감정이 꿈틀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치매약을 먹어도 감정 조절이 안 될 때가 있다. 슬픈 감정이 슬픈 기억을 불러왔다. 병태에 대한 기억이 살아나면서 영수의 감정이 주체가 안 됐다.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영수는 마침 교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한강수난구조대에서 전화가 왔다. 영수의 이름을 확인하는 구조원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동작대교 근처에서 문병태 씨의 자전거와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지갑에 한영수님 명함이 있어서 먼저 연락드립니다.” 라고 했다.
영수는 구조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병태의 자전거가 동작대교 근처에 있다고 하는지... 그때 병태는 병가를 내서 쉬고 있었다. 영수는 병태가 고향에 내려가서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왜 그의 자전거가 한강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도착한 동작대교 아래의 산책로에는 눈에 익은 자전거가 바닥에 누워있었다. 뉘여 있는 자전거 옆으로 백팩도 나란히 땅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비에 젖은 병태의 물건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병태는 자전거를 누이는 적

이 없었다. 그날 병태의 자전거는 바닥에 누워서 커다란 바퀴를 드러내고 있었다. 마치 벌거벗은 늙은이의 몸뚱이처럼 말이다. 흉측하고 애잔한 바퀴의 비애였다.
영수는 한강을 바라보면서 병태를 외쳤다. “병태야! 병태야 !” 잔잔하게 내리는 빗방울이 그의 눈물과 만나서 턱 아래로 떨어졌다. 눈물 섞인 빗물은 산책로로 떨어져서 다시 한강으로 흘러갔다.

영수가 눈물을 흘리자 금자 씨가 알아보고 “쯧쯧쯧...” 한다. “어르신. 따님 보고 싶어서 우시는 거죠?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우세요... 그렇잖아도 내일... 한은주 님 비대면 면회가 잡혀있어요. 내일이면 따님 보실 거니까 너무 울지 마세요.” 라고 했다.
금자 씨는 영수가 울면 은주가 보고 싶어서 그런 줄로만 안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병태가 보고 싶다. 오늘따라 병태가 더 그리운 이유는 창밖에 내리는 가을비 때문인가 보다.
“이때 즈음이었지... 아마... 병태의 기일이...” 하고 중얼거린다. 요양보호사들은 노인들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 노인들이 중얼거리는 소리와 요구할 때의 목소리 톤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자 씨는 기저귀를 가지고 411호를 나갔다.
정확하지 않지만 병태의 자전거 바퀴에 떨어지던 빗방울이 스산하고 차갑게 느껴졌던 기억은 있다. 병태의 기일이 어느 가을날이었다는 것이 영수의 기억에 흐릿하게 남아있었다.
“나쁜 자식... 문병태...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갈수 있니?... 왜?... 흑흑흑...왜?...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너 때문에... 흑흑흑... 자식아... 너 때문에 내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 내가 널 얼마나 그리워하는 줄은 아니? 병태야... 흑흑흑... 친구야... 너는 언제나 내 마음에 남아 있을 거야... 내 기억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영수는 작은 소리로 또 한 번 중얼거린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창문으로 떨어지는 가을비가 애처롭다. 빗소리를 듣자 잠이 오면서 조금씩 영수의 눈이 감긴다. 조금 있으면 금자 씨가 저녁 먹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노인들을 깨울 것이다. 그때까지 영수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기로 했다.
“꿈속에서라도 병태를 만나보고 싶다. 녀석을 만나면 꼭 안아 줄 테다. 그리고... 병태야 수고 많았다! 하고 말해 줘야지...” 영수는 옹알이하는 아기처럼 입을 움직이면서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잠을 실컷 자는 것이 젊었을 때의 소원이어서 그랬는지, 영수는 잠자기를 좋아한다. 빗소리와 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지고 있다. 시끄럽고 요란한 사

이렌 소리지만 영수의 귀에는 자장가처럼 들렸다.

“웽 웽 웽 웽... 삐용 삐용 삐용 삐용 삐용 삐용 삐용 삐용...”

접수번호	49	제 목	장마

알람소리 대신 울어대는 매미소리에 눈을 떴다. 땀에 젖은 셔츠의 불쾌감을 느끼며 여름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바짝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 냉장고를 열자 뿜어져 나오는 냉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덜덜거리는 선풍기 앞에 앉아있는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대용의 시선도 텔레비전을 향했다. 비가 많이 내릴 거라는 일기예보가 나오고 있었다.

"오늘 쉬는 날이지?"

아버지의 물음에 대용은 기지개를 켜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한 끈적거림을 참을 수 없었던 대용은 욕실을 향했다. 샤워기를 통해 나오는 시원한 물줄기가 상쾌했다. 몸이 얼얼해질 즘 욕실에서 나온 대용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평소보다 많은 출동 소식에 줄기차게 뛰어나가는 동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비가 올 거라는 일기예보와는 달리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에 눈이 찡그려졌다. 논에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은 대용은 밀짚모자를 썼음에도 밀려오는 열기에 불쾌지수가 올라갔다.

"오! 대용이 오늘 쉬나 보네. 잠깐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고개를 돌리니 아랫집 김씨 아저씨가 담벼락 너머에서 고개만 내민 채 대용을 보고 있었다. 김씨 아저씨의 집에 들어서니 마당에 화로가 보였다. 가마솥 앞에서 기다리는 김씨 아저씨에게 다가갔다. 얼마 만에 보는 가마솥인지 모르겠다. 제법 무게가 나가서 김씨 아저씨와 함께 들어서 옮겼다. 잠시 기다리라던 김씨 아저씨는 금방 집에 들어가더니 하얀 액체가 담긴 컵을 들고 나왔다.

"이거 마차야. 엊그제 산에서 뿌리 좋은 놈을 캤거든."

대용은 유리잔에 담긴 마차를 벌컥벌컥 마셨다.

"어우. 좋은데요."

"그치? 저녁에 아버지하고 들려. 좋은 게 들어와서 동네 분들 모시고 같이 먹을 거야."

김씨 아저씨는 손가락을 동그랗게 만들어 입으로 넘기는 자세를 취했다. 아버지와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실 모습이 훤히 보였다. 아버지의 논으로 향하는 길에 잡초를 뽑고 있는 우씨 할아버지가 보였다. 이전에 한 번 쓰러지셨던 기억이 있어서인지 이렇게 뜨거운 날 일하시는 모습은 걱정이 되었다. 우씨 할아버지가 대용을 보더니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하세요."

우씨 할아버지는 걱정하지 말라며 손을 들어올렸다. 아버지의 논에 도착한 대용은 창고 안에서 삽을 꺼냈다. 벼는 허리까지 자라 있었다. 살살 불어오는 바람에 푸른 벼이삭은 마치 머리카락이 흩날리듯 흔들렸다. 논안에 들어서자 장화가 제법 깊게 잠겼다. 모자를 고쳐 쓴 채 고랑을 파기 시작한 대용의 등은 벌써 축

축하게 젖기 시작했다. 뻐근해진 허리를 펴기 위해 상체를 세운 대용에게 우씨 할아버지 논에 있는 아버지가 보였다. 아버지도 우씨 할아버지가 걱정되어 나오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대신 논을 파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자 대용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우씨 할아버지의 논으로 간 대용은 아버지와 함께 아무 말도 없이 고랑을 파내기 시작했다. 고랑을 파며 흘깃 본 아버지의 모습은 예전 같지 않았다.

어릴 적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돕고 있는 모습뿐이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가족을 우선해 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허허 웃기만 하셨다. 어머니는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다. 조금만 일찍 알았다면 살 수 있었다는 말에 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다. 집에 박혀서 나오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방치된 어린 대용을 걱정해 주었다. 집으로 데려가 밥도 먹이고 간식도 나눠주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가족을 챙기는 것 같았다. 어린 대용의 눈에 아버지의 모습은 무기력해 보였기에 대용은 이럴 거면 왜 어머니보다 마을사람들을 우선했는지 아버지에게 따졌다.

"마을 사람들도 전부 가족이니까."

돌아오는 대답은 그것뿐이었다. 그날의 진실을 듣게 된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였다. 이장은 자신의 집에서 대용에게 밥을 먹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용아. 그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란다. 이미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숨기고 있었던 것은 네 어머니였다. 미리 수술만 받았다면 살았을 거야. 그 수술비가 문제였지. 그깟 수술비가 뭐라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가족이야. 수술비 정도는 함께 부담해줄 수 있는 사이란 말이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단다.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가족여행을 위해 몰래 아버지가 부업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고 대용은 어떤 표정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봐야 할지 몰랐다. 이장은 그런 대용에게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면 된다고 했지만 대용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다. 한 달이 지나고 아버지는 다시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돕기 시작했다. 대용도 아버지를 따라 농사일을 시작했다. 서로 거의 대화도 나누지 않으면서도 대용은 아버지를 도와 마을 일을 열심히 했다. 대용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아버지보다 일을 잘하게 되었고 마을사람들은 아버지보다는 대용을 찾기 시작했다.

고랑을 파는 일이 마무리되었다. 아버지의 논까지 정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우씨 할아버지가 경운기로 데려다 주었다. 집에서 씻고 김씨 아저씨의 집 마당에 들어서니 이미 술판이 벌어져 있었다. 아버지는 김씨 아저씨와 마지막까지 남아서 염소고기에 남은 술을 전부 비워낸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버지를 업어 잠자리에 눕힌 대용은 잠꼬대를 하며 이불을 걷어차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웃으며 다시 이불을 덮어주었다.

알람소리가 제법 요란하게 울렸다. 인상을 찌푸리며 눈을 뜬 대용은 거울에 비친 빨갛게 그을린 얼굴을 확인한 후부터 따끔거리는 것만 같았다. 찬물을 받아 얼굴을 담그며 따끔거림이 가라앉기를 바랐다. 출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은 후 아버지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여전히 코를 골며 주무시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집을 나섰다. 근무지인 119안전센터는 집에서 차로 오 분 거리였다.

"어제 하도 출동했더니 피로가 풀리질 않아."

우현은 잠을 제대로 못자서인지 눈이 반쯤 감겨 있었다. 차에서 내린 대용의 어깨에 손을 올려 기댄 우현은 대용의 얼굴을 쳐다보며 웃기 시작했다.

"뭐가 웃겨요?"

우현은 불쾌해하는 대용의 등을 두드리며 고개를 돌렸다. 분명 얼굴을 보고 그런 것이라 생각하니 자기를 놀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센터 안에 들어서자 선배 정은이 대용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우현은 그런 정은을 흘깃 보고는 장난스럽게 대용의 새빨간 얼굴을 손가락으로 건드렸다. 따가운지 인상을 찌푸리며 우현의 손을 쳐내는 대용을 본 정은이 자신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자리에 앉은 대용에게 다가온 정은은 마스크 팩을 대용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어제 선크림 안 바르고 일했지? 이거 붙이고 얼굴 좀 가라앉혀."

"선배. 고마워요. 대신 제가 커피 살게요."

대용이 얼굴에 마스크 팩을 붙이는 사이 센터장이 들어왔다. 대용은 깜짝 놀라며 스프링 튀기듯 몸을 일으켰다. 센터장은 대용의 얼굴을 보고 미소 지은 뒤 사무실로 들어갔다. 대용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생각에 자리에 앉으며 얼굴을 가렸다.

대용에게 있어서 센터장은 우상과 같은 존재였다. 대용이 소방공무원이 된 이유이기도 했다. 대용은 아직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고등학생일 때의 일이었다. 이장의 부탁으로 마을회관에서 청소를 하던 대용은 비틀거리며 마을회관으로 들어오는 우씨 할아버지를 보았다. 얼굴이 빨갛고 술 냄새가 진동하는 것으로 보아 논일 하면서 제법 드신 것 같았다. 마을회관 안에서 쉬고 가려는 듯 안으로 들어갔다. 신발을 벗던 우씨 할아버지가 앞으로 넘어갔다. 큰 소리에 안을 본 대용은 일어나지 않는 우씨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심장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대용은 정신이 멍해졌다.

정신을 차린 대용은 마을회관의 전화로 119에 신고했다. 우씨 할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아서 안절부절 못하는 시간이 흘렀다. 구급차가 도착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대용에게는 너무도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착한 구급차에서 내린 사람은 센터장이었다. 숨을 쉬지 않는 우씨 할아버지를 바로 눕힌 후 흉부압박을 시작하는 센터장의 모습이 눈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마에 맺힌 땀이 이마에서부터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른 소방관이 심장제세동기를 들고 들어왔다. 우씨 할아버지의 웃옷을 걷은 뒤 패치를 붙였다. 제세동기가

가동을 멈추고 센터장은 계속해서 흉부압박을 시작했다.

마른기침과 함께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우씨 할아버지를 보며 대용은 안도감에 다리의 힘이 풀렸다. 센터장은 그제야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냈다. 어르신의 가족에게 연락을 하라는 센터장의 말에 대용은 우씨 할아버지의 휴대폰에서 연락처를 뒤지기 시작했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우씨 할아버지를 따라 구급차에 올랐다. 대용은 구급차 안에서도 우씨 할아버지를 살피는 센터장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최선을 다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센터장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았다. 가족 같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소방공무원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서 소방공무원을 준비한 대용은 운이 좋게도 소방공무원을 하다 입대한 선임을 만났다. 선임은 성실한 대용을 좋게 보았다. 그래서 대용이 소방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자마자 준비해야 하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덕분에 대용은 제대하자마자 소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할 수 있었다.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우현이 대용의 어깨를 치며 밖으로 나가자는 손짓을 했다. 주차장은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아지랑이로 왜곡되어 보였다. 호스를 끌고나온 우현이 손잡이를 돌렸다. 아지랑이를 삼키고 시원하게 뻗은 물줄기 아래로 무지개가 생겼다. 후끈한 수증기에 몸서리치던 우현이 장난으로 대용에게 호스를 향했다. 홀딱 젖은 대용이 입꼬리를 올리며 우현을 쫓아갔다. 도망가던 우현은 결국 대용에게 호스를 빼앗겼다.

"야야. 항복. 센터장님께서 세차하라고 하셨어."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이제야."

똑같은 방법으로 우현에게 물을 뿌린 대용은 구급차에도 물을 뿌리며 세차를 했다. 소방용 호스를 들고 물을 뿌리고 있으니 며칠 전에 있었던 합동훈련이 떠올랐다.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진행되었던 괴산소방서와의 합동훈련은 소화전을 틀어 홍수를 재현했다. 철골과 철골 사이에 로프를 걸고 사람을 구하는 훈련에서 대용과 우현은 한 팀이었다. 신참이던 대용은 의욕이 앞서서 급하게 로프에 매달리려다 혼이 났다. 로프가 단단히 고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아직 서툰 건 우현도 마찬가지였다. 급하게 로프를 매려다 몇 번을 놓치는 모습을 보며 선배들은 로프 하나 제대로 못 매냐며 혼을 냈다. 어깨가 쳐진 대용과 우현에게 다가온 것은 센터장이었다. 센터장은 대용과 우현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선배 소방관들을 쳐다보았다.

"너희도 처음 할 때 그렇게 잘 했었나 보지?"

선배 소방관들은 센터장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센터장은 기초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대용과 우현의 어깨를 강하게 두드렸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 앞으로 배우면서 성장하면 돼.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해야 한다는 거야."

센터장은 가장 구조작업을 많이 해본 소방관에게 시범을 보이라고 했다. 대용과 우현은 선배 소방관의 구조훈련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야말로 교본과도 같은 동작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했다. 훈련이 끝나고 우현이 먼저 대용에게 연습을 하자고 말했다. 대용도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현에게 한 번 해보자고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우현과 대용은 업무가 끝나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상으로 상황을 만들어 연습하기 시작했다.

"아니 거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형. 이번에는 정확했어요."

대용과 우현은 합동훈련 이후로 계속해서 다양한 상황을 그리며 연습을 시작했다. 언젠가는 제대로 된 구조대원이 되는 모습을 상상하며 기초와 체력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세차를 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되었다.

"올해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아요. 알다시피 인명구조도 우리들의 몫이지만 그 전에 예방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앞에 놓인 전단지는 호우 시 대피요령이에요. 식당이나 숙박업소, 그리고 휴양지 주변에 전단지를 붙이도록 하죠. 그럼 비상출동 팀만 남기고 이인 일조로 출발하세요."

점심을 먹은 후 시작된 회의에서 센터장이 테이블에 올려놓은 전단지를 챙겼다. 우현은 전단지를 한 움큼 집은 대용의 손을 낚아챘다.

"우리가 화양동하고 쌍곡 계곡 돌자."

센터가 보유한 순찰차는 이미 선배들이 타고 나갔기에 대용은 자신의 차를 이용해야 했다. 화양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청천강 다리 근처의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먼저 방문했다.

"비가 많이 내리거나 대피방송이 나오면 꼭 대피소로 피난해 주세요."

전단지를 나눠주며 대피소 위치까지 설명한 대용과 우현은 주변 전봇대와 다리 주변에도 전단지를 붙였다. 텐트를 치고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비가 내리면 대피할 것을 안내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쏘가리매운탕 가게의 정씨 아저씨가 식사를 권했지만 대용과 우현은 아직 방문해야 하는 곳이 많다며 바로 차에 올랐다. 항상 가족처럼 지내왔기에 정씨 아저씨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청천강 주변의 텐트를 방문해서 전단지를 나눠준 후 화양구곡에 들어섰다. 피서 온 차들로 편도 일 차로의 길은 밀리기 시작했다. 겨우 들어선 민박집은 이미 만원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더위로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땀을 닦으며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 대용과 우현에게 민박집 사장님이 냉수를 한 잔 따라주었다. 그 냉수 한 잔은 대용과 우현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이제 난관이네."

남은 곳은 쌍곡 계곡이었다. 다른 계곡과는 달리 사람들이 구석구석 숨을 곳이 많은 계곡을 떠올리니 막막한 마음이었다. 입구에 도착해서 휴게소를 먼저 방문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휴게소 사장이 우현과 대용을 반겼다.

"사장님. 올해도 고생 좀 하셔야겠어요. 비가 많이 올 것 같다고 하니까 여차하면 사장님이 주도하셔서 바로 대피 방송 좀 부탁드릴게요."

"당연히 그래야지. 여기 놀러온 사람들도 전부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대용과 우현은 곧장 계곡 아래로 내려갔다.

"방송 들리면 바로 피난하세요."

전단지를 나눠주며 계곡을 거슬러 올라간 대용과 우현은 등산객과도 마주쳤다. 폭포까지 올라간 대용과 우현은 일을 마치고 탐방지원센터의 턱에 앉아 숨을 돌렸다. 겨우 끝났다는 안도감에 숨을 고른 대용은 휴대폰의 시간을 확인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가 있었다.

119안전센터에 도착하니 해가 넘어가고 있었다. 센터 안에는 아직 정은이 남아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대용과 우현에게 아이스커피를 내밀었다.

"센터장님이 사는 거야. 오늘 다들 고생했다고."

정은의 말을 들은 대용과 우현은 뚜껑을 열고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다. 대용의 모습을 보고 웃던 정은이 대용에게 다가왔다.

"이 누나가 소개팅 해줄까?"

대용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를 우현이 들었다.

"저는요?"

한참을 생각하던 정은이 우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안 되겠다. 너 취향인 동생이 없다."

우현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정은의 말에 우현이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누나. 그러지 말고 저보다 우현이형 소개시켜 줘요."

"장난이야. 둘 다 소개팅 시켜줄게."

우현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은은 손을 흔들어준 뒤 가방을 챙겨 센터를 나갔다.

"우리도 정리하고 들어가자."

기대감 때문인지 우현의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센터를 나오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어두운 시야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사람은 마을 이장이었다. 대용은 비를 맞으며 걷는 이장의 옆에 차를 세웠다. 논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나 보다.

이장을 태운 대용의 차는 금방 이장의 집 앞에 도착했다. 이장은 잠깐 기다리라며 집안으로 들어가더니 김치 통 하나를 들고 나왔다. 괜찮다고 했지만 아버지가져다 드리라는 말에 거절하지 못했다. 저녁은 아버지와 함께 김치로 배불리 먹

을 수 있었다.

아침부터 천둥소리가 울려대기 시작하는 걸 보니 심상치 않은 한주가 될 것 같았다. 밤새 비가 내려서인지 집을 나서는 대용의 신발에 질퍽한 진흙이 두툼하게 묻었다. 센터에 들어서자 센터장이 일찍 출근해 있었다. 센터를 들어오는 직원들이 센터장을 보고는 긴장하기 시작했다. 직원이 모두 출근하자 센터장은 긴급 전달사항을 말했고 담당 구역을 정해주었다. 센터장의 말이 끝나자 대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대용과 우현도 담당 구역을 순찰하기 위해 차에 올라탔다.

"새벽에 뉴스 봤어? 청주 난리도 아니던데. 쇼핑몰하고 상가들 전부 물에 잠겼다고 뉴스에 나오더라. 여기도 안전하지는 않으니까 사람들 대피시키라는 거지."

대용은 차안에서 뉴스를 살펴보았다. 예전에 가본 적 있는 청주터미널 부근은 이미 물에 잠겨서 도로가 어디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하복대 주변의 백화점과 아울렛이 물에 잠긴 모습, 다리와 하천의 경계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범람한 사진이 실려 있었다. 다른 기사에는 고무보트를 이용한 인명구조를 하는 사진이 보였다.

대용과 우현은 쌍곡계곡으로 배정되었다. 휴게소에 도착한 대용과 우현은 보이는 사람을 붙잡고 청주 상황을 알리며 강수량이 위험한 상황이니 대피해 달라고 알렸다. 휴게소 사장이 방송을 했지만 나오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대용과 우현은 직접 계곡으로 내려가 철수해 달라고 외쳤다. 몇몇 사람들이 비가 오면 얼마나 오겠냐며 중얼거렸지만 대부분은 대용의 지시대로 텐트를 접었다. 그러나 끝까지 텐트 안에서 버티며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젊은 부부였다. 남자가 밖으로 나왔다.

"뭐가 위험해서 대피합니까? 그래놓고 비 얼마 안 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폭우 소식이 있어서 미리 대피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가 위험한데? 우리 철수하고 나서 비 그치면 당신들이 우리 휴가 책임 질 거야?"

"지금 청주 물에 잠긴 거 모르세요? 바로 옆 동네예요."

"그 동네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여기도 많이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

"전부 안전을 위해서예요. 이미 대피령 떨어졌어요."

결국 대용과 말다툼을 하던 남자는 가족들을 텐트 밖으로 불러냈다. 남자는 텐트를 모두 접은 후 계속해서 짜증난 표정으로 대용을 쳐다보았다. 대용과 우현이 다시 주차장을 향하는 모습을 본 남자는 가족들에게 손짓을 했다.

"우리 차라리 더 안쪽으로 가자. 위로 올라가면 비가 더 와도 괜찮겠지."

남자는 가족들을 이끌고 계곡물을 따라 위로 올라갔다. 그 모습을 보지 못한 대용은 계곡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센터로 복귀했다. 출동했다 돌아온 직원들은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조를 운영하기로 했다.

첫날은 숙박시설과 가게의 협조로 수월하게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센터로 오는 연락이 줄어들었다. 비는 그칠 줄 몰랐고 오전에 순찰을 나가지 않았으면 계곡에 고립된 사람이 나올 뻔 했다. 대원들은 다행이라 생각하며 힘들어도 이럴 때면 일하는 보람이 있다며 기운을 북돋았다. 센터장은 비상사태에 더 대비하기 위해 순찰을 나가는 모든 차량에 구조용 장비를 싣고 갈 것을 지시했다. 비상사태지만 현장의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대용과 우현도 곧바로 실전에 투입되기로 했다. 대용과 우현은 살짝 긴장하였지만 센터장은 그동안 둘이서 남들 모르게 열심히 훈련해 왔다는 것을 안다며 자신감을 가지라고 했다. 급박한 상황 속에 하루는 금방 저물었다.

"대용아. 오늘은 일 안 나가면 안 되겠니?"

아침부터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모습에 대용의 단추를 채우던 손이 멈췄다.

"갑자기 왜 그래요?"

"꿈자리가 흉흉해서 말이다. 오랜만에 네 엄마가 나왔는데."

"그거 좋은 꿈 아니에요?"

"네가 네 엄마 손잡고 멀리 가는 모습을 봤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렇다고 저 혼자만 빠질 수는 없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용을 잡지 못한 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 이장이 집을 방문했다. 이장은 대용을 쳐다보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더니 대용에게로 시선을 향했다. 천천히 대용에게 걸어온 이장은 자신의 목에 걸린 부적을 대용의 손에 쥐어주었다.

"액막이 부적이니 오늘은 꼭 지니고 있어."

대용은 괜찮다며 거절하려다 자신을 걱정스런 표정으로 보고 있는 아버지를 느꼈다.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일부러 눈에 띄게 부적을 손목에 감았다.

센터에 도착하니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다.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현장으로 출동한 대용과 우현은 지원 무전을 받았다. 비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구조요청이 온 장소에 도착했지만 가파른 산을 내려가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 장비를 매고 내려간 대용의 눈에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다. 대용을 발견한 등산객들이 살려 달라며 손을 흔들기 시작했다. 대용이 던진 구조용 로프를 잡은 등산객이 나무에 고리를 걸었다. 큰 나무에 고정된 로프를 보고 대용은 안전 고리를 채웠다. 천천히 로프에 매달려 건너간 대용은 가장 큰 남자의 몸에 구명조끼를 입혀준 후 고리를 고정해 주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대피했었는데 말을 안 듣다가 그만……."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 하실 때가 아니에요. 조심히 건너가시는 게 우선입니다."

남자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줄을 잡고 천천히 건너가기 시작했다. 남자가 모두 건너간 후 대용은 나머지 사람들도 천천히 로프에 고정시켜 건너게

했다. 마지막으로 건넌 사람이 산 위에 일행이 더 있다고 알려주었다. 대용은 마지막 사람을 보낸 후 손짓으로 산위를 가리켰다. 우현이 손가락으로 오케이 표시를 했다. 대용이 산중턱에 다다르자 여성이 나무에 기댄 채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남자가 허리를 숙인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다치셨어요?"

대용의 물음에 여자는 걸을 수가 없다며 발목을 가리켰다. 아무래도 발을 삐끗한 것 같았다. 대용은 등을 내밀었고 여자가 등에 업히자 빠르게 산을 내려갔다. 남자도 그 뒤를 따랐다. 대용은 남자 먼저 구명조끼를 입히고 로프를 건너도록 한 후 마지막으로 다친 여성을 직접 안고 건너 일행에게 맡겼다. 다리를 다친 여성을 이번에는 우현이 업었다. 사람들과 산을 다 올라왔을 때 구급차가 도착했다. 사람들을 태워 출발하는 구급차를 보며 대용과 우현은 사람을 구했다는 기쁨에 손바닥을 부딪쳤다. 그리곤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사람을 업고 강을 건너고 산을 오른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비상사태는 둘에게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았다. 차에서 긴급 무전이 계속 울리고 있었다.

쌍곡 입구에 들어서자 휴게소 사장이 사람들에게 대피 방송을 하고 있었다. 휴게소 앞 계곡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사람들이 짐을 챙겨 나오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를 타고 계곡을 빠져나갔다. 계곡의 물은 제법 불어 있었고 위에서는 부셔진 나무 잔해들도 떠내려 오고 있었다. 구조요청을 한 장소는 더 올라가야 했기에 초조한 마음이 들었다. 혹시 이 시간에도 구조를 요청한 사람들이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있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한 대용은 운전대를 힘주어 잡았다. 비포장도로의 흔들림과 쏟아지는 비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차로 갈 수 있는 길도 사라지자 대용과 우현은 차에서 장비를 꺼내 매고는 걸어서 계곡 안쪽으로 들어갔다. 젖은 바닥이 질퍽해서 걷는 것도 힘이 들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올 생각을 했대."

숨을 몰아쉬며 우현이 말했다.

"그러게요. 그렇게 방송도 했고 전에 있던 사람들도 다 아래로 보냈는데 말이에요."

"이게 다 안전 불감증 때문이지. 나는 멀쩡해. 별 일 있겠어? 그런 생각들이 가져오는 방심 같은 거 말이야."

푸념과 걱정을 주고받는 사이 쌍곡폭포에 가까워졌다. 폭포소리가 크게 들렸다. 평소 흐르던 폭포와는 완전히 달랐다. 사방으로 튀는 물줄기와 폭포로 떨어지는 엄청난 양의 물 폭탄은 무엇이든 집어삼킬 것처럼 보였다. 대용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귀를 기울이자 폭포소리에 묻혀있던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아이의 목소리였다.

"살려주세요!"

대용은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현도 목소리를 듣고 대용을 따라갔다. 겨우 도착한 장소는 계곡의 폭이 제법 넓었는데 이미 가족들이 친 텐트는 물에 휩쓸렸는지 보이지 않았다. 건너편에는 젊은 부부와 두 남자아이가 있었다. 사람 많은 곳을 피해 이런 깊은 곳까지 온 것 같았다. 뒤쪽으로는 절벽이어서 더는 물러설 곳도 보이지 않았다.

"어? 저 사람들 저번에 피신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던 사람들이잖아."

대피하라고 전달했을 때 비가 그치면 책임질 거냐며 대용과 말다툼을 한 남자였다.

"맞네."

"아니 대피하라니까 대피는 안하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물이 더 차오르기 전에 구출해야 해."

대용의 다급한 말에 우현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남자는 대용을 알아봤는지 조금 전부터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로프 던져줄 테니까 나무에 걸어주세요!"

"네."

대용의 외침에 남자가 로프를 받을 준비를 했다. 대용이 보기에도 로프를 걸만한 튼튼한 나무가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그나마 튼튼해 보이는 나무를 가리켰다. 대용은 남자를 향해 로프를 던졌다. 나무가 무게를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불어나는 계곡물은 다른 방법을 찾을 시간을 주지 않았다. 우현이 로프를 근처 큰 바위에 걸었다. 천천히 건너편으로 넘어간 대용은 남자의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계속 시선을 피하고 있는 남자와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이 보였다. 한참을 고개를 돌리고 있던 남자의 표정이 절박하게 변하더니 대용에게 말했다.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구해주세요. 제가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걱정 마세요. 모두 무사히 건너갈 겁니다."

대용은 남자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주었다.

"아이 먼저 부탁드려요."

"먼저 건너가세요.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자는 먼저 로프를 잡고 대용이 알려준 자세로 계곡을 넘었다. 남자의 등에 계곡물이 닿았다. 제법 물살이 세서 남자의 몸이 흔들렸다. 남자가 건널 동안 대용은 로프를 잡아 팽팽하게 당겨주었다. 가까스로 우현이 팔을 뻗어 남자의 어깨를 잡는데 성공했다. 남자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아이의 엄마도 로프를 타고 무사히 넘어간 후 대용은 아이들에게도 구명조끼를 입혔다. 아이들을 자신의 몸에 고정시킨 채 매달리자 로프가 쳐졌다. 아이들과 넘어가는 대용의 몸이 반쯤 물에 잠기고 강하게 흐르는 계곡물에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대용은 죽을힘을

다해 팔에 힘을 주고 로프를 당기며 나아갔다. 우현이 손을 뻗어 먼저 작은 아이를 건져 올렸다. 대용의 귀에 투둑 소리가 들렸다. 큰 아이도 무사히 우현의 손을 잡자 안도의 마음이 들었다.

아이들이 모두 올라간 후 대용도 손을 뻗었다. 우현의 손을 잡기 직전 건너편 나무가 부러지며 물에 잠겼다. 대용의 몸도 나무와 줄을 따라 물속으로 미끄러졌다. 우현은 로프를 꽉 잡아당겼다. 잠시 후 대용의 잠겼던 몸이 물 위로 올라왔다. 우현은 거의 눕다시피 하며 로프를 잡아 당겼다.

"꽉 잡아! 놓치면 안 돼!"

우현의 외침이 들렸다. 몸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부딪쳤다. 남자가 다가와 우현의 뒤에서 로프를 함께 잡았다. 그러나 대용의 몸은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다.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물이 숨을 막았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센터에 붙어있던 문구가 떠올랐다. 소방관은 두 명을 구해야 한다는 문구였다. 구조대상자와 자신을 구해야 한다고 센터장이 늘 하는 말이었다. 대용의 머릿속에 아침부터 걱정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스치고 지나갔다. 다리가 뾰족한 바위에 심하게 부딪친 것 같았다. 고통에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다. 대용은 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잡기 위해 손을 더듬었다. 우현의 목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우현의 격려하는 말에 다시 로프를 꽉 쥐었다. 조금씩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다. 손을 뻗는 대용의 몸을 향해 부러진 나무가 부딪쳐 왔다. 로프를 놓친 대용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과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생각들이 오가는 동안 손목에 무언가가 걸린 느낌이었다. 그 사이 우현은 손을 뻗어 대용의 손목을 잡는데 성공했다. 남자가 우현의 허리를 잡은 채 끌어당겼다. 바닥에 누운 채 손을 들어 손목을 확인하니 이장이 준 부적이 걸려 있었다. 남자와 우현도 그대로 드러누웠다. 거칠게 숨을 고르며 대용은 눈을 감았다.

대용은 다리에 깁스를 한 채 병원 침대에 누워있었다. 거칠게 병실 문을 열어젖히며 들어온 사람은 아버지였다. 무사한 대용을 확인한 아버지는 말없이 대용을 안아주었다.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대용의 옆에 앉았다. 아버지가 사과를 깎아줄 때 병실 문이 열렸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대용이 구한 가족의 방문이었다. 남자는 고개 숙여 사과했다.

"저도 크면 아저씨처럼 멋진 소방관이 될 거예요."

아이들의 말에 대용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그래. 그런데 아저씨가 아니라 형이야."

아이들은 작은 손을 내밀었다. 조그만 초콜릿이 들려 있었다. 초콜릿을 받은 대용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남자는 다시 한 번 대용에게 고개를 숙인 후 가족들과 함께 병실을 나갔다. 아버지가 서툴게 깎은 사과를 모두 비우니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우현의 목소리였다.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때 제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로프를 딱 잡아챘거든요. 여기부터가 하이라이트인데…….”

우현이 문을 열었다. 그 뒤로 센터장과 정은이 함께 있었다. 센터장은 대용의 아버지와 인사한 후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이제 어엿한 소방관이 됐네. 둘 다.”

자신의 우상에게 칭찬받았다는 기쁨으로 대용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대용이 빨리 회복하고 복귀해야 소개팅 날짜 잡지.”

“저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현의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대용의 아버지는 조용히 우현의 손을 잡았다. 그것이 감사의 표시라는 것을 대용은 알고 있었다.

접수번호	62	제 목	먼 길

출근하는 그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다. 남편은 현직 소방관이다. 소방관을 하면서 골육종이라는 희귀 암을 진단 받았다. 연기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던 삶에서 악성 종양의 발생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것이었을지 모른다. 소방관으로서의 사명감이 대단했던 그는 소중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며 살았다. 화재 현장에서도 언제나 적극적이었고, 몸을 사리지 않고 일했다.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심부에 뛰어드는 일도 마다하지 않던 성실한 사람이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자신이 하는 것이 옳다는 소신 있는 남자이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점차 대화는 단절되고 있다.

우리는 삼년 동안 열렬히 연애하다 결혼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소방관이란 그이의 직업을 반기지 않았다.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을 마땅치 않아 하셨다.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면 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하시며, 소방관의 아내들이 과부가 많다는 걸 은근슬쩍 말씀하시곤 했다. 부부의 정을 알고 평생 해로하는 것이 여자로 행복한 삶이라며 부모로 큰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닌데, 이 결혼만을 흔쾌히 승낙하기 힘들다고 말끝을 흐리곤 하셨다. 어렵게 승낙 받은 결혼이었다. 그이의 됨됨이를 보고, 또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를 보고 힘들게 결단을 내려주셨다. 결혼식을 하는 날, 친정어머니는 참 많이 우셨다.

결혼을 약속하고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가는 날이었다. 약속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그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근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큰 불은 아니라는 말로 나를 안심 시켰던 사람이었다. 화재로 팔뚝에 2도 화상을 입은 동료가 결근한 날이었고, 긴급 출동에 빠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했다. 혼자 세벌의 웨딩드레스는 입어보는 동안 그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유행했던 짧은 미니드레스까지 입어보며 기분을 전환해 보려 노력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당장 그이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에 무작정 택시를 잡아타고 소방서로 향했다. 멀지 않은 거리는 이동하는 데도 대책 없이 심장이 콩닥거렸다.

멀리, 화재를 진압하고 돌아오는 소방대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이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방대장님께 황급히 달려가 남편의 소식을 물었더니 함께 작업하던 진압대원이 화상을 입었는데, 응급실에 동행했다고 말씀하셨다. 곱게 신부화장을 한 얼굴을 보고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다. 오전에 듣긴 들었는데……. 미안해서 어쩌나! 신부님을 이렇게 달려오게 하다니……. 우선 화상을 입은 사람이 그이가 아니라 동료인 것에 마음이 놓였다. 한

편, 타인의 불행에 안도하는 마음이 미안했지만 당장은 그이가 안전한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야속한 그이는 늦도록 연락이 닿지 않았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작동되지 않을 만큼 녹아버린 탓이었다. 화상의 정도가 심한 동료를 곁에서 지키고 있을 그이를 생각하자 마음이 아팠다. 소방대원의 아내로 산다는 것이 앞으로 녹록치 않을 거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앞으로 살면서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반복될 것이 뻔했다. 연락이 되지 않을 때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생사를 알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를 것이다.

한번 불에 녹아버린 피부는 재생이 쉽지 않다. 원래 상태로는 돌릴 수도 없다. 화재 현장에서 극심한 화상을 입은 경우는 극도의 우울을 호소하기도 한다. 화상 환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처음 거울로 보여주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했다. 화상으로 인해 일그러진 얼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기에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다.

또, 어린 화상 환자의 경우 피부 조직이 늘어날 때마다 이식 수술인 필요한데 그 과정을 견디는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그이가 말했었다. 그이는 앞으로도 수시로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다. 화재라는 것은 예고되는 것이 아니고, 불이 크게 번지는 건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방관의 진압만이 큰 불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식구에게 전화 걸 여유조차 없이 긴박하게 움직여야 하는 순간들이 늘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예쁘게 화장한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고 신부화장을 지워야 하는 게 아까웠다. 예상치 못한 날이 반복될 거라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렸다. 하지만 그이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화재 현장에서 유독가스를 마셔가며 고생했을 얼굴, 검게 그을린 그의 얼굴이 그려지자 나도 모르게 포옥 젖은 한숨이 새어 나왔다. 누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고,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다면 남편이 그 몫을 담당하는 것이 옳았다. 서글픈 건, 이런 마음을 함께 할 친구도 지인도 가족도 존재하지 않았다. 고민을 상담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한결 같았다. 결혼, 정말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소방관의 아내로 산다는 건 찬성할 수는 없는 일이긴 해.

다니든지 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해, 최대한 쌀쌀맞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시한부 삶을 판정 받고도 어김없이 화재 현장으로 출동한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아니 더는 이해해주고 싶지도 않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다. 자신의 컨디션만 챙기며 살아도 목숨이 유지될까 말까하는 판국에 출근이 가당키나 한가. 더 기가 막히는 건 소방관을 향한 형편없는 처우였다. 골육종이라는 암이 발생한 것이 소방관이라는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우리는 절망하게 만들었다. 오직 생명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에 무시무시한 불길로 뛰어들었지만,

돌아오는 건 불합리한 법원의 판결문이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관들을 향해 그들은 하나같이 냉정했다.

판결문이 전달된 날, 남편은 내 눈치를 보고 나는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음 편하게 병원이라도 다니고 싶었다. 직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으면, 남편도 자신이 묵묵히 걸어온 소방관의 삶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그 뿌듯한 마음으로 주어진 시간이나마 적극적으로 치료하길 원했다. 하지만 삼천 건이 넘는 화재 진압 증명에도 직무와의 관련이 미약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또박또박 인쇄된 활자들을 바라보니 더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너무 서러워서 눈물도 나지 않았다. 명치끝을 무언가 뾰족한 것으로 쿡쿡 찌르듯이 아팠다. 남편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일이란 거 모르지 않았잖아. 그래도 용기 잃지 않고 끝까지 해 봐야지! 먼 길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테야…….

연애시절, 대학 동기들과 함께 캠핑장을 찾았다. 고생하는 그이를 몸보신 시켜주겠다며 단짝 친구는 살아있는 통통한 미꾸라지를 통에 잔뜩 담아왔다. 깨끗하게 해감 시키기 위해 여러 날 공을 들였노라고, 말로 생색을 내는 것도 잊지 않았다. 빨갛게 달궈진 뜨거운 석쇠 위에서 미꾸라지들은 팔딱팔딱 온 몸을 비틀며 죽어갔고, 친구는 먹음직스럽게 미꾸라지가 익을 때까지 계속 바지런히 뒤집었다. 하지만 그이는 끝내 젓가락으로 노릇노릇 구워진 미꾸라지를 한 조각도 집지 못했다. 말하지 않아도 헤아려지는 구석이 있어서 애써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우리는 결혼을 하고 빨리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서두른 건 내 쪽이었다. 새 생명이 생기면, 위험한 소방 일을 그만두라고 권하고 싶었고 어린 아이가 있으니 남편도 자신의 목숨을 좀 더 아끼며 살 거란 생각이 들었다. 아이가 생긴 건 크나 큰 위로와 기쁨이었다. 아들이 보고 싶은 남편은 수시로 영상통화를 걸어와 아이와 인사하고 살갑게 대화했다.

아들이 생기자 친정 부모님의 걱정은 더욱 늘어지셨다. 눈치를 봐서 소방 일을 그만두라고 넌지시 권해보라고 하셨다. 신랑이 그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나도 소방 일을 그만 두길 바랐다. 출동을 나가면 남편이 돌아와 문자나 전화를 하기까지 늘 초조했다. 남편의 근무지와 전혀 상관없는 현장에서 불이 나도 덜컥 겁이 났고, 사망자 명단을 초조하게 훑어 내리며 늘 가슴을 쓸어야 했다.

내가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낡은 소방장비를 교체해 달라고 진정성 어린 청원 글을 남기는 것, 고단해서 잠든 그이의 팔 다리를 꾹꾹 주물러 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아들이 좀 더 커서 아빠의 직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면 어떨

까. 못난 마음이지만, 적당히 일하고, 자신을 챙기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미련스럽게 일만 하던 남편인지라 그의 병은 더욱 가슴 아팠다. 의연한 척 행동하고 있지만, 남편 또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곤히 잠든 나를 깨우지 않고 출근한 남편이 편지를 남겼다. 편지에는 빼곡하게 그이의 오롯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힘주어 꾹꾹 눌러 쓴 정성어린 필체로 판결 결과에 대해 절망하지 말라고 나를 위로했고, 자신은 세상을 등진 후에도 멋진 소방관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다고 적었다.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이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면서 자신의 마지막 소원은 딱 오백 명만 더 구조하고 죽으면 원이 없겠다는 말도 남겼다. 눈물이 쏟아졌다. 부디 소박한 남편의 꿈이 이뤄지길 기도했다. 참았던 눈물샘은 한번 터져 버리자, 멈출 줄을 몰랐다. 잘 버텨내고 있다고 믿었는데 마음이 많이 약해진 탓이다.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둔다고 한들, 남편의 병이 호전될 거란 희망도 없다. 그이의 뜻이 정 그렇다면, 화재 현장에서 제 몫을 역할을 다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련스러운 마음이지만, 당장이라고 치료를 시작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먹으며 기적처럼 병을 고쳤다는 민간요법도 좀 써보고 싶은 것이 못내 버려지지 않는 솔직한 심정이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과 작별해야 하는 남편, 하나 둘 삶에 정 붙였던 것들을 놓아버리고, 포기하며 그이는 어떤 마음일까……. 철부지 아내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가혹한 슬픔이었다.

고요히 서러움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그이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 마지막 나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남편과 함께 화재를 진압했던 소방대장이 있었다. 근면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대원들을 끔찍하게 아끼던 분이셨다. 하지만, 끝내 사고 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대원들은 철수 명령을 내리고 실종 된 소방대장을 애태우며 기다렸지만, 결국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구조대원을 먼저 대피시키던 중에 홀로 불길에 고립되신 것이다. 참담한 아픔이었다. 탈출구를 고작 80m 앞에 두고 쓰러진 것이다.

그 아픔을 덤덤히 이야기하며 남편은 말했다. 자기야! 나도 소방대장님처럼 살기 위해 불을 피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 불길에 뛰어드는 사람이 될 거야!

매일 불편하게 구는 내게 실망하면서도 편지까지 써 준 남편이 고마웠다. 그이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날, 나는 그저 등을 툭툭 두드려 주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현실감 없는 얘기들이었고, 내가 절망해 버리면 그이도 함께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서 겁이 났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마음을 강하게 먹자고 스스로 다짐했다. 남편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도 내 마음을 옥죄어 왔다. 그이의 마지막 기억에 좋은 추억과 기억을 남기고 싶었다.

아직 아들은 아빠의 현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 아비의 죽음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린 아홉 살 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그이는 나를 만나기 전에 늘 유언장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길 말 정도는 적어두고 싶었다고 말했다. 젊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죽음이라는 말이 너무도 낯설었다. 하지만, 그이는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유언장을 찢어 버렸다. 꼭 매일매일 살아 돌아와 가족을 만나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꿈이라고 말했다. 오래오래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욕심 없이 웃던 남자. 그이에게 찾아든 시련은 너무도 가혹하다.

위태로운 우리의 일상은 아슬아슬 이어졌다. 그이는 몰래 진통제를 먹었고, 숨어서 신음했다. 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을 검색했다. 고단백 면역 식단을 꾸리고, 암 환자들에게 좋다는 상황버섯도 어렵게 구했다. 마지막까지 그이를 포기하지 않고 관리해 주고 싶었다. 아프다는 내색도 하지 못하고,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그를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아프면서 아내의 눈치까지 보게 만들고 싶지 않다. 병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차 보인다.

결혼 전에 굳게 약속한 것이 있다. 화재 현장에 나가기 전에 아주 짧게라도 문자를 남기는 것이다.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반드시 통화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문자라도 꼭 남겨 달라고 부탁했었다. 공연히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냐는 그이의 물음에 야무지게 대답했었다. 당신이 어디 현장에 나갔는지는 내가 알고 있어야지! 아내가 당연히 알아야 할 일이야! 당차게 말은 뱉었지만, 솔직히 남편에게 전화나 문자가 올 때마다 가슴이 벌렁거렸다. 하지만, 그이가 소방 일을 하는 동안에는 이겨내야 하는 시간들이었다.

아들이 두 돌쯤 되었을 때의 일이다. 현장에 나간 남편과 오래토록 연락이 닿지 않았다. 비상이 걸린 소방서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소방대장만 구조현황에 대해 뉴스로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계속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소방관들을 숨 쉴 틈도 없어 보였다.

뉴스 화면을 통해 긴박한 상황이 충분히 전달되었다. 그런 와중에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사망자 명단이 자꾸만 추가 되었다. 구조를 위해 뛰어든 소방관들도 사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며 아나운서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사고 소식을 차분한 말투로 전해주고 있었다.

빠르게 바뀌는 화면에 눈을 맞추며 혹시 남편의 이름이 사망자 명단에 올랐을까봐 마음을 졸였다. 부디 그이가 두 돌 된 아들을 기억하고 위험한 현장으로 들어가지 않길 바랐다. 사망자 명단에 이름이 추가될 때마다 불안한 마음에 손톱을 잘근잘근 깨물었다. 다행히 남편은 무사히 연락이 닿았다.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왈칵 울음이 터져 나왔다.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다.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소방관의 아내에게는 축복

의 일상이다. 살아있는 사람의 죽음을 매일 생각한다는 건 생각보다 힘에 부쳤다.

큰 화재 진압이 있고 나서, SNS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떠돌았다. 밤을 새워 진화 작업을 하고, 불이 꺼진 시커먼 건물 옆에서 쓰러지듯 누워 쪽잠을 자는 소방관들의 사진이었다. 국민들은 대부분 소방관들이 지방직이라며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했고, 청원으로 연대하며 목소리를 내 주었지만 나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잠깐의 관심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곧 시들어 버릴 호기심 같은 거였다.

소방관들이 허기에 지쳐 컵라면을 먹을 때도 그랬다. 화재 진압 후, 배고픔에 컵라면이 들고 있는 사진이 SNS에 돌아다니자 외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흥분했지만, 사람들은 쉽게 소방관의 컵라면을 잊었다. 사연이 있는 누군가가 화마에 죽었을 때는, 함께 아파했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세상에는 늘 많이 일들이 일어났고, 더 극적인 일이 생기면 사람들의 관심은 그쪽으로 쉬이 기울어졌다. 소방관의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순전히 가족의 몫이다.

소방대장의 죽음은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영정 사진을 든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꼬마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아직 아버지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는 아버지의 모습이 만족스러운 듯 보였다. 너무 어린 나이의 상주는 보는 것만으로도 훌쩍훌쩍 눈물을 훔치게 만들었다. 늦둥이 아들을 보았다고 아들바보를 자청하던 사람이었다.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였을 때도 저 녀석의 얼굴은 기억해내지 않았을까. 소방대장은 평소 자신의 죽거든 절대 화장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며 아내는 울었다. 황망하게 남편을 잃고, 화장하고 싶지 않아도 뼛가루 밖에 남지 않았다며 애통해했다. 이것이 소방관 가족이 처한 현실이었다. 동료 소방관들은 운구차가 시야에서 영영 사라질 때까지 거수경례로 고인의 마지막을 경건하게 배웅했다.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남편도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헤어짐의 시간이 올 줄은 몰랐을 터다. 남편에게 문자가 왔다. 화재가 난 현장에 긴급하게 투입되었다는 전갈이었다. 남편이 일을 하는 한 외면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다. 당신의 뜻대로 근면하게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필요한 순간이다. 하지만, 몸의 상태도 좋지 않은 판국에 또 유해 연기가 가득한 곳으로 뛰어들 그이를 생각하니 마음에 답답증이 인다.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수는 없는 걸까. 지금 상황에 오직 자신의 안위에만 집중한다고 해도 그이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 잔인한 기다림의 시간은 시작되었다. 늘 현장에 투입되었다는 문자나 전화를 받고 나면 시작되는 초조한 시간이었다.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고 24시간

방송하는 뉴스를 먼저 틀어 둔다. 전화벨의 소리를 최대로 키우고 애써 침착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입으로 손톱을 잘근잘근 물어뜯고 있다. 고쳐지지 않는 불안증이다. 복이 달아난다는 소리를 수없이 들으면서도 제멋대로 흔들리는 양쪽 다리도 어쩔 수가 없다.

친정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다. 애써 태연한 척 전화를 받았다. 요즘 들어 꿈자리가 영 좋지 않다며 자꾸 이상한 꿈을 꾼다고 하셨다. 아마도 나와 관련한 꿈을 꾸신 모양이다. 가끔 나는 어머니와 하나의 끈으로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감추려 해도 잘 감춰지지가 않고 모른 척 하려해도 별다른 수 없이 관심이 간다. 그이의 상태에 대해 도저히 말을 뺄 수가 없다. 연로한 부모님은 크게 충격 받으실 것이고, 나 또한 그것까지 감당할 자신이 없다. 불길한 어머니의 꿈 얘기가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끝까지 묻지 않았다. 내 마음만 더 초조하고 불안해질 걸 뻔히 알았기 때문이다. 부디 이상한 꿈의 주인공이 그이가 아니길 바랐다.

남편이 투입된 물류센터 화재가 쉽게 진압되지 않는다고 뉴스 속보가 떴다. 나는 급히 외출할 일이 있다고 둘러대고, 어머니와의 통화를 서둘러 종료했다.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건물 붕괴의 우려까지 있다며 자막이 뜬다. 적재된 택배 물건들이 연이어 쏟아지면서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단다. 잔불이 꺼지는 않는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소방당국은 건물 안으로 진입이 너무 위험해서 물을 뿌리는 원거리 진화 작업에 주력하는 중이라고 사연을 전했다. 대원 한명이 건물 안으로 빠르게 진입해 불길을 잡는데 앞장섰다며, 그런데 아직 나오지 않아 실종자 명단이 이름이 올랐다는 말을 전한다. '대원 한명'이 부디 남편은 아니길 바랐다. 남편은 항상 판단이 빠르고, 불을 조기 진압하는 일에 자신도 있는 사람이라 더 불안했다.

늦게까지 남편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대응 2단계'라는 자막만이 빠르게 지나갈 뿐이다. 그이는 구조대원들은 먼저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뒤늦게 동료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불이 더 번지지 않게 하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들어갔지만, 와르르 무너진 적재물에 불이 붙으면서 더 위험한 상황에 저한 것 같다고. 아직 희망은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성치 않은 몸으로 유해연기를 더는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악몽을 꾸었다던 친정엄마의 음성이 메아리쳐 들렸다.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남편은 영영 우리 곁을 떠났다. 남편이 진심을 전한 마지막 편지는 그의 유언장이 되었고, 친정어머니의 불길한 꿈은 빗나가지 않았다. 탈출구 앞에서 그이의 시신은 발견되었다. 화재 열에 의해 번호 키 자체가 녹아버려 현관문을 더는 열 수 없었던 것 같다며 죽음의 원인에 대해 나름 분석하는 중이었다. 살고자 뛰어왔지만 닫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던 모양이

다. 살아 돌아온다던 남편의 약속이 귓가에 맴돌았다.

남편은 말기 암 환자가 아닌, 명예로운 소방관으로 죽을 수 있었다. 오백 명을 더 구조하고 싶다던 남편은 그 알량한 꿈조차 이루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났다. 순직한 남편 덕분에 나는 힘들게 아들에게 아버지의 병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억울한 죽음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뜨거운 불 속에서 자신을 구해 준 소방관을 잊지 못해 새해가 되면 늘 인사를 오는 소방관을 진심으로 부러워했던 사람, 삼천 번의 화재 진압 속에서 그이에겐 그런 귀한 인연도 없다.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뛰어든 불길을, 그저 홀로 걸어간다. 화재 현장에서 연소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불길로 걸어갔을 남편, 그이는 단 한명의 동료도 잃지 않기 위해 인명 수색을 꼼꼼하게 했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아들 앞에서 절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속절없이 눈물이 났다. 아들도 다시는 아버지는 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눈물을 훔친다. 소방대장의 아내도 빈소를 찾아와 나를 위로해 주었다. 같은 처지의 그녀가 잡은 손에서 그제야 삶의 온기가 전해졌다. 우리,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아요……. 먼 길 떠난 그네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먼 길 잘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냅시다…….

현장에서 구조되어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용감한 소방관이었다고 남편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다. 아들에게 훌륭한 소방관으로 남은 그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행복할까? 다시 태어나더라도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말했던 그이의 순박한 미소가 그립다. 이제 다시는 남편의 얼굴을 만질 수도 없고 다정한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 하지만 나는 그이가 못 다 이룬 꿈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남겨진 소방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소방관의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하고, 현장에서 발병할 수 있는 병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당신이 남기고 떠난 소중한 생명인 아들도 건강하게 잘 키워야 한다.

친정어머니를 찾아와 남편이 자꾸 인사를 하더란다. 서둘러 가는 것이 이상해서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몇 번이고 붙잡았는데, 이제는 혼자 가겠다며 넙죽 큰 절을 하고는, 나를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꿈에서도 어디 먼 곳으로 길을 떠나는 사람 같아서 어떻게든 붙잡아 두려고 했는데 총총히 사라진 사람은 뵈지 않고 아득한 안개만 희뿌옇게 끼더라고, 영 마음이 편치 않았노라 꿈 얘기를 말씀하셨다. 친정어머니는 꿈을 꾼 스스로를 탓하시며 공연히 흉몽을 꾸어서는 꿈 값으로 생사람을 잡았다고 통곡하셨다. 하지만 어머니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그날의 불행을 미리 알려준 것임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장례식은 절차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남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진심으로 애도해 주었고 불행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냈다. 스프링클러 오작동이 빈번해서 경고음이 발생해도 그냥 일을 하는 수준이었다며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오갔다. 이런 진지한 논의들이 남편이 살아 있을 때, 거론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씁쓸한 마음은 감출 길이 없다. 죽은 남편은 1계급 특진을 했고, 녹조근정훈장을 추서 받았다. 단상에 올라 아빠를 대신해 훈장을 받은 아들의 모습이 눈물 때문에 뿌옇게 보였다.

각계각층의 유력 인사들이 근조화환을 보내 주었다. 복도에 진한 국화향이 그윽하게 풍겼다. 철없는 아들은 슬펐다가도 반가운 친척들을 보면 밝게 인사했고, 누군가가 울면 따라 울었다가도 아빠를 칭찬하는 소리들이 들리면 헤죽거렸다. 아들이 살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할 때, 나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늘 인생의 답을 알려주던 나침반 같은 남편이 더는 내 곁에 없다. 살면서 채워지지 않을 빈 가슴에 혹여 상처나 받지 않을지 벌써부터 자신 없고 걱정이 된다.

하지만, 이제 나도 먼 길을 걸을 준비가 되었다. 당신이 먼 길을 떠난 순간부터 이승에서 차마 해내지 못한 일들은 이제 내가 해야만 하는 일로 남았다. 결코, 그이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한순간 활활 불타오르고 쉽게 식어버리는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구해야 한다. 소방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꺼이 아프지만, 할 말을 해야 할 때가 온 셈이다. 함께 연대하며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애써야 한다.

남편은 순직 소방관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묘지 안장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인데 순직이 인정되어도 일반 묘지에 묻히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다. 일반 묘지의 경우는 별도의 묘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관리비가 미납된 순직소방관의 숫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에서 미납금의 일부를 대납해 주기도 했다는 사연은 정말 기가 막혔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을 했지만, 일반 묘역이 안장된 사람이 많다는 것도 일을 처리하는 도중 알게 되었다. 이 또한 남편이 알았더라면 땅을 칠 일이다. 앞으로 억울한 소방관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아질 것 같다. 먼 길이지만 누군가 앞장서 걸어야 할 길이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 소리 죽여 울었다. 벌써부터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문만 열고 나왔더라면 아빠가 살 수 있었냐고 물었고, 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탈출했는데 혼자만 나오지 못했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인지도 몰랐다.

남편의 죽음과 관련해 각종 신문 기사가 나가고, 인적사항이 밝혀지면서 희귀한 암에 대해서도 듣게 될 것이다. 아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그간의 이야기들을 전해 주었다. 말기 암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아빠가 다시 일

터로 나가신 것은 아들에게 훌륭한 기억을 남기고 싶어서였다고, 아빠가 얼마나 많이 아들을 사랑했는지 알려 주었다. 아들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언젠가 남편이 말했다. 여보, 남자가 철들 때가 언제인지 알아? 뜬금없는 남편의 말이 우습기도 했지만, 생각나는 대로 쉽게 답했다. 장가갈 때? 아니면, 군대 제대하고? 남편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철이 드는 거야! 남편의 시답잖은 말에 흥흥 웃던 기억이 났다. 지금 하늘나라에서 당신을 아빠가 아닌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뒤늦게 궁금해지는 그이의 속마음이다.

함께 현장에 나갔던 동료들이 집을 찾아왔다. 침울한 얼굴을 한 소방대원들의 얼굴에서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화마에 동료들을 잃고 돌아온 날이면 그이는 꼭 패잔병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와 준 것만 고마워서 그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에 부지런하지 못했다. 일곱 명의 소방대원이 언젠가의 그이처럼 패잔병의 모습으로 죄인처럼 앉아 있다.

"지켜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앞서 간 소방관들의 집을 찾아 갔을 때 남편도 저렇게 꿇어 앉아 고개도 들지 못 했겠구나……. 불길에 그이를 잃고 혼자만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에서 한동안 벗어나지 못할 가엾은 사람들이다. 차마 나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남편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마음이 넉넉히 느껴졌다. 동료들을 두고 먼 길을 가면서 눈에 밟혔을 그네들의 얼굴이다. 남편을 대신해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똑똑히 보아 두었다. 나를 찾아오는 일에 많이 결심이 필요했을 사람들이다.

소방대장이 위로금을 건네주었다. 받아도 되는 돈인지 잠시 망설였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다. 남편도 순직한 동료들이 있으면 이렇듯 찾아 다녔을 것이고, 그들의 진심이 담긴 마음을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맙게 받아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위로금을 쓰면 된다는 마음으로 봉투를 받았다. 나는 종종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이라는 가정을 해보곤 한다. 그이라면 어떻게 해결했을까? 남편은 무어라고 답했을까? 꼭 없는 신랑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버릇 아닌 버릇이 생겼다.

한동안 이어지는 침묵을 깨고 소방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화재 진압할 때, 살아서 만나자! 라고 인사합니다. 꼭 살아서 만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으니까요. 그날도 우리는 굳게 약속 했었지요……. 현장에 도착하니 불길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구요……. 녀석이 먼저 살아서 보자고 인사하더니만……. 정말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살아서 만나지는 못해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할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곁에 무릎 꿇

고 앉은 아들의 머리를 쓱쓱 쓰다듬으며 소방대장은 말을 이었다. 아빠를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한다. 정말로 대단한 분이셨어.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먼 길을 홀로 가버린 남편 덕분에 나도 덩달아 사명감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 부디 홀로 떠난 먼 길이 너무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장된 현충원에서 모든 시름을 잊고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여보, 함께 한 시간동안 고마웠어. 당신을 쫓아 먼 길을 가는 날, 웃으면서 재회할 수 있게 소방관의 아내로 열심히 살게. 당신이 못다 이룬 것들을 해내면서 말이야. 소방가족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해.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않길, 우리 소방가족의 행복을 지켜주길 바랄게.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를 참 많이 자랑스러워 해. 우리 가족에게 아름답고 좋은 기억 남겨줘서 고마워. 사랑하는 당신, 벌써부터 참 많이 보고 싶다.

접수번호	73	제 목	무인소방대장, 성민철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잿빛 같은 형광등 밝기였다. 차가운 공기는 을씨년스러운 느낌까지 줄 정도였다. 민철이 늘 발버둥쳤지만 패배하고 말았던 곳, 그날 이후 벌써 다섯 번째였다. 오늘도 민철은 마취를 당하지 않기에 어김없이 결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패배를 받아들일 준비도 하고 있었다. 사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사상 초유의 대응 3단계 발령으로 시도 경계를 넘어선 첫 번째 출동이었다. 사방이 검붉은 화마로 가득 찬 불지옥이었다.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 능선을 향해 조금씩 전진하는 순간, 민철의 몸뚱이보다 몇 배나 더 큰 아름드리 나무가 민철을 향해 각을 좁히고 있었다. 물을 한껏 머금어 흑갈빛이 더욱 짙어진 나무는 민철의 왼쪽 허벅다리를 덮쳐버렸고, 민철은 그대로 혼절했다. 시꺼먼 잿빛에 젖은 채로 가까스로 구조된 민철은 인근의 권역 외상 센터로 급히 후송되었다. 그렇게 병원 알콜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것이 벌써 반년째였다.

"선생님, 마취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환자 개인 특성에 따라 마취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열에 아홉은 거의 30초 이내에 마취가 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성민철 님. 지난 번 수술 때도 대한민국 소방관이 이 정도 가스에 마취가 되겠냐며 큰소리치셨는데 20초 안 넘기시더라구요. 그냥 마음 편하게 계세요."

민철은 이상하게 수술실 마취 가스가 두려웠다. 군대에서 숱하게 맡았던 화생방 CS 가스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수술실 침대에 누워서 마주하는 마취 가스는 이상하게 소름이 끼쳤다. 그 특유의 비릿하고 안티푸라민 냄새 같은 느낌. 사실 후각으로 느껴지는 그 냄새 때문이라서라기보다 다음 날 왠지 눈을 다시 못 뜰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이었다. 마취 가스가 비강으로 진입할 때마다, 화마 사이에 갇혀 정신을 잃어갔던 그 찰나의 순간이 떠올랐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마취와의 승산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마취 가스 마스크가 민철의 얼굴 위에 올려졌다.

"성민철님. 이제 마취 가스 들어가도 되나요?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네. 선생님. 이제 준비되었어요."

거짓말인 듯 참말이었다. 마취 가스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마취에 들지 않기 위한 만발의 준비가 된 것이었다. 비릿한 냄새가 엄습하기 시작했

다. 숨을 크게 들이쉰 다음에 꾹 참았다. 눈을 부릅떴다. 하지만 동공이 풀리는 것은 민철의 의지가 아니었다. 저 멀리서 역시나, 화마 사이에 갇혀 허벅다리가 나무에 깔리던 그때의 환영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때도 그랬듯이 곧바로 혼절했다.

"환자님! 성민철 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

오늘도 어김없이 마취 가스에 패배했다. 민철의 의지와는 역행하여 눈은 스르르 감겨버렸고, 기억 속 어느 시점으로 시간은 소용돌이쳐 갔다. 어딘가에서 연장 소리와 쇳소리가 들렸다. 커튼 이쪽 편에는 민철의 무의식이, 건너편에는 차트에 휘갈긴 의학적 판단만이 존재하는 세계였다.

"교육생.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
"성민철 교육생, 교관 목소리 안 들립니까? 하강 안 하고 뭐합니까?"
"교관님.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강해도 되겠습니까?"

신임 소방사 교육 8주차였다. 사람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미터라고 하지만, 이 정도 높이는 특전사 교육훈련에서 수도 없이 뛰어내린 높이였다. 이상하게 소방학교 훈련탑에 올라오니 민철은 헛구역질이 올라오며 오른쪽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다. '할 수 있다' 라는 주문을 속으로 수도 없이 외쳤지만 두통과 헛구역질은 멈춰지질 않았다.

"교관님. 제가 먼저 하강해도 되겠습니까?"
"방민철 교육생. 가능하겠습니까?"
"네. 교관님. 성민철 교육생이 상황이 안 좋으니 제가 하강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취했으면 합니다."
"그래. 방민철 교육생이 하강하는 동안, 성민철 교육생은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그래도 안정되지 않으면 교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민철과 이름이 같은 동기생 방민철이었다. 나이는 한 살 더 어렸지만 이름이 같아서 소방학교 입교 때부터 쉽게 친해진 동기였다. 이름이 헷갈렸던 주위 사람들은 성민철은 그냥 '민철이' 로, 민철이보다 키가 5센티미터 가량 더 컸던 방민철은 '큰철이' 로 불렸다. 민철의 눈에 큰철은 준비된 소방관 같았다. 분임토론에서도 늘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대답하였고 각종 실기 교육에서도 시범 조교와

같은 역할을 도맡아 하였다. 늘 형 같은 동생이었다.

“큰철아. 넌 참 대단한 것 같다. 입교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저것 다 능숙해. 교육 성적도 좋고.”
“뭘요. 형. 형도 뭐 대단하던걸요. 산악 정상 구보 훈련할 때 보면 진짜 아이언맨 같아요. 신들린 것처럼 올라가는데 잠깐만 다른 데 보고 있으면 까마득히 올라 갔더라구요.”
“나야 뭐. 뛰는 데에는 이골이 났으니. 그나저나 큰철이 너는 왜 소방관이 되려고 한 거야? 아무래도 준비된 소방관 같아서.”
“다들 마찬가지죠. 군대 생활 세게 하다 보니 이쪽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았고, 어릴 때부터 소방관 제복이 멋있어 보였어요. 딱히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왠지 별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체력적인 면에서는 큰철에 비해 민철도 뒤질 것이 없었는데, 큰철은 눈빛부터가 달랐다. 화마를 꼭 제압하고 말겠다는 불같은 이글거림과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는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는 온화함이 공존하는 눈빛이었다.

“132번 교육생! 방!민!철! 기준!”
“피티, 피티 대형으로 벌려!”
“피!티!악!”
“소방피티 10번 준비!”
“악!”
“소방피티 10번 30개! 몇 개?”
“30개.”
“목소리 봐라. 50개! 몇 개?”
“50개!”
“70개! 몇 개?”
“70개!”
“자. 소방피티 10번 70개. 마지막 구호는 생략. 한 명이라도 마지막 구호 외치면 처음부터 다시. 알겠습니까? 실시!”

소방피티 12번 중에 민철이 가장 힘들어했던 10번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구호는 난무했고 열외자는 속출했다. 민철이 보기에는 교관들이 때론 교육생들을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민철과 큰철을 비롯한 교육생들은 소방현장을 지켜야 하는 인력이기에 자신의 힘든 상황만 생각할 수가 없었다. 개인의 잠깐 동안의 안락이 당장은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아도,

현장에서는 잠깐의 안일함이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교육생들은 늘 하나가 되어야 했고, 때론 남을 나처럼 살피고, 나를 남처럼 대할 수 있어야 했다.

"정문 방향에 있는 축구 골대 지나, 계단 올라가서 2생활관 지나, 체력단련실 찍고 밑으로 내려와서 선착순 서른 명, 뛰어 가!"

민철은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앞을 보면 십 수명이 보였고, 뒤를 보면 수십 명이 보였다. 저만치 뒤에 큰철도 보였다. 민철은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힘을 짜내 선착순 안에 겨우 들었다. 나머지 교육생들은 다시 선착순을 반복했다. 큰철도 선착순 반복이었다. 민철은 가쁜 숨을 겨우 가라앉히고 나서야 큰철의 상황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 같으면 큰철은 선착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강철 체력인데 이번에는 유독 순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이었다. 의아했다. 저 멀리서 체력단련실을 찍고 아래로 내려오는 인원들 중에 큰철이 보였다. 더욱 의아한 것은 민철의 팔이 앞뒤로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펼쳐져 비행하고 있었다. 뒤처지는 교육생들의 등을 밀어주며 뛰고 있는 것이었다.

'하여튼 대단한 녀석이다. 이 뙤약볕 아래 자기 혼자 뛰는 것도 힘들텐데. 다른 교육생들 등까지 밀어주다니.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 확실히 뭔가 있는 녀석이야.'

소방 출동은 혼자인 경우가 거의 없다. 기본적으로 동료와 함께 소방구조 활동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하다못해 소방호스로 물을 쏠 때에도 관창수와 관창보조자가 필요한 것이 기본이었다. 옆의 동료의 안전은 곧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었다. 큰철은 선착순을 2번 반복하고 나서야 거의 제일 늦은 순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다른 교육생들은 숨을 헐떡이며 운동장 모래밭에 거의 쓰러진 반면, 큰철은 개인장비를 챙겨 유유히 생활관으로 복귀하고 있었다. 동료 교육생과 함께 과업을 달성하는 것, 이는 곧 현장에서 동료와 함께 소방 구조활동을 완수하는 것을 의미했다. 소방관에게 체력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기에 둘은 극한의 체력으로 단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큰철아. 벌써 우리 15주차다. 입교할 때에는 16주가 언제 가나 생각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
"그러게요. 형. 처음 들어와서는 엄청 어리바리했는데."
"어리바리하긴. 천하의 큰철이가 어리바리한 거면 다른 교육생들은 어쩌라

고.”

“아유. 형님. 과찬이십니다.”

“아냐. 넌 뭔가 있어. 확실히 다른 교육생들과 뭔가 달라.”

“아니에요. 그냥 노량진에서 공부했던 생각, 늘 걱정해주시는 부모님 생각하면서 견디는 거죠.”

“그럼 넌 정말 타고난 소방관인가보다. 우리 현장에 나가서도 정말 멋진 소방관이 되어서 건강하게 현장을 지키도록 하자. 큰철이 넌 워낙 잘하니 이제 나만 잘하면 되겠어.”

“타고나긴요.”

타고났다고 하기에는 후천적인 노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듯하고, 소방학교에서의 교육훈련으로 이만한 발전을 이뤘다고 하기에는 큰철의 자세는 너무 완벽했다. 그러한 큰철의 속마음을 끌어낸 것을 보면 민철 또한 훌륭한 품성을 갖추고 있음이 분명했다.

“사실은요. 형. 이제서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제가 소방관이 되기로 마음먹고, 소방학교에 와서 악착같이 버티는 것은 사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치? 그래. 뭔가 있어 보였어. 이제야 입을 여는구만.”

“마음속 깊숙한 곳에 묻어만 놓았었거든요.”

큰철은 소방학교 졸업을 한 주 앞두고 나서야 마음속 깊이 묻어만 놓았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민철과 한길을 갈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든든했기에, 어린 소년의 눈으로 바라봤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 저편에서 뭍으로 끄집어 올릴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아버지는 소방관이셨어요. 지금 저희 나이 정도일 때부터 소방 제복을 입기 시작하셔서 다행히 정년까지 마치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년까지 마치신 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비번이실 때 집에 들어오시면 항상 불 냄새가 가득하셨어요. 멀리서부터 불 냄새가 나면 아버지가 오늘 집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도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고생이시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허리와 어깨, 무릎과 손목, 우리 몸에 관절이란 관절에는 모두 누더기 옷처럼 흰 파스가 덕지덕지 붙었지만, 이상하게 단 한 번도 힘드시단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자리에 앉으셨다가 일어나실 때 한 번쯤은 입에 올리실 법한 ‘아이고, 힘들어라’와 같은 상투적인 한탄도 단 한 번을 하지 않으셨죠.”

“큰철이 너 체력은 아버님을 빼다 박은 거구나. 아버님 정신력도 대단하셨

고.”

“아버지 정신력도 대단하셨지만 그래도 늘 어딘가에 쫓기는 것 같으셨어요. 힘이 드는데도 힘들다고 얘기할 수 없는 무언의 압박 같은 거요. 절대 얘기 안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언젠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오신 날 엉켜 있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있으셨구나.”

“못 이길 정도로 술을 드신 날 드디어 이성의 끈을 놓으시고 마음속 깊이 숨겨 놓은 이야기 샘을 드디어 여셨어요. 긴 이야기는 없으셨어요. 그냥 ‘상민아. 상민아’ 만 계속 부르시더라구요. 그냥 울부짖으셨어요. 그제서야 감이 왔어요. 아버지 그토록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이 상민이 삼촌 때문이란 것을. 상민이 삼촌이 십수 년째 아버지 마음에 그대로 계셨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상민이 삼촌은 내가 꼬맹이 때부터 우리 집에 자주 왔던 삼촌이거든요. 아버지보다 한참 후임으로 온 소방관이셨어요. 키도 아빠보다 크고 주황색 근무복을 입었을 때 제일 멋있었던 삼촌이었어요. 아버지는 비번일 때마다 자주 상민이 삼촌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집밥을 같이 드실 정도로, 삼촌을 많이 아끼셨어요. 그날도 아마 아버지 비번이었던 날 같아요. 집에서 삼촌이랑 같이 점심을 드시다가 소방서 연락을 받고 바로 나가셨거든요. 그날이 상민이 삼촌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구나.”

“네. 당시에 전국이 떠들썩했던 ○○물류창고 화재였어요. 비번이었는데도 소방서 긴급 출동 연락을 받자마자 두 분은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셨어요. 늘 그랬듯 아버지는 상민이 삼촌과 함께 화마를 뚫고 들어갔는데 지붕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버지도 순간 정신을 잃고 병원에서 깨어나셨는데, 삼촌은 병원에 없었대요. 지붕 잔해 속에서 다음 날 새벽에야 발견되셨거든요. 아버지는 당신 때문에 삼촌이 그리되신 거라며 가슴을 치며 하염없이 우셨어요. 쉰을 바라보시는 분이 어린아이처럼 하염없이 우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삼촌 영결식 때 조사를 낭독하시고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으셨어요.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슬픔’ 이라는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되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아버지는 힘들다는 말씀을, 고생이란 말씀을 잊으셨어요. 출동복이 땀에 절어 소금꽃이 피어도, 진화 현장에서 넘어져 몸에 생채기가 나도 아버지는 ‘힘들다, 고생이다’ 라는 말씀을 잊고 사셨어요.”

“삼촌이 그리된 것이 평생의 한이 되셨구나. 뉴스에서 봤던 ○○물류창고 화재 사건, 나도 기억날 정도이니.”

“저도 엄청 슬펐어요. 멋있던 삼촌이 그리되었으니. 그런데 아버지 몸에서 나던 불 냄새가 이상했어요. 사람 마음을 울렁이게 하는 습성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방귀를 쏘아대던 소독차를 쫓아다닌 것처럼 그냥 끌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소방사 시험을 보겠다고.”

“아버지께서 반대가 심하셨겠는데?”

“반대가 심하셨다기보다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꽤 오랫동안. 그리고는 시험 접수를 한 날 아버지께서 흰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당신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아들 민철이에게.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우리 아들, 너의 결심을 듣고 나서 한동안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내가 소방관이 아니었더라면 나의 분신인 아들이 이 길을 걷겠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솔직히 애비된 사람이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단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해서 두렵다고 해서 너의 결정을 어찌 말릴 수 있겠니. 그것은 평생을 소방에 바쳐온 아빠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고, 상민이 삼촌의 삶을 헛되게 하는 것이니. 하지만 민철아. 이것만 기억해다오. 이왕 소방의 길을 걷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여기에 너의 혼을 다 바쳤으면 한다.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가 가장 마지막에 뛰어나오는 진정한 소방인의 삶을 살길 바란다. 대신 가장 마지막에 ‘살아서’ 뛰어나온다는 약속은 꼭 지켰으면 한다. 그게 아빠로서의 마음이란다.』

민철은 모든 궁금증이 일시에 해결되었다. 큰철이 왜 그리도 악착같이 노력했는지, 눈빛이 왜 그리도 이글거렸는지, 선착순에서도 굳이 왜 옆에 교육생들의 등을 떠밀어주면서까지 늦게 들어왔는지 모두 이해되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약속이자 상민이 삼촌과의 약속이었던 것이었다. 민철은 속으로 확신이 들었다. 아버지, 그리고 상민이 삼촌과의 약속을 큰철이 꼭 지켜낼 것이라는 것을. 사지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가 가장 마지막에 살아서 뛰어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큰철이 엄수할 것이라 확신했다. 드디어 마지막 아침이 밝아왔다. 마지막 아침 구보를 하였으며, 잘 다려진 소방 정복을 입고 뙤약볕 아래에 섰다.

“98기 교육생 여러분, 16주라는 시간이 지나고 127명 교육생 중 단 한 명의 열외자 없이 전원 수료를 할 수 있게 되어 학교장으로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소방 ‘공무원’이 되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소방관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이 위험에 처하면 반드시 가장 먼저 뛰어들고 가장 마지막에 건강하게 복귀하는 든든한 소방관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98기 교육생 여러분. 어떤 현장도 새내기 소방관이 왔다고 양해해 주지 않습니다. 소방학교에서 보낸 새내기 소방관으로서의 첫 마음을 늘 가슴속에 새기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안전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뙤약볕이 뜨거웠지만 교육생들의 얼굴에는 빛나는 표정이 가득했다. 소방학교 98기 교육생 127명 모두 계획된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가슴팍에 육각수 마크 하나씩을 달았다. 민철과 큰철도 '소방사시보 성민철', '소방사시보 방민철'이라는 계급을 당당히 부여받을 수 있었다. 16주라는 시간이 이들을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천만 도민의 건강과 생명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어엿한 소방관으로 탄생시켰다. 큰철은 속으로 두 사람을 생각하느라 마음이 요동쳤다. 불 냄새를 자신의 체취로 평생을 사시며 큰철의 후각을 자극해 준 분과 그분이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또 다른 분이었다. 두 분과의 약속을 꼭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발끝부터 치밀어올랐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큰철이 두 분과의 약속을 꼭 지킬 수 있기를, 자신 또한 큰철과 함께 소방 현장을 자신있게 걸어가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민철은 남부 지역의 소도시로, 큰철은 북부 접경 지역으로 발령이 났다. 같은 시도 지역이긴 했지만 북쪽 끝에서 남쪽 끝이라 자주 만날 수는 없었고, 각자의 위치에서 소방 현장을 묵묵히 지켰다. 그 어떤 현장도 새내기 소방관이라고 양해해주거나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소방학교 학교장님의 말씀처럼, 민철은 언제나 선배 소방관들보다 한 발 더 움직이고 몇 배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해 나갔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보'라는 딱지가 떨어지고, 드디어 정식 소방사가 되었다. 출동 현장을 숱하게 누볐다. 긴급출동 지시를 받고 식탁 위에 덩그러니 주인을 잃은 수저만 놓인 적이 여러 차례였다. 기상천외한 출동들도 많았다. 목숨이 위태로운 요구조자를 가까스로 구출한 적도 있고, 심각한 외상으로 인해 이미 유명을 달리 한 경우를 마주한 적도 있었다. 마을로 내려온 고라니를 구조하느라 땀을 한 바가지 흘린 경우도 있었다. 모든 구조 경험이 하나하나 가슴 속에 판화로 새겨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승진을 했다. 후임 소방관이 들어왔고, 누군가의 안전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까지 더해졌다.

'[긴급]강원도 속초, 고성 화재. 지금 즉시 전 인력은 소방서로 복귀할 것. 전국 시도 소방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인력 및 가용 물자 동원 예정'

민철은 두 눈을 의심했다. 평소에는 보지 못한 메시지였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했다. 뉴스에서는 금방이라도 브라운관에서 튀어나올 듯한 기세의 검붉은 화염 속에 『강원도 고성 산불, 불길 예측할 수 없어…주민대피령』이라는 자막이 두꺼운 고딕체로 박혀 있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식탁 위의 수저는 주인을 잃게 되었고 곧바로 민철은 소방서로 복귀하였다. 10시를 기해 '대응 3단

계’가 발령되었다. 전국에 있는 가용 소방력의 총동원 명령으로, 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야속하게도 화마는 시뻘건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 출동이었다. 시도 경계를 넘어 강원도로의 출동은 처음이었다.

‘형도 가고 있죠? 조심하세요.’
‘너도 가고 있구나. 큰철이 너도 몸조심하고 갔다와서 보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방차들이 죄다 북동쪽으로 향했다. 이미 고속도로에는 검붉은 화마와의 싸움을 위한 시뻘건 소방차들이 긴 행렬을 이뤘다. 전국의 가용 소방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구덩이로 향하고 있었다. 끝을 알 수 없는 반딧불이 행렬이 국가적 재난을 위해 기어코 고난을 향해 뛰어든 것이었다. 경기소방, 서울 소방, 충청 소방, 저 멀리 부산 소방까지 소방차들은 저마다의 이름을 달고 북동쪽으로 향했다. 현장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다. 도로 양쪽은 이미 산불이 치밀어 올라 이글거렸고 눈앞에서 불쏘시개들이 이리저리 춤을 추고 있었다. 야속하게도 초강풍은 불화살이 되어 화마와의 전쟁을 점차 확대하고 있었다. 지옥이 있다면 이런 모습 같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야말로 불지옥이었다.

“현재 초속 30m 강풍이 불고 있어 잠깐 사이에도 수십 미터씩 불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불 방화선도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어 민가까지도 위험합니다. 현재 LPG 충전소 근처까지 산불이 내려와 있어 대형 폭발 사고가 우려됩니다. 일단 LPG 충전소를 방어해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지만 대원 여러분들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원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를 위해 모여주신 대원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십시오.”

현장 책임자의 브리핑 도중에도 불길이 이리저리 치닫고 있었다. 민철은 LPG 충전소 100미터 전방에서 방화선을 구축하는 데에 투입되었다. 온 사방이 이미 불길이었지만, 더 큰 참사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했다. 65미리 관창 호스를 온몸으로 지탱하며 불과의 사투를 벌였다. 소방대원들과 화마와의 지루한 샅바 싸움이 시작되었다. 불길이 잦아들었다가 다시 피어오르기를 반복하다가 자정을 넘어갈 무렵, 확산세가 겨우 잡히기 시작했다. LPG 충전소를 50미터 앞에 두고서였다. 물론 저 멀리 보이는 검붉은 이글거림은 그대로였다. 민철과 대원들은 잠깐의 틈도 없이 산 능선으로 향했다. 소방차로는 더이상 오를 수 없어 소방호스를 어깨에 둘러메고 뛰기 시작했다. 20kg이 넘는 개인 장구에 소방호

스까지 엄청난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산을 집어 삼킬 것 같은 화마와의 성전(聖戰)을 그 누구도 마다하지 않았다.

"우린 여기서 방화선을 구축해야 한다. 바람이 산 아래 방면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방화선을 구축하지 못하면 민가들이 위험해진다."
"네. 대장님. 여기 산 능선에서 1차 방화선을 구축하고 점차 아래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철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산 능선으로 투입되었다. 보이는 것은 시뻘건 화염과 새까만 재뿐이었다. 사방이 전쟁터와 같았지만 두려움보다는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다른 대원들과 방화선을 구축하며 연신 물을 쏘아댔다. 잠깐 불이 잦아들었다가도 바람이 거세게 불고 나면 또다시 잔불이 되살아났다. 지독한 놈이었다. 하지만 더 질긴 놈이 이긴다는 생각으로 검붉은 화마에 맞섰다. 산 아래에서도 다른 지역 대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어디서 출동했는지조차 모르지만 대한민국 소방관이라는 이름 하나로 든든한 아군을 만난 듯했다. 산 아래와 산 능선에서의 이중적인 공격 작전이 통했는지 아군과의 거리가 좁혀질 무렵 산불이 잠깐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오싹한 바람이 큰철의 등을 간지럽혔고, 얼굴을 감췄던 화마는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그리고 아래쪽 아군을 향해 불길이 맹렬하게 달려 나갔다.

"민철아! 무전! 무전!"
"네. 대장님."
"아래쪽 소방대가 위험해! 우선 빨리 대피하라고 무전! 무전!"
"여긴. 경기 소방. 경기 소방. 영동 고속도로 속초 방향……"

삽시간이었다. 거세게 되살아난 화마는 아래쪽 아군을 삽시간에 집어삼켰다. 큰철의 동료들과 협공을 펼치던 아군의 움직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거센 물줄기로 맞서던 기세가 수그러들었다. 그리고 물줄기의 흔적만 겨우 보이다가 그마저도 사라졌다.

"형! 형! 정신 좀 차려봐!"
"어……."
"형! 나야 나! 큰철이! 정신 좀 차려봐!"
"어……어……."
"형! 정신 놓지 말고. 나 똑바로 쳐다봐. 구급대원들 지금 막 올라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정신 좀 차려봐. 제발."

큰철이 산 위에서 목격한 아군은 바로 민철이 속한 소방서 대원들이었다. 그리고 민철은 물을 잔뜩 머금은 나무에 깔려 그대로 기절한 상태에서 큰철에게 발견되었다. 얼굴이 땀과 재로 뒤범벅되어 큰철이 민철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민철은 곧바로 권역 외상센터로 후송되었고, 다음 날 정오에야 완전히 진화된 강원도 산불은 1750헥타르가 넘는 엄청난 면적을 태운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었다. 물론 이마저도 전국에서 눈물겹게 달려온 수백 대의 소방차와 수천 명의 소방대원들이 사투를 벌인 성과였다.

눈을 떴다. 어디인지 쉽게 분간은 하지 못했지만 희미한 형광등과 약간의 소란스러움이 들렸다. 귀를 간질이는 소음이 수술실의 소음인지, 나무가 덮쳐 오던 그날의 소음인지 몽롱함 속에 잘 구분이 되지 않았다. 차가운 공기가 겨드랑이 속을 파고들자 정신이 조금 온전해졌다. 회복실이었다. 마취에 들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쳤지만 오늘도 역시나였다. 다리는 언제나 그랬듯 붕대로 칭칭 감겨 코끼리 다리를 하고 있었다.

"성민철 님. 정신이 좀 드세요?"
"네. 선생님. 수술은 잘 끝났나요?"
"네. 잘 끝났습니다. 부정유합이 일어났던 대퇴부 뼈를 양옆에 철심을 대고 똑바로 이어 붙였습니다."
"그럼 예전처럼 다시 걸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예전처럼 걸을 수 있죠. 대신 해외로 나갈 때에는 조금 불편하실 거에요. 금속탐지기 통과할 때 '삐비빅' 할 거거든요."

주치의는 민철이 긴장을 풀 수 있도록 가벼운 농도 섞으면서 설명을 이어나갔다. 민철은 피나는 재활을 했다. 희망이 넘치는 날엔 당장이라도 뛸 수 있다가도, 한없이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했다. 둔한 활동력은 소방관에게 사형 선고와도 다름없기 때문이었다. 주치의의 말이 거짓은 아니었다. 다섯 번의 수술 만에 민철은 한 발자국씩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예전처럼 무거운 짐을 들거나 빠르게 뛰는 활동은 불가능했다. 주치의 말 그대로 '예전처럼 걸을 수 있는' 상태까지만 회복된 것이었다.

"형, 비번이라 왔어요. 재활은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긴. 죽을 맛이다. 이 정도 회복된 것도 천운인 것 같긴 한데,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가끔 자신도 없어지고."
"천하의 성민철이 자신이 없긴요. 너무 병원 안에만 있지 말고, 바깥 공기도

좀 쐬면 기분이 조금 나아질 거에요. 이거 드론인데 야외정원에서 한 번씩 날리면서 기분 전환해요. 형. 할 수 있다! 성! 민! 철!"
"그래. 고맙다. 열심히 해 봐야지."

소방학교에서 시작된 큰철과의 인연이 참 질기고 따뜻했다. 함께 훈련받으며 소방의 꿈을 키웠고, 그 사지(死地)에서 함께 나왔으며, 절망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주며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다. 두 다리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부딪혀봐야 하겠다는 의지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것이야말로 'First in, Last out'이라는 소방관의 숙명, 그것의 실천이었기 때문이었다. 민철은 큰철이 준 드론을 하늘 높이 날리며 자신도 곧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였다.

"출동! 출동! 2025년 5월 23일, 17시 20분경, ○○동 3층 건물 공사현장에 화재 발생!"
"성 소방위! 무인 소방대가 먼저 출동해서 선제적으로 상황 파악하고 초동 대응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화재는 3층 전체에 확산되고 있었다. 민철은 신속하게 드론부터 띄웠다. 드론이 보내준 영상을 통해 내부에 인적 피해는 없으며, 출입구 쪽 진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곧바로 민철은 한국형 소방로봇 '해태 1, 2, 3호'의 투입을 결정했다. 해태는 출입구 주변의 불길을 집중적으로 제압해 나갔다. 화재 발생 초기에 해태가 위험 요인을 제거한 덕분에 3층으로 진입한 소방 대원들은 보다 안전하고 수월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소방서로 복귀하면서 민철은 오늘도 대원들이 '가장 마지막에 살아서 돌아오는' 역할을 안전하게 수행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사고 후유증으로 더 이상 불길과 직접 맞닥뜨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드론과 해태의 책임자로 여전히 화재 현장을 지킬 수 있다는 점도 감사했다. 민철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음 출동을 위해 드론과 해태의 재정비에 힘을 쏟았다.

"그대여 소방을 왜 선택했나. 멋진 사랑을 하고 싶어서. 그런 사랑을 누구와 하고 싶은가. 위험에 처한 사람은 누구나 좋아. 힘든 길인지 알고 택했나요. 아무나 할 수 없어서 좋아요……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소방은 내가 택한 숭고한 사랑의 길."

민철은 2025년 1월, 대한민국 소방 역사상 최초로 창설된 무인소방대, 대장 성

민철 소방위였다.

접수번호	94	제 목	그을린 방화복

거울 속 남자는 방화복을 입고 있다. 햇빛을 받은 방화복은 유황색보다 노란색에 더 가까워 보였다. 백화점 쇼윈도에 진열된 옷처럼 방화복은 티끌 하나 없이 말끔했다. 새 옷 특유의 냄새도 났다. 헬멧을 쓰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포즈를 취해 본다. 어른 옷을 몰래 꺼내 입은 아이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머릿속으로 방화복을 입은 소방관의 모습이 스쳐지나갔다. 관창을 들고 산더미 같은 불을 향해 물을 뿌려대는 소방관. 시커먼 연기 속에서 사람을 부축해 나오는 소방관. 얼굴에 그을림을 묻힌 채로 라면을 먹는 소방관. 그들이 입은 방화복은 때가 탔다. 화마와 싸운 흔적이 훈장처럼 여기저기에 박혀 있었다. 낡고 해진 유니폼이 더 멋있는 것은 소방관의 방화복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규는 소방학교에서 12주 교육을 마치고 집과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발령을 받았다. 정규가 소속된 119안전센터는 공장들이 들어 찬 화재경계지구에 위치했다. 유동인구에 비해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적은 곳이었지만 출동은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에 속했다. 화재경계지구 안에는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깡통공장이 즐비했다. 공장이 많다 보니 소방시설이 낙후된 곳도 있었고 속보설비로 인한 오인출동이 잦았다. 센터장은 속보설비 출동을 나갈 때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재경계지구에는 공장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조금이라도 대처가 늦으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펌프차에는 정규를 포함한 팀장과 반장, 운전을 하는 부장 이렇게 네 명이 탑승했다. 팀 분위기는 화목하고 수평적인 분위기였다. 선배 소방관들은 정규를 막내 동생처럼 대했고 소방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팀장은 출동을 나갈 때마다 정규에게 이것저것 자세하게 알려주었고 실수를 해도 꾸짖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항상 침착해야 해. 항상 내 꽁무니만 따라 다녀.”

정규는 팀장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났다. 무뚝뚝한 아버지와 달리 팀장은 살가운 성격이었다. 연배가 비슷해서일까. 아버지와 비슷한 분위를 풍기기 때문일까.

정규는 동료들에게 아버지가 소방관이었다는 사실을 숨겼다. 동기들조차 정규의 아버지가 소방관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정규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일이었다.

아버지의 삶을 색깔로 비유한다면 짙은 회색에 가까웠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한 추억은 거의 없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어떤 날에는 하루 종일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집에서 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당시 소방관은 2교대 근무를 했다. 아버지는 이틀 중 하루를 소방서에서 보냈고 비번

날에는 낚시를 가거나 술에 취한 채로 밤늦게 집에 들어왔다. 정규가 학교에서 학예회를 할 때도, 운동회를 할 때도, 졸업을 할 때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집보다 소방서가 우선이었고 가족보다 동료를 먼저 챙기던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 정규는 차라리 아버지가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아버지에 대해 꼭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었다. 등대처럼 환한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초등학교 4학년 2학기였다.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학부모가 일일교사로 임명되어 학년 친구들에게 직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원래 일일 교사로 내정되었던 사람은 반장인 수정이 엄마였다. 수정이 엄마는 대학병원 간호사였다. 일일 교사 수업 일주일을 앞두고 수정이 엄마는 웬일인지 일일 교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을 담임선생에게 전했다. 담임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일일 교사는 반이 돌아가면서 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선생님과 반 아이들의 보이지 않는 자존심 경쟁도 포함되어 있었다. 학생기록부를 뒤졌지만 금요일을 딱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일일 교사를 할 만한 학부모를 찾는 건 쉬운 게 아니었다. 담임선생은 몇몇 아이들과 면담을 했다. 정규도 그 중에 포함이 되었다. 정규의 아버지가 소방관인 것을 알게 된 담임은 정규에게 아버지가 일일 교사로 학교에 와줄 순 없는지 물었다. 정규는 아무 말 없이 눈만 껌뻑거렸다. 아들 운동회에도 참석 못하는 아버지가 일일 교사를 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할 리 없었다.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이 되자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다. 좋아하는 낚시도 가지 않고 아버지는 하루 종일 안방에서 잠만 잤다. 아버지의 몸에서 탄내가 나는 것으로 보아 밤새도록 불을 끄고 온 것 같았다. 저녁 무렵 잠에서 깬 아버지는 까치집처럼 부스스한 머리를 한 채 TV를 켰다. 피골이 상접한 아버지를 보고 정규는 차마 일일 교사를 해달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선생님은 월요일 아침 조회시간에 밝은 얼굴로 들어왔다.

“다행히도 일일 선생님이 정해졌어요. 이번에는 어떤 분이 오시는지 따로 밝히지 않기로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예요.”

일일 교사가 취소되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일일 교사가 누군지 비밀로 붙이는 이유를 도통 알 수가 없었다. 반 아이들 사이에서 온갖 소문이 떠돌았다. 경찰관인 현아 아버지와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경은이 아버지가 유력한 후보로 꼽혔다. 현아는 벌써부터 자기 아버지가 오는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다. 현아 아버지가 1일 교사로 온다면 녀석은 몇 달 동안 우쭐거리며 다닐 게 뻔 했다. 그 모습을 상상하니 정규는 벌써부터 배가 아팠다.

그렇게 금요일이 다가왔다. 시곗바늘이 오전 10시를 가리키자 교실 가까이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은 모두 창밖으로 다가가 고개를 내밀었다. 예상했던 것처럼 현아 아버지가 경찰차를 타고 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흙먼지를 날리며 교문을 들어선 것은 경광등을 번쩍이는 빨간색 소방차였다. 일렬로 줄을 지어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소방차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반 아이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질렀다.

담임선생조차 어린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자, 여러분. 일일 선생님이 오셨어요. 우리 모두 밖으로 나가요."

정규는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운동장에는 빨간색 소방차가 다섯 대나 서 있었다. 맨 앞에 있던 소방차에서 검정색 방화복을 입은 소방관이 문을 열고 내려왔다. 아버지였다. 정규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정규야! 아빠다."

아버지는 정규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반 아이들의 시선이 정규에게 집중되었다. 바로 눈앞에서 아버지를 보고도 정규는 믿기지 않았다. 이런 장면은 꿈속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소방관이 된 아버지는 집에서 보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아버지는 소방차에서 소화기를 들고 나왔다. 아버지는 평소와는 달리 부드러웠다.

"친구들, 소화기를 사용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안전핀을 뽑아야 해요."

"맞아요. 안전핀을 뽑고 그 다음에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면서 손잡이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저씨가 한번 실험을 볼게요."

아버지가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해 손잡이를 살짝 누르자 소화기에서 흘러나온 흰 가루가 아버지의 얼굴을 덮쳤다. 아이들이 웃음을 터트렸다.

"푸, 푸! 아저씨처럼 바람 부는 쪽으로 소화기를 사용하면 소화약제를 다 맞아요."

이번에 아버지는 바람을 등지고 손잡이를 눌렀다.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바람을 등져야 해요."

노즐에서 흰 가루가 뿜어 나왔다. 드럼통에서 활활 타오르던 불은 소화약제를 맞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소화기 사용법과 안전교육이 끝나자 아버지는 펌프차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제 운동장 가운데로 가봐요."

아이들은 얼떨결에 운동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아버지가 방수포를 열자 물줄기가 포물선을 그리며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와!"

물줄기는 운동장 한가운데 떨어졌다. 아이들은 물이 떨어지는 곳을 향해 달려갔다. 옷이 흠뻑 젖으면서도 아이들은 떨어지는 물을 맞으며 즐거워했다. 물놀이가 끝나자 아버지는 아이들을 소방차에 태워 운동장을 돌았다. 정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멋있다고 생각했다. 그 어떤 아버지도 부럽지 않았다.

그날 이후 정규를 업신여기던 친구들의 태도가 몰라보게 달라졌다. 정규가 짝사랑하는 햇님이도 정규에게 다가와 소방관과 아버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다.

"너 아빠가 직접 불 끄는 거 봤어?"

"어. 딱 한번."

"우와, 어땠어? 불 많이 났어? 너희 아빠 되게 멋있더라."

질투를 느낀 듯 현아와 수정이는 정규에게 말조차 걸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날부터 아버지는 무관심하고 무뚝뚝한 예전의 아버지로 돌아갔다. 정규는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친구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직업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정규는 소방관이라는 꿈을 품기 시작했다.

퇴근을 삼십여 분 앞둔 시각이었다. 출동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딩동댕동…. 딩동댕동….구조 출동! 구조 출동!

출동 벨소리에 이어 119본부 상황실 근무자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쏟아져 나왔다.

"남편이 집안에서 가스를 틀고 자살을 시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신고자는 대피를 했고 집 안에는 남편 혼자 있는 상황!"

대원들은 즉시 소방차에 올라탔다. 개인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동안 팀장이 긴장된 어조로 말했다.

"장비 착용하면서 들어. 현재 집 안에 LPG가스가 가득한 상황이야. 불은 안 났지만 가스가 폭발하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스를 잠그고 창문을 연다. 어둡다고 형광등 스위치를 누르거나 전기 플러그에 손대면 절대 안 돼. 창문을 열 때도 마찬가지야. 작은 스파크만으로 폭발할 수 있다. 천천히 안전하게 열어야 한다!"

"넵!"

애애애앵-.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소방차가 출발했다. 정규는 입안이 바짝 타올라 계속해서 침을 꼴깍 삼켰다.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가 사이렌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 소방관이 된 이후로 이렇게 긴장되는 출동은 처음이었다.

현장은 식당이 딸린 40평 크기의 주택이었다. 팀장은 신고자가 알려준 대로 번

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돌렸다. 현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현관에 아무렇게 벗어 놓은 신발들이 눈에 들어왔다. 실내는 캄캄했다.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동굴에 발을 들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삐이이- 실내에서 가스누설 경보기가 끝없이 울었다. 정규는 가스측정기를 들어 LPG 농도를 확인했다. 가스 감도 0레벨. 그것은 집을 통째로 날리고도 남을 양이었다.

"난 가스를 잠글 테니 두 사람은 곧바로 수색을 하면서 차례차례 창문을 열어! 스파크가 안 일어나게 조심해야 한다!"

팀장과 반장은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정규는 반대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면체 안으로 점점 습기가 찼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거친 숨소리만 귀속을 가득 울렸다. 바이패스를 열자 겨우 시야가 트였다. 정규는 창문을 발견하고 그리로 다가갔다. 스텐레스 재질로 된 가로 세로 2미터 정도 크기의 창문이었다. 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정규는 창문 고리를 풀고 조심조심 문을 밀었다. 문을 여는 손이 덜덜 떨렸다. 스텐레스 금속이 마찰을 일으켜 작은 열기라도 낸다면 모든 것은 끝이기 때문이었다. 오른쪽으로 희끄무레한 문이 보였다. 정규는 랜턴을 비추고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다. 5평 크기의 방에는 가구가 없었다. 여행 가방 두세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 설치된 옷걸이에는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정규는 촘촘하게 걸려있는 옷 사이를 헤집어보았다. 어디에서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스르륵- 정규는 고개를 돌렸다. 거실에서 불어온 바람 때문에 방문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다. 정규는 몸을 날려 문이 닫히는 걸 가까스로 막았다. 질식할 것처럼 숨이 막혔다. 공황상태에 빠진 정규는 엉금엉금 기어서 방에서 빠져나왔다. 그때 환한 빛줄기가 정규를 비췄다. 팀장이었다.

"요구조자 찾았어?"

"못 찾았습니다."

팀장과 반장은 이미 한차례 수색을 끝낸 뒤였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 이번엔 방을 바꿔서 수색한다. 넌 큰방으로 가. 서둘러!"

팀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규는 몸을 일으켜 반장이 들어갔던 큰방으로 걸어갔다. 큰방에는 이불과 베개, 가방, 옷가지들이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었다. 두근거리는 심장의 박동이 온몸에 울려퍼지고 있었다. 또 다시 방문이 닫히면 어쩌지, 하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여기다, 여기!"

거실 너머로 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규는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달려갔다. 랜턴 불빛이 좌우로 흔들렸다. 헉헉. 거친 숨소리가 마스크 안으로 퍼졌다. 팀장은 남자의 얼굴에 보조마스크를 씌우고 있었다. 요구조자가 발견된 곳

은 어이없게도 정규가 수색했던 옷방이었다. 정규는 황급히 실신을 한 요구조자를 업고 밖으로 나왔다.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떠나는 구급차를 향해 구경을 나온 뭇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쏟아졌다.

그날 정규는 만취가 되어 집에 들어갔다. 어머니는 자지 않고 정규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 있니?"

"무슨 일은요. 그냥 팀원들끼리 모여 한잔 했어요."

정규는 어머니에게 애써 웃어 보였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가방에서 캔맥주를 꺼냈다. 맥주를 마시며 퇴근 전 구급대원과 나눴던 대화를 되뇌었다.

"그 사람 안타깝게 사망했어."

그 말을 듣고 정규는 깜짝 놀랐다.

"숨을 쉬는 것 같던데요?"

"발견했을 때 이미 가스에 중독된 상태였어."

정규는 불을 끄고 얼굴을 이불 속에 파묻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발견하지 못했어. 내가 처음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발견했더라면 그 사람은 살았을 거야. 정규는 저며오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싶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학원을 마치고 집에 늦게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 술을 마시는 아버지와 마주친 적이 있었다. 정규가 집에 온 사실을 모르고 아버지는 캄캄한 창밖 하늘을 보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즈음 아버지는 술 없이는 잠이 들지 못했다. 정규는 아버지와 마주치는 게 어색해 거실을 지나가는 것을 잠시 망설였다.

"내 탓이야. 내가 살릴 수 있었어."

빈 술잔을 무연히 바라보며 아버지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정규가 기척을 내자 아버지가 돌아보았다.

"정규냐? 학원 마치고 왔냐?"

"다녀왔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구나. 공부는 잘 하고 있지?"

"네."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정규는 아버지를 지나쳐 방으로 갔다. 방문을 닫으려고 할 때 아버지가 말했다.

"혹시라도 이 아버지처럼 소방관이 될 생각은 말 거라."

장차 소방관이 될 생각은 말 거라던 아버지를 이해하기엔 어린 나이였다. 술에 의존하는 아버지가 그때는 나약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더구나 그 사람을 자신이 살릴 수도 있었

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쓴물이 목구멍으로 올라왔다. 정규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악질을 했다.

아침부터 구름 낀 하늘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정규는 술이 덜 깬 채로 택시를 타고 출근했다. 그날은 정규가 속한 3팀이 당번을 서는 날이었다. 정오가 지나도록 술이 깨지 않았다. 선배들이 휴게실에 들어가서 쉬라고 권했지만 정규는 묵묵히 사무실을 지켰다. 팀장이 정규를 밖으로 불러냈다.

"너, 어제 요구조자를 발견하지 못한 거 때문에 그런 거야?"

"죄송합니다."

정규는 고개를 숙였다.

"가스가 가득 차서 불을 켤 수 없었어. 너무 어두워서 요구조자를 찾기 힘들었어. 설사 네가 요구조자를 발견했어도 살지 못했을 거야. 남자는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잖아. 그 집이 폭발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하지만… 저는 그때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문이 닫히는 걸 보고 스파크가 일어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냈더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소방관이 될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정규는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꽉 쥐었다. 팀장은 그런 정규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커피가 가득 찬 종이컵을 두 개 들고나왔다.

"마셔. 속이 좀 가라앉을 거야."

정규는 말없이 커피잔을 받아 들었다. 따스했다.

"널 보니 한 선배님이 생각나네. 그 형님도 너처럼 소방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지. 화재 현장에서 어린아이를 구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괴로워하셨지. 난 선배님에게 사정하듯이 말을 했어. 형님 잘못이 아닙니다. 형님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애를 구하기 힘들 겁니다. 선배님은 주먹을 꽉 쥔 채 이렇게 말하더군. 집에서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애 생각이 난다고."

정규의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다. 팀장이 정규의 어깨를 잡았다. 핼쑥한 얼굴로 정규는 팀장을 바라보았다.

"한정규. 인간을 구하는 것도 결국 인간이 하는 거야. 사람이 만능일 수는 없지. 그동안 다른 사람을 구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구하지 못하는 소방관들을 수없이 봐왔어. 자신을 구하지 못하면 아무도 구하지 못해. 그 사실을 잊지 마."

저녁이 되자 비는 내리지 않고 바람만 더욱 거세게 불어왔다. 선배 소방관들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불이 날 것 같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자신이 내뱉은 말이 불씨가 되어 실제로 큰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었

기 때문이다. 일선에서 현장 활동을 하는 소방관은 이런 미신 같은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스피커에서 다급한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던 것이다.

"지금 공장에 불이 붙었어요. 소화기로 끄고 있는데… 안 돼요. 빨리 와주세요, 빨리!"

곧이어 화재출동 벨소리가 울렸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대원, 휴게실에서 신문을 보던 대원, 사무실에서 TV를 보던 대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차고지로 뛰어갔다.

펌프차에 올라타자마자 정규는 방화복을 입었다. 불이 난 곳은 가구를 만드는 공장 작업실이었다. 공장은 화재경계지역에 위치했다. 계속해서 신고 접수가 폭주했다. 저녁이 되자 하늘은 더욱 짙은 검정색을 띄었다. 멀리 험악하게 생긴 구름 사이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저 정도 연기면 엄청난데. 김 부장 서둘러야겠어."

항상 안전운전을 강조하던 팀장은 운전을 하는 부장을 재촉했다. 마음이 급한 것은 다른 대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도 개인안전장비를 착용하느라 분주했다. 공장이 밀접한 지역으로 들어서자 펌프차가 심하게 덜컹거렸다. 정규는 속이 메스꺼웠다. 좁은 펌프차 안에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는 것은 언제나 곤욕이었다. 가파르고 좁은 길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펌프차는 낭떠러지처럼 비좁은 오르막길을 아슬아슬 올라갔다.

"여기야, 여기!"

"이쪽! 이쪽으로!"

주말인데도 공장 인근에는 당직자와 합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붐볐다. 그들은 자신들이 펌프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줄도 모르고 펌프차가 향하는 곳에 서서 손짓을 했다.

"비켜! 비켜야 소방차가 지나갈 거 아냐!"

운전을 하던 부장이 크락션을 울리며 예민하게 반응했다. 펌프차가 코너를 돌자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검은 연기는 더욱 가까워졌다. 공장 창고로 가르지는 길목에 커다란 철제문이 가로막고 있었다. 정규는 펌프차에서 내려 절단기로 자물쇠를 잘라냈다. 정규가 철제문을 열자 펌프차는 공장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화재는 이미 최성기 상태였다. 불길은 산처럼 높이 솟아올라 세상을 단숨에 녹여낼 듯 열기를 쏟아냈다. 정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차이점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강력한 복사열만으로도 면체가 타버릴 듯이 뜨거웠다.

"팀장님 이러다 펌프차가 다 녹겠어요!"

"더 이상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바로 호수 깔아!"

펌프차가 멈추자 팀장은 차에서 내려 신속하게 45㎜수관을 뽑아 들었다.

"옆에 위험물 제조소가 있어. 그곳으로 불이 번지면 큰일이다!"

팀장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팀장의 말대로 가구공장 왼쪽으로 위험물 제조소가 있었다. 팀장은 관창을 들고 왼쪽으로 향했다. 반장이 호스를 정리하며 팀장을 뒤쫓았다. 바람은 한쪽으로 불지 않고 수시로 방향을 바꿨다. 가구공장 오른편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에도 불이 번져 깨진 유리창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정규는 펌프차 뒤칸에 있는 호스를 한 움큼 들고 오른쪽으로 뛰어갔다. 숨이 차올랐다. 호스가 양쪽으로 전개되고 방수준비가 완료되었다.

"방수 개시!"

팀장의 고함소리와 함께 호스 안으로 수압이 차오르고 관창에서 물이 뿜어져 나왔다.

"후착대가 올 때까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정규는 플라스틱 공장으로 번지는 불길을 필사적으로 막았다. 후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30분 정도 소요됐다. 그때까지 무조건 견뎌야 했다. 활활 타오르는 주홍빛 불은 날카로운 칼처럼 춤을 추면서 살기를 뿜어냈다. 정규는 전신에 소름이 돋아났다. 두려운 마음을 이겨 내고자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다.

'이럴 때일수록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 겁내지 말자. 겁내지 마.'

그 말은 아버지가 해 준 말이었다. 잿빛 연기를 타고 재가 눈송이처럼 날렸다.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이었다.

정규가 군대에 입대하던 날 아버지와 단둘이 훈련소에 간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아버지는 훈련소까지 정규를 데려주겠다고 한사코 고집을 부렸다. 정규가 아무리 설득해도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결국 정규는 아버지의 낡은 자동차를 타고 새벽길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주차를 하고 훈련소로 걸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귀가 떨어져 나갈 듯이 시렸다. 추위는 버틸 수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어색한 분위기는 서서히 한계점에 다다랐다. 정규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다. 얼른 입대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시간이 다가오자 조교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훈련병들은 이제, 가족과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쪽으로 건너옵니다!"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애인과 껴안고 흐느끼는 소리. 아들아 사랑한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고 외치는 소리 등이 뒤섞어 훈련소 안을 가득 메웠다. 정규는 아버지를 향해 꾸벅 고개를 숙였다.

돌아서려는데 아버지가 정규의 어깨를 잡았다. 아버지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힘이 들 때마다 단순하게 생각해…. 겁낼 것도 없어. 고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건강해라, 사랑한다, 라는 말이 평소 무뚝뚝한 아버지의 입에서 나올 리 없었다.

훈련소에서 받은 훈련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들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생활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은 몰랐다. 총을 쏠 때도, 30㎞ 행군을 하며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말처럼 군대는 어쩌면 단순한 곳일 수도 있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군대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단순한 구조야.'

훈련소에서의 마지막 밤이었다. 그날 밤 눈이 내렸다. 정규는 유리창을 툭툭 내리치는 눈송이를 보며 잠이 들었다.

새벽 3시에 당직관이 정규를 깨웠다. 정규는 근무가 없는 날에 불침번이 아닌 당직관이 자신을 깨우는 것에 의아했다.

"네 아버님에게 안 좋은 소식이 있다."

당직관의 목소리가 깊게 내려앉았다. 어안이 벙벙해진 정규는 눈을 반쯤 뜨고 창문만 바라봤다. 눈보라는 사정없이 유리창을 내리치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바람은 강해졌다. 불길은 다시 활기를 띠고 옆으로 번져갔다. 공기호흡기의 잔압 경보음이 울었다. 산소통에 산소가 20%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산소통을 교체할 시간이 없었다.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금방이라도 탈진할 것 같았다. 다리가 풀렸지만 정규는 오기로 버텼다. 붉게 달궈진 철판이 정규 머리 위로 떨어졌다. 정규는 가까스로 철판을 피했다. 가구공장의 외벽이 무너지며 불똥이 정규의 어깨와 목에 떨어졌다. 그 과정에서 정규는 관창을 놓치고 쓰러졌다. 목과 등이 화끈거렸다.

정규는 오른쪽으로 번지는 불길을 막을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오롯이 본인의 몫이었다. 정규는 몸을 일으켜 관창을 낚아챘다. 그리고 번져가는 불을 향해 방수를 하기 시작했다.

"올 테면 와 봐라!"

왼쪽으로 불던 바람은 방향을 틀어 정규가 있는 오른쪽으로 달려들기 시작했다. 거세어진 바람을 타고 불길이 번져갔다.

"조심해!"

팀장의 고함소리가 들렸다. 순간 커다란 화마가 정규를 덮쳤다. 정규는 그만 눈을 감았다. 익숙한 냄새가 났다. 아버지 몸에서 나던 탄내였다. 말없이 술을 들이키던 아버지. 아버지의 어두운 그림자가 가물가물한 뇌리 속으로 밀려왔다.

눈을 떴을 때 새하얀 형광 불빛에 눈이 부셨다.

"정규야. 정규야! 이제 정신이 드니?"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눈이 빛에 적응할 때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렸다. 주렁주렁 달려있는 링거와 흰색 벽이 보였다. 어머니가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옆에 팀장이 정규를 바라보았다.

언제 정신을 잃었던 걸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정규는 몸을 일으키려고 애를 썼다. 어머니 옆에 있던 팀장이 정규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대로 누워 있어. 좀 더 안정이 필요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왜 여기 누워있습니까?"

"탈진을 해서 쓰러졌어."

정규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팀장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았다. 네 덕분에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었어."

"네?"

"링거를 맞고 며칠 있으면 퇴원하니까 다른 걱정은 하지 말고 푹 쉬어. 어깨에 있는 화상도 다행히 크진 않아."

팀장은 어머니에게 고개를 돌렸다.

"형수님 걱정 많이 하셨죠? 제가 정규를 잘 챙겼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애가 아버지를 닮아 워낙 고집이 세서…."

형수, 정규, 아버지…그들 사이에 오가는 익숙하면서도 생경스런 단어 속에서 정규는 아버지, 어머니와 팀장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서로를 알고 있는지 정규로선 알 턱이 없었다.

정규가 퇴원하던 날 팀장은 차를 타고 병원까지 마중 나왔다. 정규는 어쩔 수 없이 팀장 차에 올라탔다. 팀장이 운전을 하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정규가 팀장에게 물었다.

"팀장님은 제 아버지를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 각별한 사이였지. 왜 일찍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나? 내가 늘 이야기않더나. 내가 존경하는 형님이라고. 어쩐지 널 볼 때마다 형님 생각이 나더군. 난 소방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선배님 있잖아? 그게 바로 자네 아버지였어. 아버지 영결식에서 너와 여러 번 마주쳤을 텐데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다니, 나도 참 한심하네. 자네 아버지 영결식은 전국 각지 언론사에서 달려와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지. 네 아버님 이야기는 누구에게라도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어. 신문이고 텔레비전이고 다들 영웅이라고 말했지."

"그때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머리가 짧고 삐쩍 마를 때라 지금이랑 많이 달랐습니다. 저도 팀장님을 못 알아 봤는걸요."

“그래.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억하기 힘들었을 거야.”

정규는 아버지에 대해 많은 걸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물어볼 게 너무 많아서 말문이 막힌 느낌이었다. 웬일인지 팀장은 정규의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를 가는 겁니까?”

“너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팀장이 정규를 데리고 간 곳은 소방안전체험관이었다. 소방안전체험관은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했다. 차를 주차하고 두 사람은 푸른 잔디밭을 지나 B동으로 들어갔다. 2층으로 올라와 두 사람이 간 곳은 화재 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화재체험관이었다. 그곳에는 소방관이 현장에서 사용했던 장비가 나열되어 있었다. 팀장은 어떤 유리관 앞에 걸음을 멈췄다.

“자 바로 여기야.”

유리관 속에 방화복이 있었다. 방화복 본래의 색깔을 짐작하기 어려웠다. 불에 그을린 방화복은 짙은 검정색에 가까웠다. 곳곳에 구멍이 났고 화마와 싸운 흔적들이 고스란히 박혀 있었다. 까맣게 탄 헬멧은 보호안경까지 녹아서 그대로 달라붙은 채였다. 빛에 반사된 유리관이 반짝거렸다. 방화복을 설명하는 칸에는 뜻밖에도 아버지의 계급과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영웅의 방화복. 소방경 한경수. 화재 현장에서 어린 생명을 구하고 순직하다.

순간 뜨거운 눈물이 정규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디선가 요란하게 들려온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긴 여운을 남기며 멀어져 갔다.

접수번호	103	제 목	구조대는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명령이 떨어진다. 김철민 구조대장과 대원들은 물류센터 입구로 진입한다. 고압호수 물살이 불길을 세차게 밀어붙인다. 그러나 다음 순간, 굉음이 울려 퍼진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두 눈을 찔끔 감는다. 화재진압소방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압 때문만이 아니다. 불길의 광기가 너무나 강렬해 심장이 멈출 것만 같다. 대원들도 숨통을 바짝 조여 버릴 것 같은 공포가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온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만만찮은 구조작업이 될 거라는 걸 직감한다. 물류센터 내부엔 가연성 물질이 쌓여있다. 붕괴 위험도 상당하다.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계속 벌이고 있지만, 물류센터 내부가 불에 타면서 먹장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그나마 택배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박스와 비닐 등 인화성 물질이 많아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신고 접수 20여분 만에 관할 소방서와 인접한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 경보를 발령중이다.

문제는 또 있다. 사방으로 휘날리는 유독성 연기 때문에 1미터 앞도 분간이 되질 않는다. 좀처럼 볼 수 없는 대형 화제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대원들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다. 세찬 불길이 모든 걸 휩쓸어 버린다. 그 순간,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물류센터 건물이 흔들린다. 모든 상황이 최악이다. 하지만 지하1층으로 내려가야만 인명구조를 할 수 있다. 골든타임이 지나면 물류센터 직원들은 연기와 불길에 참변을 당할 것이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명령을 내린다.

"지하1층으로 진입한다."

대원들은 장비를 재점검하곤 구조작전에 돌입한다. 물류센터 지하1층엔 직원들이 패닉상태에 빠져 울부짖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유독성 연기가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더구나 불길이 지상으로 번져나간다. 물류센터 직원들의 얼굴엔 검은 재 가루가 뒤범벅이다.

김철민 구조대장이 신호를 보낸다. 대원들이 물류센터 직원들을 출입구로 안내한다. 세차게 밀려드는 불길에 직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비명을 내지른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비장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한다.

"물줄기가 출입구에 집중하면 그때 빠져 나가야해. 기회는 놓치면 모두 위험해진다!"

물류센터 직원들은 눈을 부릅뜨고 김철민 구조대장의 신호를 기다린다. 그가 고함을 지른다.

"지금이야! 빠져나가!"

물류센터 외부에선 화재진압소방차가 지하1층 출입구를 향해 집중적으로 물줄기를 쏘아댄다. 물류센터 직원들은 대원들의 안내에 따라 차례대로 지상위로 올

라선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린다. 지하2층에서 북받치는 비명소리가 들린다.

"도와주세요! 지하2층에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분명 구조를 요청하는 목소리다. 더러는 쇠뭉치로 두드려대는 소리도 들린다. 대원들도 뭔가를 두드리는 소리를 감지한 눈빛이다. 그들은 무엇에 홀린 게 아닐까 하는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본다. 대원들에겐 1초도 소중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가슴에 남을 것이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어금니를 악문다. 결코, 인명구조 포기란 있을 수 없다.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구조임무를 마쳐야 한다. 그는 지하2층을 향해 몇 사람이 있냐고 고함을 내지른다. 응답이 없다. 다시 한 번 외쳐본다. 그래도 대답이 없다.

"이런! 상황이 너무 촉박한데…."

김철민 구조대장의 가슴팍에서 주먹 같은 덩어리 하나가 곤두선다. 대원들도 숨을 죽인다. 방법이 없다. 그나마 지하2층에서 진한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그 순간, 지하2층에서 아스라하게 고함소리가 들려온다. 대원들의 눈동자에 긴장감이 감돈다.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다. 최악의 상황이다. 대원들이 김철민 구조대장을 가로막는다.

"너무 위험합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알아. 하지만 지하2층에서 구조를 요청하잖아. 내부를 살펴봐야겠어. 너희들은 지하1층을 구석구석 수색해봐. 어서!

"대장님을 혼자 보낼 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지! 너무 걱정 마."

김철민 구조대장은 대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지하2층으로 발길을 돌린다. 그는 구조대장이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끈질기게 구조 활동을 펼칠 임무가 있다. 맞다. 그는 언제나 소망한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소망한다. 그것 외엔 어떤 소망도 필요 없다. 하지만 지하2층 스프링클러는 이미 작동이 중단된 상태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내부를 수색한다. 불길에 달궈진 외벽과 내벽의 철제구조물 지지대가 한쪽으로 기웃해 있다. 상황이 심상찮다. 그는 20년이 넘도록 끔찍한 사건사고와 맞서고 있다. 다행인건 해를 거듭할수록 나약함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난간을 붙잡고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성난 불길은 모든 걸 녹여버린다. 그 서슬에 아뜩한 현기증이 밀려든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불길이 지하1층으로 솟구친다. 그 충격으로 천장마감재가 그를 덮친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지하2층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 몸을 일으켜 보려고 하지만 옴짝달싹 할 수 없다. 오른쪽 발목에서 끊어질 듯 통증이 밀려든다. 그는 안간힘을 다해 몸을 움직여본다. 구조대장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 몸을 굴리고 또

굴린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어금니를 악문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구조임무를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삶의 의욕이 솟구친다. 그가 외로울 때, 힘들 때, 위로해주는 가족이 있다. 맞다. 출동명령이 떨어지면 왠지 모르게 심장의 피돌기가 빨라진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출동할 곳이 생긴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한편으론 아내가 마음에 걸린다.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다.

2

김철민 구조대장은 눈을 부릅뜨고 지하2층 내부를 휘휘 둘러본다. 물류센터의 흔들림은 한층 더 강도가 심해진다. 그는 크게 소리를 질러 본다. 어찌된 영문인지 목소리는 입안에서만 맴돌 뿐이다. 그 대신 귓속으로 아내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려온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절대 눈감지 말아요.’

김철민 구조대장은 환청인줄 알면서도 주위를 살펴본다. 어떤 사물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캄캄하다. 다만, 불에 달궈진 철재구조물이 물길에 식으며 뿜어대는 소리가 소름끼치게 들려올 뿐이다.

‘정신 차리세요! 힘을 내세요!’

다시금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번엔 아내의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해서 두 손을 번쩍 치켜들고 허공을 향해 내젓기까지 한다. 정말이지 아내의 얼굴이 눈앞에서 어른거린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놀빛처럼 사위어 가는 의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어금니를 악문다. 금방이라도 안전로프를 타고 아내가 지하2층으로 내려올 것만 같다. 하지만 실낱같은 의식조차 깡그리 사라지기 직전이다. 그나마 거센 불덩이가 성질머리를 부릴 때마다 철제구조물이 점점 더 기울어진다. 불빛의 까물거림과 음산한 유독연기사이에 야릇한 상관관계가 있는 듯싶다. 불타는 소리의 길고 짧음이나 끊일락 이을락 이어지는 불빛의 까물거림이 상응하고 있다. 그것들은 점차 김철민 구조대장의 들숨날숨이 된다.

그는 손아귀에 힘을 준다. 물줄기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온다. 그 물줄기소리는 일렁이는 불덩이를 향해 둥둥 떠가고 있다. 그 순간, 무슨 소리가 얼핏 귓가를 스친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숨을 죽인 채 지하2층을 휘휘 둘러본다. 거무스레한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 그것은 먹장연기 저쪽에서 어릿거리는 환영이 아니다. 분명 사람이다. 사람의 움직임이 불기둥 사이로 어렴풋하게 비쳐 보인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숨을 크게 들이쉬곤 일렁이는 불길을 노려본다. 불길은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르다. 잔잔한 웃음을 띠기도 하고, 찡그리기도 하고, 거대한 불덩이를 외틀기도 한다. 더러는 발기하듯 치솟아 올라 성질머리를 부린다. 불덩이가 쓰러져 있는 사람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질 것만 같다. 맞다. 성난 불길은 그

악스럽다. 게다가 유독연기가 물류센터 내부를 집어삼킬 듯이 세차게 일렁인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아랫입술을 꼭 깨문 다부진 표정으로 꿈틀거리는 사람을 응시한다.

그는 20년이 넘도록 구조현장을 누벼왔다. 비상이 걸린 날이면 출퇴근 없이 소방서에서 먹고 잔다. 거기엔, 험한 사고현장과 대거리하는 대원들의 가쁜 숨결이 녹아있다. 더러는 불길을 보듬고, 더러는 폭풍우에 채이면서 대한민국 안전을 지켰다. 그렇다. 그의 몸에선 언제나 메케한 냄새가 맡아진다. 연기에 찌든 탓이다. 상황에 따라 다른 임무가 주어지고 수많은 출동 명령이 내려진다. 세상은 충분히 복잡하고 유기적이다. 그는 메케한 냄새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신경을 곤두세운다. 한 번의 실수는 곧 죽음의 통로와 연결된다. 재난현장이란 그런 곳이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쓰러져 있는 여자에게 접근한다. 검은 연기가 일제히 꼭지를 말아 올린다. 그 서슬에도 몇 번의 접근을 시도해보지만 실패하고 만다. 그는 검은 연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저 연기 밑으로 몸을 최대한 낮추고 이쪽으로 포복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먹장연기 등성이 사이를 헤집기도 하고, 아슬아슬하게 불길을 피하기도 한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밧줄을 내던진다. 여자는 유일한 생명의 끈인 밧줄을 잡으러 안간힘을 쓴다. 그때다. 거대한 불덩이가 검은 연기를 뿜어댄다. 여자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른다. 그는 어지러운 분탕질 속에서 힘껏 밧줄을 끌어당긴다. 불길은 더욱 드세어지고 그 드센 불길에 날려 온 재 가루가 그의 동공을 후벼 판다. 그 여파로 동공엔 흰자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핏발이 선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눈을 부릅뜬다. 뱀의 꼬리처럼 길게 늘어뜨린 죽음의 그림자를 잘라내야 한다. 다행이다. 대원들의 고함소리와 신호음이 들려온다. 그는 극심한 현기증을 느끼며 몸을 일으킨다. 오른쪽 발목에서 강렬한 통증이 느껴진다. 온몸의 기력이 불길로 빨려 들어가 버릴 것만 같다. 그가 원하는 건 그 일련의 사건들이 그저 하룻밤의 악몽으로 증명되는 거다. 꿈에서 깨어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어제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 불길 속 산소보다 희박하다. 화마 앞에선 어떠한 생명체도 오래 견뎌낼 수 없다. 그나마 여자의 머리에서 핏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끔찍한 생존전쟁을 치룬 모양이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비치적거리며 여자의 상처부위를 확인한다.

"이봐요? 정신 차리세요."

여자는 일그러뜨린 얼굴 근육 하나 꿈쩍하지 않는다. 그가 다시 몸을 흔들어도 마찬가지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여자의 맥박을 짚어 본다. 미세하게 피돌기를 하고 있다. 그 순간, 지하2층 입구에서 철제구조물이 서걱거리는 소리는 낸다. 그

사이로 누군가 고함을 질러댄다. 하지만 울림 때문에 똑똑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는 계단난간을 눈으로 더듬는다. 거뭇거뭇한 연기가 점점 더 진해지고 있다. 여자의 동공엔 두려움이 깃들어 패닉상태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고개를 쳐든다. 반짝 되쏘는 불빛 때문이다. 맞다. 휘황한 불빛이 쏟아지다 사라지길 반복하고 있다. 문제는 여자다. 금방이라도 쇼크를 일으킬 것 같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난간을 가리킨다. 여자는 소름이 돋는 눈빛으로 고개를 내젓는다. 어쩌면 죽음의 공포를 느꼈는지도 모른다.

"여기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자를 남겨두고 혼자 갈수는 없다. 게다가 불길이 거칠어지고 있다. 눌눌한 유독연기는 금방이라도 지하2층을 덮칠 상황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죽음뿐이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여자에게 산소 호흡기를 씌우고 출입구로 걸음 한다. 한 발짝 내디디는 순간 철제계단이 휘어진다. 세찬 불길에 강도가 약해진 탓이다. 발아래엔 불덩이가 울뚝불뚝 융기하고 있다. 그 상황을 힐끔거리던 여자가 눈을 치켜뜨며 고개를 내젓는다. 불길이 지하3층 외벽을 타고 빠르게 올라오는 중이다. 시간이 없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여자를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기력을 잃은 여자를 이끌고 지하2층을 빠져나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환풍기 창을 응시한다. 불빛이 얼핏 스치고 간다. 분명, 불빛이다. 그 순간, 의식이 몽롱해진다. 서 있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서 빛이 마구 소용돌이친다. 그는 필사적으로 난간을 붙잡는다. 그대로 지하3층으로 떨질 것만 같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간신히 여자를 붙들고 걸음을 옮긴다. 어둠 속에서 빛이 부침하면서 신호를 보내오고 있다. 무수히 일어나는 눌눌한 연기는 빛과 함께 넘실거린다. 그 먹장연기에 가려서 서치라이트 광선은 보였다 사라지길 반복한다. 그 순간에도 불길은 지하3층 외벽을 타고 모든 걸 집어삼키고 있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안간힘을 쓰며 지하2층 출입구까지 이동한다. 그러나 대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는 여자를 부축하곤 지하2층 철제문을 밀어본다. 그들은 반사적으로 뒷걸음질을 친다. 속 보이는 짓을 하는 먹잇감을 노려보기라도 하듯 불덩이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 맞다. 불길은 그들의 의중을 뚫어보기라도 하듯 강렬한 불꽃을 피워 올린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손아귀를 거머쥔다. 그 사이에도 불길은 계속해서 으르렁거리고, 검은 연기를 들끓게 만든다. 그대로 한입에 삼켜버릴 기세다. 정말 그렇다. 세찬 불꽃이 미친 듯이 솟구친다. 지하2층 출입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다. 어쩌면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의 심장을 옭아매고 있는 줄도 모른다. 그 죽음의 그림자를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끌려 들어가고 있는 듯싶다. 불덩이가 그들에게 눈독을 들이는 한, 벗어날 방법은 없다. 대원들도 지하2층으로 진입하기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그나마 불길에 검게 뒤집힌 먹장연기와 그 위를 타넘는 불꽃도 맹렬하기는 마찬가지다.

여자가 부르르 몸을 떤다. 그녀의 동공엔 붉은 불꽃을 토하며 솟구치는 불덩이가 담겨져 있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가슴팍에서 뜨거운 불덩어리가 불끈 일어선다.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힘을 내세요!"

여자가 고개를 가로젓는다. 그도 그럴 것이 드센 불길이 지하2층 출입구를 벌겋게 달군다. 그 세찬 기세에 출입문이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것만 같다. 빠져 나갈 방법이 없다. 그는 지하2층 내부를 구석구석 둘러본다. 하나 남아있던 비상등이 빛을 잃지 않고 있다. 다행이다. 빛은 희망의 끈이다. 맞다. 안전을 위해 살아온 그다. 두려울 것이 없다. 하지만 여자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있다. 분명 두려움에 떨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과 당혹감에 지쳐버릴 것이다. 지치면 무력해지기 마련이고, 그 무력감은 꽤 오랜 동안 몸져눕게 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같은 기적을 바라는 그들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 소망 속에 함께 두려움을 숨기고, 그 소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 그 소망과 희망엔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한다.

3

김철민 구조대장은 젖은 호주머니에서 헤드램프를 꺼낸다. 그가 소망하는 기적, 그것은 제로에 가까운 희망이다. 왜냐하면 기적이란 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빌어지는 간절함이다. 더러는 실바람에도 송두리째 마모되어버릴 수 있다. 그럼에도 선택받은 마지막 사람이 되길 소망한다. 맞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그리 길지도 않은 인생동안 수많은 생명을 구해냈다. 그 중의 절반 이상은 절망의 상태에서 희망을 선물했다. 재난구조 현장에선 똑같은 상황은 하나도 없다. 그곳엔 언제나 기도와 기적이 존재한다. 평소에 신에게 기적을 기도드리지 않는 사람도 신을 찾게 된다. 죽음 앞엔 언제나 신이 존재하는 법이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이런 불상사가 왜 반복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늘 예방하고 늘 준비하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이 남아있다. 늘 예방하고 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경제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세상은 충분히 유기체 적이고 변화무쌍하다. 짐작했겠지만 김철민 구조대장은 직업정신이 투철한 대원이다. 그는 벌어진 사건을 묵묵히 수습하는 구조대장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예방하는 쪽에 가깝다. 소방공무원이 된 후로 구조 활동에 인생을 바쳤다. 때로는 한여름 장마폭우에 불어난 계곡물처럼 조급하게, 때로는 한겨울 얼음 밑을 더디게 흐르는 차디찬 물처럼 구조업무에 매달렸다. 지금은 목숨 줄을 걸고 인명구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구하는 일,

그게 김철민 구조대장의 숙명이고 보람이다. 그게 다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어 선다. 뭔가를 붙들지 않으면 서있을 수 없을 정도로 물류센터 건물의 진동이 심해진다.

‘대원들은 지금쯤 어디를 수색하는 걸까?’

그 순간, 물류센터 건물이 크게 기운다. 그 여파로 여자가 비명을 내지른다. 건물이 이러 저리 뒤흔들린다. 그들은 난간을 붙잡고 겨우 버틴다. 계속되는 진동과 갑작스럽게 요동치는 출렁거림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 진동은 가라앉을 기색이 없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귀를 기울여 본다. 물류센터 건물의 삐걱거림이 차쯤 가라앉는다. 잠시 뒤, 휘황한 불빛이 지하2층 내부를 채운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천장을 응시한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요동친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움직여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는다. 그때 지하1층에서 울림이 전해진다.

그는 쇠꼬챙이를 들고 철제구조물을 두드린다. 신호음이 길게 전달된다. 한 번, 두 번, 세 번….쉼 없이 일정한 구조신호를 보낸다. 가슴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가 솟구친다.

‘두 달 동안 생리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임신이라네요.’

물류센터로 화재현장으로 출동하기 전, 아내가 그에게 한 말이다. 며칠 내내 정신없이 잠이 쏟아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날밤을 지새운다고 했다. 살아야 한다. 짧고 명확한 아내의 임신소식이다. 정말이지 아이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고 싶다.

아내와 아이생각에 눈물이 체면 없이 흘러내린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간다. 여자가 쭈그려 앉아 두 손으로 물을 뿌리는 시늉을 하고 있다. 그는 여자가 정신 줄을 놓기 전에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는다. 그렇다. 그에겐 해야 할 임무가 있다. 더는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화마가 여자에게 상처를 남기거나 훼손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더구나 동료들에게 도움을 받을 상황도 아니다. 혼자 해내야 한다. 맞다. 그에겐 지금당장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리고 그도 살아남아야 한다. 몇 달 있으면 아내의 자궁 속에서 목숨을 지탱하던 어린생명이 싹을 틔울 것이다. 그 생각에 목이 메어 온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가족만 생각해도 심장의 피돌기가 빨라진다.

그때다. 어떤 울림이 들린다. 그 진폭이 점점 더 넓게 퍼져온다. 어떻게 들으면 쇠뭉치로 두드려대는 소리 같기도 하다. 여자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녀도 뭔가를 두드리는 소리를 감지한 눈빛이다. 그들은 무엇에 홀린 게 아닐까 하는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한동안 마주본다.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니다. 그들은 마치 밀폐된 공간에 갇혀 숨이라도 덜 내쉬며 공기를 아껴보려는 심정으로 지하1층을 응시한다. 그들에겐 1초가 소중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가족과 영영 이별이다. 대원들도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무슨 소리가 다시 들린다.

"텅! 텅! 텅!"

그들은 고개를 돌린다. 분명 지하1층이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정신을 가다듬고 귀를 기울인다.

"그래, 지상에서 지하층으로 철판을 제거하는 중이야. 절단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이 틀림없어. 분명 그럴 거야."

김철민 구조대장은 충혈 된 눈으로 여자의 얼굴을 건너다본다. 말이 필요 없다. 그들은 동시에 걸음을 옮긴다. 순간, 신선한 공기가 맡아진다. 현명한 판단이다. 무리하게 수색을 하다간 대원들이 위험해 질수도 있다. 김철민 구조대장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곧 환하게 펴진다. 동료가 동료의 몸을 끌어안고 몸을 떠는 이유를 잘 알고 있는 탓이다. 그 상황만 생각해도 온몸이 저릿저릿해진다.

그는 고개를 돌려 여자를 바라본다. 동공이 충혈 되어 있다. 지치면 무력해지기 마련이고, 그 무력감은 꽤 오랜 동안 몸져눕게 할지도 모른다. 안타깝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긴다. 여자가 몸을 옹송그리며 그의 옆구리를 파고든다. 지하1층에서 울려 퍼지는 절단작업소리가 심장박동을 빨리한다. 그도 그럴 것이 지하2층 천장사이로 절단불꽃이 보인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여자를 부축하고 철제난간을 오른다. 여자의 움직임이 굼뜨기만 하다.

"조금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혹시 철판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모퉁이로 피해 있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는 그렁한 눈길로 지하1층을 응시한다. 처음엔 미약했지만 빈 공간을 흔드는 울림이 느껴진다. 다시금 귀를 기울여 본다. 높고도 웅숭깊은 소리가 한동안 이어진다. 그 순간, 일단의 굉음과 함께 물류센터 건물이 크게 요동친다. 어떤 뒤틀림이 발밑을 훑고 지나가고 순간적으로 몸이 기울어진다. 물류센터 건물이 빠르게 기울어지는 중이다. 구조작업이 조금이라도 지체된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상황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그는 어금니를 악물고 여자를 부축한다. 지하2층에서 생존한 여자를 발견한 것도, 이곳에서 갇힌 것도 구조대장으로서 임무를 완수하려는 사명감 때문이다.

구조작업이 막바지 단계다. 마침내 지하2층 천장철판이 들려진다. 상쾌한 공기가 콧속으로 밀려든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고개를 치켜든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지하2층을 환하게 비춘다. 그는 목청이 터지도록 고함을 지른다.

"생존자 1명 구조! 나도 무사하다!"

굵은 물줄기 사이로 환한 불빛이 지하2층으로 쏟아진다. 불에 달궈진 철판이 불빛을 되쏘아 댄다. 불기둥이 미친 듯이 너울거리지만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그들은 계단을 따라 걸음을 옮긴다. 여자가 그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이곳과 저곳, 현실과 비현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진 눈빛이다.

"조금만 견디세요. 구조대원이 곧 내려올 겁니다."

“천상에서 천사가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거겠죠?”

여자의 말투가 적막한 여운을 남긴다. 그것은 환희의 말이다. 그 순간, 강렬한 빛줄기가 보인다. 그 빛살 안에서 움직임이 일더니 춤추듯 원을 그린다. 분명 소방구조헬기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아랫입술을 들어올린다. 그때서야 여자의 얼굴에서도 희망의 미소가 떠오른다. 그들은 그 빛줄기를 움켜잡으려는 듯 두 손을 꼭 맞잡는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눈을 크게 뜨고 위를 살핀다. 빛과 어둠이 뒤섞여 눈이 부시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곤 목이 메어 버린다.

‘두 달 동안 생리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임신이라네요.’

물류센터 화재현장으로 출동하기 전, 아내가 전한 말이다. 천상의 아리아보다 더 아름다운 그녀의 성스러운 말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책상에 가지런히 놓인 육아책 표지가 머릿속으로 떠오른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아기가 서로 마주 보며 막 웃음을 터뜨리는 사진이다.

강력한 빛의 세례가 쏟아진다. 강력한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도 들린다. 여자가 안간 힘을 쓰며 그의 손을 꼭, 붙잡는다. 그리곤 흐느껴 울기 시작한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안개처럼 흩어지는 순간이다. 진하게 드리워진 먹장연기 속에서 구조대원이 ‘자동등강기’를 타고 내려온다. 그는 구조대원에게 여자를 인계한다. 가슴팍이 싸르락거린다. 여자는 소방구조헬기에 안전하게 탑승한다. 그 먹장연기 사이로 구조대원의 말이 선명하게 울려 퍼진다.

“생존자 1명 구조!”

대원들이 환호성을 지른다. 하늘에서 또 다른 소방구조헬기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불기둥이 물류센터 중앙으로 옮겨 붙는 중이다. 그렇다면 구조 활동에 한계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더구나 거대한 먹장연기가 하늘 높이 솟구치면서 소방구조헬기를 덮친다. 프로펠러와 엔진도 힘겨운 소리를 낸다. 눌눌한 먹장연기는 소방구조헬기를 집어삼킬 듯이 위협적으로 솟구친다. 그 서슬에도 소방구조헬기는 유독연기를 뚫고 물류센터 건물 위를 선회하기 시작한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소방구조헬기를 응시한다. 예리한 바늘 같은 물줄기가 지하2층으로 쏟아져 그의 눈동자를 두들겨댄다. 소방구조헬기는 동체가 심하게 흔들리지만 거멓게 타버린 물류센터 건물 아래로 조금씩 내려온다. 소방구조헬기에 탑승한 구조대원이 ‘자동등강기’를 타고 내려온다. 검은 연기가 일제히 꼭지를 말아 올린다. 구조대원은 김철민 구조대장을 끌어 올려 보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 커다란 불덩이를 만들어낸다. 소방구조헬기가 다시 고도를 높인다. 구조대원은 몇 번의 구조를 시도해 보지만 실패하고 만다. 거대한 불덩이는 지하2층과 지하1층 사이를 가로지르기도 하고, 하늘 높이 솟구치다가 아슬아슬하게 자자들기도 한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숨을 쉴 수가 없다. 젖은 옷에서 수증기가 피워 오른다. 그도 모르게 가슴 밑바닥에 눌러두었던 기도가 입

밖으로 터져 나온다. 신의 음성은 그에게서 너무 멀지만 영혼의 귀는 언제나 열려있다. 맞다.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그다.

구조대원이 다시 구조 활동을 벌인다. 엄청난 불덩이가 구조대원과 그의 사이를 벌려놓는다. 물류센터 건물은 구릿한 유독성 먹장연기를 머리칼처럼 풀어낸다. 그는 유일한 끈인 구조대원의 손길을 잡으러 안간힘을 쓴다. 구조대원은 눈에 핏발이 서도록 불덩어리를 노려본다. 그렇다고 구조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때다. 바람의 끝자락에 어떤 울림이 끌려오는 것 같다. 그것은 끊어지다 이어지기를 반복하며 귓가를 스친다. 소방구조헬기가 고도를 낮출수록 그 진폭이 넓게 퍼져온다. 구조대원은 휘둥그레진 눈으로 물류센터 내부를 휘둘러본다. 그도 놀란 모양이다. 거대한 먹장연기와 불덩이가 지하3층에서 지상으로 밀어붙이는 소리다.

구조대원은 그에게 비상철제계단을 가리킨다. 터무니없는 판단은 아니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민첩한 동작으로 비상철제계단을 오른다. 맹렬한 먹장연기가 그를 집어삼킨다.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구조대원이 소방헬기조종사에게 질문을 던진다.

“연료는 충분합니까?”

“5분 후에는 돌아가야 합니다.”

구조대원은 물류센터 내부를 살핀다. 세찬 불덩이가 출렁거릴 때마다 먹장연기가 솟구친다. 구조대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어금니를 깨문다. 더 이상 머뭇거리다간 김철민 구조대장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른다. 게다가 물류센터 철재구조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연료도 얼마 남아있지 않다. 그의 얼굴엔 안타까운 표정이 역력하다.

김철민 구조대장은 시커먼 먹장연기에 가려져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구조대원은 비장한 표정으로 구조용 밧줄을 비상철제계단으로 내던진다. 그와 동시에 소방구조헬기가 한쪽으로 기웃해지는가 싶더니, 잇달아 덤벼드는 거대한 먹장연기로 말미암아 심하게 휘정거린다.

대원들은 그 광경을 보곤 눈물을 흘린다. 그렇다. 그들은 어지러운 분탕질 속에서 거수경례를 붙인다. 김철민 구조대장에 대한 마지막 예의다. 먹장연기는 더욱 드세어지고 그 드센 먹장연기에 날려 온 재 가루가 그들의 시야를 가린다. 그때 하늘에서 휘황한 불빛이 쏟아진다. 대원들은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두리번거린다. 또 다른 소방특수구조헬기다. 소방특수구조헬기 조종사는 열감지기 장치를 확인한다. 하마터면 열감지기에 비친 생명체의 움직임을 관찰하지 못할 뻔했다. 분명 비상철제계단에서 작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물류센터 지하2층 비상철제계단에서 생존자 발견! 다시 반복한다. 물류센터 지하2층 비상철제계단에서 생존자 발견! 지금 즉시 구조 활동에 들어가겠다! 이상!”

소방특수구조대원이 목표를 확인하고 몸을 날린다. 검붉은 불덩어리가 먹장구름과 함께 솟아오른다. 대원들은 소방특수구조헬기를 응시하곤 어금니를 악문다. 물류센터는 거대한 짐승이 입맛 다시는 소리를 내고 있다. 무엇인가 설명될 수 없는 악마적인 힘이 화마를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소방특수구조대원이 비상철제계단으로 몸을 날리지 1분이 넘어서고 있다. 상황이 아주 심각해진다. 그나마 바람이 북동풍으로 변한다. 그 여파로 시커먼 먹장연기가 마구 뒤틀어 오른다. 먹장연기가 커다랗게 부풀어 올라간 순간, 대원들은 숨을 죽인다.

이제 대원들은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받아 들여야 한다. 기적은 더 이상 없다. 그래도 기도는 계속 되어야 한다. 신이 대원들의 기도소리를 직접 들을 때까지 김철민 구조대장의 심장은 계속해서 피를 뿜어낼 것이다. 대원들의 동공에 물기가 비치고 핏발이 팽팽하게 날을 세운다. 그러나 그 순간, 휘황한 불빛 속에서 소방특수구조대원이 김철민 구조대장을 붙들고 허공으로 솟구친다. 대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만세를 부른다. 휘황한 빛의 세례다.

접수번호	149	제 목	비가 오면 좋겠네요

늦은 봄비는 1층 중앙 로비의 소리를 눌러 잡았다. 코로나 때문에 민원 업무가 1층 간의 책상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평소와는 다른 높은 웃음소리가 간드러지게 울렸다. 소방서에서 듣기엔 낯설고도 설레는 소리였다.

"안녕하십니까. 예방과 소방사 김성준입니다. 죄송하지만… 1층 로비에서 진행중인
소방 포스터 대회 투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가 사무실을 나간 후 센터장은 대표로 팀 막내에게 다녀오라 지시했다.

강수는 스티커를 들고 로비에 가만히 서있었다. 그림을 얹은 열 서너 대의 이젤이 둥근 형태로 놓여있었다. 작품의 주인공들은 초등학생 아이들이었다. 강수는 둘러 보지도 않고 스티커가 가장 많이 붙은 그림 앞으로 다가갔다. 그림 속은 치열했다. 소방관은 건물 앞에서 작은 관창을 잡고 거대한 불길을 향해 방수했다. 강수에겐 단지 한 폭의 허구에 불과했다.

로비 옆 대회의실에서 김 반장이 아이들을 불렀다. 복도에서 서로의 그림을 평가하던 아이들이 대회의실 뒷문으로 우르르 들어갔다. 물소들이 휩쓸고 지나간 사바나의 한바탕 소동 같았다. 구식 건물에 쌓여있던 먼지들은 뿌연 모래바람을 만들고 고요한 공기 소리만 떠다녔다. 강수도 사냥감을 놓치고 제 집으로 돌아서는 치타처럼 사무실 쪽으로 몸을 돌렸지만 움직일 순 없었다. 대열에서 이탈해 아빠를 기다리는 어린 물소가 서있었기 때문이다.

"저… 아저씨"

많아봐야 초등학교 3학년 쯤으로 보이는 학생이 강수에게 쭈뼛쭈뼛 말을 건넸다. 강수는 한두 번 두리번거리고 나서야 로비의 아저씨가 자신임을 알았다.

"혹시 이 소방관 아저씨 누군지 알아요?"
학생은 그 그림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굴 말하는 거니?"

강수의 질문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그림 속엔 어떤 사람도 없었다. 물감을 덧칠한 탓에 중구난방으로 울퉁불퉁한 질감이 난무한 검은 바탕 뿐이었다. 그나마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오른쪽 아래 모서리 쪽에 검은 물감이 번져 진해진 회색의 공기호흡기 한 개 정도였다.

"저 공기통 주인이요."

강수는 학생이 무언가를 알고 말하는 지 의심했다. 사실 강수가 이 그림 앞에 다가온 이유도 학생과 같았다. 희미하게 기울어진 공기 호흡기에 적힌 번호나 이름을 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형체만 어렴풋이 남아있을 뿐 주인을 식별할 순 없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왜 찾는 거니?"
"이 그림 주고 싶어서요."
학생은 눈을 한번도 깜박이지 않고 강수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선 주인을 찾겠다는 결의가 보였다. 그의 눈은 슬프지 않았다. 그의 눈에 맺힌 강수의 눈만이 울고 있었다. 강수는 절대 찾고 싶지 않았던 그 아이를 직감적으로 마주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강수는 알고 있었다. 학생은 절대로 그림을 주인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다행히 김 반장이 강수를 잠시 그림 속에서 벗어나게 해줬다. 포스터 대회와 관련한 교육 영상을 빌미로 학생을 대회의실로 데려갔다. 다시금 사바나의 적막이 찾아왔다. 불타는 사바나의 태양에 강수는 주저 앉았다. 일부러 지워버렸던 그날이 그를 쑤시기 시작했다.

구조대의 그날 점심은 간만에 조용했다. 막내인 강수는 제육볶음을 두 번째 식판에 받아왔다.
"차장님, 매일 오늘처럼 밥 먹을 땐 출동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수의 웃음에 종호는 그의 머리를 살짝 때렸다.
"오늘 너 때문에 큰 거 하나 나가겠다."
종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화재 출동 벨이 울렸다.
"너 이 새끼 내가 말했지! 이따 보자 넌"

구조공작차 안은 유난히 번잡스러웠다. 평소라면 농담을 하면서 긴장을 풀어주던 종호마저 말 한마디 없이 장비를 점검하며 착용했다. 현장 도착까지 2㎞ 정도 남았을 때 전방에 검은 연기가 보였다. 그제서야 종호는 입을 열었다.
"공기 떨어지면 무조건 나와서 새로 갈고 들어가야 된다."
강수도 분위기가 다름을 인지했다. 각자 개인용 플래시를 점검하고 면체를 썼다. 강수의 두려움과 다르게 팀장은 차선 바꾸기와 급제동을 반복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달렸다. 매달린 장비처럼 강수의 몸도 흔들렸다.
현장엔 이미 여러 센터에서 출동한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로 가득했다. 게다가 수많은 인파가 몰려 아수라장이었다. 창고의 입구는 지상 꼭대기 층까지 화염이 일렁였다. 지하2층부터 지상4층까지의 3차원 건물은 단숨에 불타는 평면이 되었다. 검은 연기에 숨어있는 창고의 끝은 마치 직접 걸어 가야 보이는 지옥 같았다.
구조대는 일사불란하게 동력 절단기와 빠루를 들고 입구 외벽에 방수 중인 선착대로 향했다. 그마저도 스파크가 일면서 폭발음이 터질 때마다 한걸음씩 뒤로 가야만 했다. 강수 역시 종호를 뒤따라가다 경방들과 함께 멈칫했다. 방화복을 뚫는 열기에 강수는 발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빨간 헬멧을 바라보는 시선이 강수를 앞으로 몰아쳤다. 구조대의 자부심이자

구조대만이 움직일 수 있는 순간이었다.

"종호야 지상은 보다시피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희미하지만 사이렌 소리와 함께 현장 지휘자와 종호가 말을 주고 받았다.

"지하는 가능합니까?"

"30분 정도만 될 거 같다. 아직 건물 붕괴는 없으니까. 문제는 지하 출하장이 구조물에 눌려서 계단으로 진입해야 해."

종호는 빨간 헬멧을 벗어 창고를 잠시 바라봤다. 강수가 속으로 외치는 절규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종호는 곧장 빨간 헬멧의 끈을 당기고 지시를 내렸다.

"강수는 가서 라이트라인 가져오고 서준이랑 용준이는 가서 호스 네 본 가져와."

강수는 라이트라인을 들고 오면서도 헬멧의 색깔이 바뀌길 바랐다. 서준과 용준은 구조 팀장과 함께 지하 1층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기로 했다. 강수와 종호는 상황에 따라 지하 2층을 빠르게 훑기로 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엔 화염이 보이지 않았지만 농연 탓에 진공 속 우주였다. 강수는 분명 산소를 마시고 있음에도 숨이 막혀왔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자신이 한 발자국 나아갈 때마다 반짝이는 라이트라인의 희미한 불빛 뿐이었다. 처음으로 죽음의 숨소리를 들었다.

내려온 계단의 출구는 처음엔 한 줄기의 희망 같았다. 강수의 착각이었다. 지하 1층은 화염에 온갖 것들이 녹아 내렸다. 차라리 보이지 않는 암흑이 선명하게 울렁이는 강수의 눈동자보다 밝았다. 각자 한 손에는 호스를 쥔 채 방어주수를 하며 빠루로 앞을 쳐냈다.

지하 1층은 도대체 뭘 품고 있던 공간인지 짐작 조차 할 수 없게끔 타고 있었다. 하나 확실한 건 수많은 가연성 물질로만 가득하다는 것이다. 포장재의 비닐과 박스를 비롯해서 판넬로 된 선반과 외벽은 휘날리는 물을 피하지도 않았다. 강수는 종호와 지하 2층으로의 입구를 찾았다. 팀장과 다른 구조 대원들은 세 줄로 나누어 각자의 구역을 직선으로 수색했다. 화장실과 직원들의 휴식 공간으로 추정되는 작은 방까지 문을 부셨다.

강수도 종호와 크게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어 2층으로의 진입로를 찾았다. 훈련이 아닌 현장에서 홀로 움직이는 것이 처음이었다. 강수는 속으로 훈련은 거짓임을 원망하며 두려움과 싸웠다. 동료를 믿고 뜨거운 어둠 속에서 요구조자를 구한다라는 훈련에서의 기본이 무너졌다. 그렇다고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시간과의 사투에서 종호의 뒤만 따라다닐 수는 없었다. 분명 무전기로 서로의 소리를 듣고 뿌옇지만 선배들의 플래시가 보였다. 하지만 그에겐 어떤 용기도 되지 못했다. 강수는 그저 무서웠다. 넓은 창고에서 자신의 구조 행위는 의미 없는 깔짝거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눈은 서서히 멀어지는 종호의 모습을 바라보며 걸음

은 타오르는 불길을 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수는 희망의 소리를 들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요구조자의 비명이 아니었다. 삐익 소리가 스타카토로 울렸다. 강수의 공기호흡기가 교체를 요구했다. 평소라면 한번에 30분 이상은 충분히 쓰는 공기의 양이지만 들어오기 전부터 긴장했던 그는 15분만에 다 써버렸다.

"강수야 공기 갈고 내 쪽으로 와라."

종호의 무전이었다. 강수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전국적으로도 명성이 자자한 종호였지만 어떻게 멀리서 자신의 공기호흡기 소리까지 들었는지 의문이었다. 한편으론 소리의 주인이 자신임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수는 잠시 극도의 안정감을 가졌다.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으니까. 강수는 마음만 빠르게 어둠의 계단을 다시 올랐다.

밖은 난장판이었다. 주변 인근 시의 센터에서도 지원 출동이 왔다. 수많은 경방들이 외벽에 물을 쏘고 방송국 차량도 몇 대 보였다. 강수는 면체를 잠시 벗고 공기호흡기를 새 것으로 갈았다. 벨크로를 아무리 풀었다 조였다 해도 마음과 다르게 순식간에 지옥에서의 30분이 그에게 주어졌다. 열 대 이상의 탱크차에서부터 여러 대의 펌프차까지 연결된 호스들을 밟아가며 그는 다시 입구로 걸어갔다. 들어가기 전보다 창고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다. 지상은 건물 전체가 타고 있어서 진입이 불가능했다. 지나가면서 들리는 무전과 지휘관의 말에 따르면 소방 헬기를 기다리는 듯 했다. 강수가 원하던 말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다. 지하로 들어가기 직전 그는 지휘관에게 물었다.

"공기 바꾸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가 아니었다. 강수는 정말 묻는 것이었다. 내가 들어가도 되겠냐고. 하지만 빨간 헬멧에게 허락된 공포는 없었다.

"그래. 조심하고."

다시 내려가는 지하 계단은 여전히 어두웠다. 사이렌 소리는 희미해지고 강수의 숨소리만이 적막을 채웠다. 다만 화염이 점점 번져가는지 계단의 중간부터 지옥의 빛이 강수를 유혹했다. 강수는 무전기의 탈출 소리에만 집중할 뿐이었다.

지하 1층은 조용해서 무서운 사바나였다. 늠름한 사자도 없었고 도망치는 얼룩말도 없었다. 신이 만든 잔인한 지옥이었다. 빨간 헬멧들은 푸른 빛의 초원으로 달릴 수 있는 문을 지나쳐야 했다. 강수는 서둘러 종호 쪽으로 향했다. 불길에 번쩍이는 종호의 까만 방화복을 보며 강수는 죄책감이 들었다.

"죄송합니다. 이번엔 천천히 호흡하겠습니다."

"시끄럽다. 저기 보이지? 잘 붙어서 따라와."

면체에 가려져 종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만은 강수의 눈에 뚜렷이

반사됐다. ‘119구조구급센터 박종호’, 앞서가는 종호의 등에 붙은 그의 의지만은. 하지만 강수는 종호의 두려움은 알지 못했다. 계단 몇 개를 내려가다 자신 쪽으로 한번씩 돌아보는 그의 눈빛에서 타오르는 공포를.

지하 2층의 입구에서 강수는 지옥의 끝에 도착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1층과 달리 세상의 어떤 빛도 사물도 존재하지 않았다. 화염은 없었지만 검은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암흑 그 자체였다. 검은 구름을 부술 수 있는 어떤 도구도 없었다. 순간적으로 강수는 뒤를 돌아봤다. 뒤를 돌아본 건 강수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가 떨며 서있는 곳은 앞과 뒤가 없었다. 강수는 오히려 검은 구름의 무게까지 느끼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짓누르는 연기의 무게는 지독하게 가벼웠다. 빠르게 강수의 뼈를 깎으며 서서히 뭉개 버렸다.

“여기 구조대”

종호는 무전기를 들고 잠시 말을 아꼈다.

“여기 구조댄데 현재 지하 2층은 화염 보이지 않음. 인명 수색 하겠음. 건물 붕괴 위험 있는지.”

“지하 2층 화염 보이지 않음 확인. 아직은 붕괴 위험 없음.”

“붕괴 위험 계속 확인 해주면서 지하 1층에 경방 지원 바람.”

“확인. 지하 1층에 경방 투입하겠음.”

종호와 지휘관의 무전을 들으며 강수는 스스로가 미웠다. 나오라는 소리만 기다리는 자신이 초라해졌다. 종호는 지하 2층에 있으면서도 1층까지 신경 쓰고 있었다. 그럼에도 강수는 1층에서처럼 종호와 떨어져서 수색할 용기가 없었다.

“차장님, 또 흩어져서 수색합니까?”

“아니. 붙어서 다닌다.”

강수는 자신의 말에 부끄럽고 실망스러웠지만 가냘픈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 순간에도 종호는 강수의 공기를 확인했다.

“나도 아직 여유 있고 너도 충분하니까 빨리 돌아보고 올라가자.”

강수는 종호가 뭐라고 했는지 들리지 않았다. 하나만 들으려 했다. 올라가자.

인간의 소리가 지하의 외벽을 때리며 메아리 치기 시작했다. 강수는 1층에 진입한 경방들의 숫자를 어렴풋이 헤아렸다. 종호의 뒤를 따라가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탈출의 경로와 조력자들 뿐이었다. 보이지 않는 시야에 걸을 때마다 부딪혔지만 아프지도 않았다. 두터운 방화복 덕분인지 부딪힌다는 사실 조차 감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해서인지 강수는 종호의 속도를 따라갔다.

지하 2층은 1층보다 작은 방들이 더 많았다. 강수가 빠루로 문고리를 부수면 종호가 빠르게 안쪽을 수색했다. 강수는 문을 내리치면서 자신의 두려움도 부수려고 했다. 하지만 끝은 고사하고 다음 방 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 강수는 입이 간지러웠다.

"차장님, 둘이서 다 수색하기엔 창고가 너무 큰 거 같습니다."
"그러게. 일단 이쪽 라인만 확인하고 나가서 공기 갈고 오자. 1층 정리되는 대로 다 부를 거다. 좀 만 버티자."
강수는 습관적으로 뱉던 '예, 알겠습니다.'를 말하지 못했다. 종호의 마지막 말 때문이었다. 버티자, 버티자, 강수를 순간적으로 아프게 했다. 아니 잠시나마 흐려진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나약한 모습이 착각으로 여겨졌다. 종호가 확신을 갖고 수색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종호 역시 자신처럼 버티는 거에 불과하단 걸 의심하고 힘이 빠졌다. 지금까지의 원동력은 종호였다. 지휘관의 무전도 신의 자비도 아니었다. 한편으로 왜 자신과 조를 이루었는지 원망스럽기도 했다.

"한강수! 뭐해 정신 안 차리고!"
강수는 새로운 문 앞에서 축 늘어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야 이 새끼야! 뭐하냐고!"
종호의 욕 섞인 외침과 헬멧을 두드리는 충격에 강수는 상상의 지옥에서 깼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과 달리 강수는 어떤 행동을 해야할 지 모른 채 고개만 들었다.
"야 나 봐봐! 무서워?"
무섭다고 소리치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강수는 종호의 발끝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게 당연한 거고 맞는 거야. 나도 무섭다. 그니까 빨리하고 나가자."
강수는 방금 전의 상상과 의심을 확인 받았다. 종호 역시 자신과 다르지 않음을 듣고야 말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강수는 손끝을 파고드는 용기를 느꼈다. 두려움이라곤 깃털만큼도 없어 보이던 사자의 고백에 이유 없이 묘한 힘이 생겼다. 사바나의 왕과 같은 존재란 생각에서보다 자신이 겁쟁이 소방관이 아니란 합리화의 과정에서 강수는 다시금 문고리를 부셨다.

지하 2층의 마지막 방은 일반적인 문과는 달랐다. 문의 높이는 3m는 족히 넘어 보였고 폭도 방문보단 큰 대문에 가까웠다. 강수가 계속 들고 다녔던 동력 절단기로 흠을 내보려 해도 무의미했다. 구조대 전부가 다 붙어서 내려치고 부서야 구멍이라도 날 것 같은 단단한 철문이었다. 마치 지옥의 신이 사는 곳의 입구 같았다. 증오와 분노로 가득한 어둠의 영혼들이 절대 자신에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코앞에서 좌절시키는 그의 악랄한 이름을 대변했다.
종호는 장갑을 벗어 맨손으로 문에 손을 댔다. 강수도 그를 따라 오른쪽 장갑만 벗고 문을 만졌다.
"차장님, 문이 차갑습니다."
"그러게. 냉동창고 같은데… 장비 다 가져와야 열 수 있겠는데…"
처음으로 종호의 목소리는 약해졌다. 둘은 알았다. 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기 전

까지 건물이 버티지 못할 거란 것을.
"일단 나가서 장비 챙겨서 다시 오자."
종호가 돌아서는 순간 강수는 비밀번호 장치의 야광 빛을 발견했다.
"차장님, 번호만 알면 될 거 같습니다."
아직 이것만은 유일하게 작동하는 듯 했다. 종호는 벗었던 장갑을 손에 쥐고 무전기를 빼 들었다.
"여기 구조대"
"구조대 확인."
"지하 2층에 있는 냉동창고 번호 알 수 있는지."
"알아보고 무전 하겠음."
10초쯤 지났을까 지휘관으로부터 무전이 왔다.
"구조대 여기 지휘관"
"구조대 확인."
"냉동창고 번호 송신하겠음. 이 칠 하나 셋 하나 구."
강수는 손에 찬 땀 때문에 미끄러워서 하나씩 신중하게 눌렀다. 전자음이 두 번 울리더니 문이 열렸다. 냉기가 방화복 안쪽 땀의 폭포로 흘러 들었다.

강수와 종호가 들어오자마자 문은 자동으로 닫혔다. 약간의 연기로 뿌옇기는 했지만 창고 내부가 훤히 보였다. 강수가 예상한 창고 속 창고의 규모가 아니었다. 하나의 얼음세계처럼 거대했다. 하지만 끝이 보였기에 강수와 종호는 구역을 나누어 움직였다.
서로 각자 구역의 끝 쪽까지 수색했지만 요구조자는 없었다. 어느새 강수와 종호의 땀방울은 식다 못해 얼어버렸다. 지옥의 신은 자신의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던 게 아니었다. 오히려 지옥이라 생각했던 화염 속으로 달리고 싶게끔 만들었다. 강수는 극도의 추위에 몸이 떨렸다. 은연중에 냉동창고 문이 열리면 후끈한 공기가 자신을 덮치길 바랐다. 그는 서서히 지옥의 경계를 허물고 있었다.
"야 그래도 내가 정확하지?"
"예?"
"딱 여기까지 보고 나가면 될 거 같다 했잖아. 내 공기압 봐봐. 딱 나갈 만큼 있잖아."
강수는 어의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수는 자신의 체온이 조금 올라가는 듯한 찌릿함을 느꼈다.

둘이 다시 돌아가는 중간쯤에서 강수는 미세하게나마 신음 소리를 들었다. 상당히 떨리는 음성이었다. 헬멧과 방화두건 때문에 정확히 소리를 구분하긴 힘들었지만 서로의 숨소리가 아님은 확실했다. 머릿속에서 울리는 환청도 아니었다.

최대한 집중해서 작은 소리 쪽으로 다가갔다. 사선으로 기울어진 구석 아래에 호흡이 가쁜 남성이 반쯤 쓰러져 있었다. 예상치 못한 요구조자 발견에 모든 사고가 꼬였다.

"차장님! 여기 요구조자 있습니다!"

반사적으로 종호부터 찾았다. 요구조자의 호흡은 불안정했다. 화재가 난 걸 늦게 알고 대피하지 못해 냉동 창고로 들어온 듯 싶었다. 체온이 떨어지고 연기를 흡입한 탓에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강수가 들었던 신음은 남자의 마지막 외침이었다.

"여기 구조대 지하 2층에서 40대 남성 요구조자 발견. 현재 심정지 상태로 씨피알 진행하겠음."

강수는 보조 호흡기를 남자에게 씌우고 종호는 가슴 압박을 했다. 압박 후 2분 가량이 지나 남자의 호흡이 돌아왔다.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산소를 급하게 몰아마셨다. 남자의 의식이 돌아온 것을 확인한 후 서로 양쪽에서 부축하며 입구로 향했다. 강수와 종호도 가슴 압박으로 호흡 속도가 빨라졌다.

삐익- 삐익-

냉동창고 입구에 다다랐을 때 강수와 종호의 공기호흡기에서 거의 동시에 빨간 불이 깜박였다.

"강수야 호흡 아껴라. 한 층만 올라가면 된다."

강수는 대답할 정신이 없었다. 이미 높고 가는 경고음만이 그에게 유일한 소리였다. 종호도 이번엔 흐려져가는 강수의 눈동자를 깨울 여유가 없었다. 곧장 무전기를 잡아들었다. 하지만 먼저 말을 한 건 종호가 아니었다.

"구조2, 여기 구조대장"

"여기 구조2"

"방금 철근이 내려 앉으면서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입구가 막힘. 현재 공간 확보 중."

"얼마나 걸리는지."

"15분 정도 걸릴 듯함."

"2층 출하장은 아직 막혔는지."

"2층 출하장 작업 진행중 현재는 출입 불가."

종호는 무전기를 입에서 떨어뜨렸다.

"강수야 셋은 힘들겠다."

강수와 남자를 쳐다보곤 헬멧을 벗고 다시 무전기를 손에 쥐었다.

"여기 구조2, 2층 출입구 쪽으로 화염 번졌는지"

"1층에서 2층으로 번지는 중"

종호는 눈썹을 서너 번 긁더니 무전기를 껐다. 장갑을 빼고 천천히 면체를 벗었

다. 공기호흡기를 왼쪽 어깨에서 빼는 순간 강수가 말렸다.

"차장님, 안됩니다!"

"안되긴 뭘 안 돼. 너가 빨리 갔다가 오면 되지."

종호는 미소를 살짝 머금었다. 강수는 자신이 없었다. 종호를 보내고 자신이 구조를 기다릴 용기도, 다시 돌아와 종호를 구조할 확신 그 어느 것 하나도 없었다. 그저 종호가 공기호흡기를 내려놓지 않는 것을 바라며 최초에 남자를 발견하지 못한 자신을 미워할 뿐이었다.

"차장님, 빠르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차장님!"

누군가가 죽음의 문턱을 걸으려는 상황에 대책 없는 목소리만 높아졌다. 계속되는 강수의 울부짖음에도 종호는 반응하지 않았다. 오른쪽 어깨를 마저 빼며 공기호흡기를 남자의 어깨에 걸었다. 남자에게 면체를 씌어 주고 빨간 헬멧을 고정시켜줬다.

"차장님! 그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수는 머리를 거치지 않고 어떤 말이든 내뱉었다. 결코 빨간 헬멧으로서의 용기가 아니라 한 청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종호의 죽음에 대한 자책감이었다. 종호는 일부러 강수의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방화복 상의를 벗어 남자에게 입혔다. 그제서야 종호는 강수의 헬멧을 두드렸다.

"오버하지 말고 잘 들어. 빨리 갔다가 오면 돼. 그리고 올 때 조수석 밑에 방화복 상의 있으니까 챙겨오고."

종호는 강수의 헬멧에서 손을 떼고 머리를 문 쪽으로 흔들었다.

"차장님! 안됩니다!"

강수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종호를 잡았다. 종호는 강수의 눈물을 무시하면서 남자의 공기호흡기 밸브를 다시 열었다.

"그래도 시원해서 좋다 야. 잠깐 쉬고 있을게. 그만 울고 후딱 다녀와 새꺄!"

종호는 열림 버튼을 누르고 강수를 밀었다. 강수도 이젠 감정으로만 종호를 잡고 있을 수 없었다. 강수와 남자의 등 뒤에서 경고음은 쉬지 않고 울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강수는 남자를 어깨에 걸쳐 나갔다. 앞으로 가면서도 강수의 시선은 냉동창고 문을 향했다. 아까보다 더 짙은 암흑이 사뿐한 칼날의 춤을 추며 종호에게 날아가고 있었다. 닫혀가는 문 사이에서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운 채 종호는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오늘 잘했다 한강수!"

처음이자 마지막 같은 종호의 칭찬에 강수의 눈은 사바나의 사자처럼 날카로웠다.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도 화염이 듬성듬성 외벽에 들러 붙었다. 1층에 가까워질수록 열기는 조금씩 사라졌지만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었다. 강수의 공기

는 이미 숨쉬기 벅찰 정도로 바닥났다. 결국 남자의 양압을 대기로 바꿔주고 자신도 검은 구름을 서서히 들이 마셨다.

1층 입구는 강수나 남자가 통과하기에 공간이 부족했다. 외벽 판넬이 마구잡이로 입구를 가로 막았다. 그래도 건너편 동료의 목소리는 간간히 들려왔다.

"강수야"

팀장이었다. 애타면서도 꽤나 침착한 음성이었다.

"예, 팀장님."

"거의 다 됐다. 종호는?"

강수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가 나오기 직전이었다. 구멍난 판넬 사이로 분무기처럼 들어오는 물에 젖으며 눈에 힘이 풀려갔다.

절단기의 날은 금새 강수의 눈 앞까지 뚫고 나왔다. 빨간 헬멧들이 어렴풋이 보였다. 강수의 눈엔 뚫린 틈에 빠루를 고정해서 용을 쓰며 판넬을 뜯어내고 발로 차는 모습들이 잔상처럼 희미해졌다.

"한강수! 한강수!"

다급한 여러 목소리가 강수의 이름을 불렀다. 대꾸 한번 하지 못한 채 강수는 쓰러졌다. 남자 역시 고통에 꿈틀대는 움직임 조차 없었다. 경방들은 강수와 남자에게 보조 호흡기를 씌어 들것에 실었다. 강수는 자신과 반대로 달려들어가는 빨간 헬멧들을 보면서 종호를 떠올렸다. 강수의 눈동자엔 다시 암흑이 살포시 앉았다.

사이렌 소리가 강수의 머리를 베어냈다. 사방은 온통 하얗고 가슴은 답답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얼굴이 강수의 눈 위로 천천히 다가왔다. 구급 대원이 강수의 상태를 확인했다.

"아성 병원 현재 가능하답니다. 거기로 가겠습니다."

강수는 순간적으로 벌떡 상체를 세우며 일어났다. 그제서야 강수는 냉동창고 속 종호가 떠올랐다. 급하게 구급차 문을 열고 튀어 나갔다. 검은 연기가 여전히 하늘로 솟아 올랐다. 강수의 지끈거리는 시선은 타오르는 창고도 수많은 펌프차도 아니었다. 오직 건물 입구 앞에 모여있는 빨간 헬멧들이었다.

바닥에 깔린 몇 십 본의 호스들을 짓밟아가며 뛰어왔지만 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종호는 없었고 빨간 헬멧들은 지휘관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들어가야 합니다! 안에… 안에 종호가 있다고요!"

팀장은 지휘관에게 어린아이처럼 생떼를 부리고 열 명이 넘는 경방들이 용준과 서준의 온몸을 잡고 있었다.

"건물이 무너지고 있어서 지금은 못 들어가!"

"그럼 종호는요! 기다리잖아요!"

강수는 그 앞에서 털썩 주저 앉았다. 그리곤 울면서 고개를 떨궜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팀장은 강수의 눈물을 보고서야 말을 멈췄다.
"미안하다 강수야… 구조대 전체 대기"
용준과 서준도 헬멧을 벗었다.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 냈다. 팀장은 강수를 안아주며 눈물을 닦았다.
"바로 내려가는데 지하 2층에서 폭발이 나면서 입구가… 내려 앉았고, 그래서 장비 챙겨서 다시 들어가려는데 건물 전체가 붕괴됐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강수의 죄송합니다가 검은 연기보다 빠르게 퍼져나가며 사이렌을 부셔버렸다.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와 울음 소리만 종호의 침묵을 깨려 했다.

종호의 공기호흡기 그림을 뒤로 한 채 강수는 사무실로 다시 돌아왔다. 큰 타원형 테이블에 모두가 앉아있었다. 어떤 여자 옆에 작은 남자 애가 붙어 앉아있었다. 여자의 앞엔 미쳐 테이프를 감지 못한 커다란 박스가 놓였다. 종호의 방화복, 방화두건, 빨간 헬멧, 플래시, 구조 조끼, 구조 장갑이 쌓여 있었다. 한 명의 소방관을 담기엔 너무 작은 박스였다.
숙연한 고요를 깬 건 여자였다.
"혹시 한강수 대원님이 누구신가요?"
강수는 선뜻 손을 들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센터장은 여자의 옆 자리를 비우고 강수에게 눈빛을 보냈다.
"제가 한강수입니다."
여자는 눈물을 강수가 올 때까지 기를 쓰고 참아낸 거 같았다. 강수의 음성을 듣자마자 박스에 고개를 박고 울었다. 팀장은 용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용준은 아이를 데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강수가 여자의 옆자리에 앉고 나서야 종호의 아내는 고개를 들었다. 천장을 잠시 바라보더니 강수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호 아빠 지켜 주셔서."
잊으려 했던 그날이 강수의 온몸을 마구 찔렀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풍선의 죄책감은 부풀 수도 없었다.
"아닙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는 눈물을 닦았지만 여전히 글썽이며 강수의 두 눈을 바라봤다.
"지호 아빠가 항상 품에 지니던 약속을 지켜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강수는 눈물이 차 올라서 바로 입이 안 떨어졌다.
"대원님이 그 분께서 순직한 걸 모르도록 노력했다고 들었습니다…"

의아해하던 모두의 표정이 조금씩 일그러지면서 모든 시선이 강수를 향했다. 질타가 아닌 안쓰러워 하는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그게 그이가 저에게도 유일하게 부탁했던 일이거든요."

실제로 종호의 희생을 뉴스에서 볼 수 없었다. 종호의 뜻을 끝까지 존경하는 차원에서 소방서에서 언론에 부탁했었다. 보도된 사항은 물류 창고에 화재가 크게 일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음 까지 였다. 따라서 장례도 조촐하게 치뤄졌다.

로비쪽에서 또 다시 웃음소리가 울렸다. 아까처럼 여러 명이 우르르 떠들어대는 소리가 아니었다. 강수와 여자는 로비로 들어서기 전 코너에서 눈물을 닦고 크게 숨을 쉬었다. 서로 눈을 맞추고 몸을 로비로 틀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로비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웃음이 피어 오르고 있었다.

공기호흡기 그림 앞에 두 남자 아이는 나란히 서있었다. 비가 내려서 인지 두 아이의 대화가 수없이 벽을 치고 두 사람에게 도착했다.

"우리 아빠도 소방관이야!"

"멋있다! 이거 내가 그린 거야. 나도 소방관이 될 거야."

두 아이는 신이 난 목소리로 떠들었다.

"근데 이건 누구꺼야?"

"몰라! 아빠가 얼마 전에 얘기해준 소방관 아저씨야. 포스터 대회가 있어서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알려 줬어."

"근데 왜 그 아저씨는 그림에 없어?"

강수가 아까 묻고 싶었던 질문을 종호의 아들이 대신 물었다. 강수는 저 아이가 박종호 세 글자를 모르기를 기도했다.

"아빠가 아저씨는 어떻게 생겼는지 말 안 해줬어. 아빠 아는 사람이 불 났을 때 그 아저씨가 저걸 주면서 살려 줬다고 했어!"

"멋있다! 그럼 그 아저씨는?"

"몰라 나는. 아빠도 본 적은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림 주면서 찾을 거야."

강수가 본 두 아이는 행복해 보였다. 적어도 두 아이가 그릴 소방관의 모습이 자기처럼 울고 있지 않기를 바랐다. 소방관이 꿈인 아이들에게.

"지호 아빠가 비 오는 날을 좋아했어요."

종호의 아내가 혼잣말 하듯 중얼거렸다.

"그래서 지호도 저렇게 오늘 기분이 좋은가 봐요."

강수는 눈물을 미소로 떨어뜨린 채 거세진 봄비를 바라봤다.

“당분간은 계속 비가 오면 좋겠어요.”

접수번호	178	제 목	해와 별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릇에 묻은 거품과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구로 흘러 들어갔다. 깨끗이 헹군 식기를 선반에 차곡차곡 올려두던 때였다. 방문을 열고 나온 딸 아이가 대뜸 말했다.

"엄마, 나 내일 대구 가는 거 알고 있지?"

화들짝 놀란 나는 레버를 돌려 물을 껐다. 그리고 딸을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다.

"어디를 간다고?"

침착한 척했지만 내가 듣기에도 목소리가 볼품없이 떨려 나왔다. 어색함을 눈치챘나 싶어서 부엌 쪽으로 걸어오는 딸을 괜히 힐끗거렸다. 딸은 사레들린 척 목을 가다듬는 나를 지나쳐, 싱크대 옆 선반에서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컵을 꺼내 들었다.

"대구! 지난주에 아침 먹으면서, 학교 수행평가 때문에 간다고 했었잖아."

아이는 냉장고에서 생수가 든 페트병을 꺼내며, '엄마 건망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하고 툴툴댔다. 평소 같았으면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애 낳으면 다 이렇게 된다.' 하고 농담을 던졌겠지만, 딸의 목적지를 들은 나는 바짝 몸을 굳힐 수밖에 없었다. 고무장갑을 벗을 새도 없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의 의사처럼 손바닥을 뒤집고, 컵에 물을 따르는 딸 쪽으로 다가갔다.

"꼭 대구로 가야해?"

"응. 이미 표도 다 끊었고 어디갈지도 다 정했어!"

고무장갑에 묻어 있던 물방울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역사 숙제인데 우리 조가 맡은 주제가 근대사거든. 찾아보니까 대구에는 근대 골목 투어라고 해서 아예 관광을 할 수 있게 지도까지 만들어뒀더라고. 뭐 요새는 스마트폰도 다 되니까 길 찾는 건 별로 안 어려울 거 같아."

내가 기억하기로 근대박물관은 중앙로역 근처에 있었다. 그 사실을 떠올리자 등을 타고 땀줄기가 흘러내렸다.

"같이 갈까? 엄마가 차로 데려다줄게. 대구는 더우니까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딸은 내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현실적인 부분을 지적했다.

"엄마 일은 어쩌고?"

내일이 평일이었으니 딸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질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출근이 뭐가 중요해!"

순식간에 높아진 언성이 날카로웠다. 놀랐는지 딸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출근이 왜 안 중요해. 돈이 있어야 우리 둘이 잘 먹고 산다고 했던 건 엄마면서 왜 그래?"

딸은 갑자기 왜 이러냐는 투로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러더니 무언가 깨달았다는 듯 박수를 쳤다.

"엄마 나랑 여행 가고 싶구나? 내가 가자고 할 때는 바쁘다더니, 역시 엄마도 가고 싶은 거였지?"

능청스러운 말투였다. 딸은 떨떠름한 내 표정을 보더니 이제 와서 아닌 척해도 소용없다고, 이번 여름에는 꼭 자신과 휴가를 보내는 거라며 멋대로 정해버렸다. 물을 더 마시려는지 컵에 물병을 기울이면서였다.

"내가 아직 회사 다녀본 적은 없어도, 딸이랑 갑자기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게 갑작스러운 업무 변경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아! 그러니까 여름 휴가 때 길게 가자. 응?"

그러면서 식탁 위의 물컵을 내 쪽으로 밀었다. 내가 멀뚱히 컵을 보고만 있자, 딸은 '엄마 목 아픈 것 같아서.' 하고는 돌아섰다. 딸의 방문이 닫히고서야 나는 다시 물을 틀었다. 흰 거품과 뒤섞이는 물줄기가 어지럽게 뒤섞였다. 고무장갑을 벗고 딸이 떠주고 간 물잔을 비우고서야, 컵을 든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걸 깨달았다.

쓰레기를 모아둔 상자를 들고 아파트 승강기에 올랐다. 분리수거를 하면 복잡해진 머릿속을 조금이나마 정리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아파트 앞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 동 주민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라이터에서 작은 불꽃이 일었다. 허공으로 뻗어나가는 담배 연기를 피해 분리수거장이 있는 쪽으로 황급히 걸었다. 박스에 빈 유리병을 넣다 말고, 담배를 싫어했던 남편을 떠올렸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 취향에 대해 알아가던 중이었다. 싫어하는 게 있냐는 물음에 그는 '담배와 관련된 모든 것'이라고 답했다. 그 대답을 하기까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시종일관 은은한 미소를 띄고 있던 얼굴도 딱딱하게 굳었다. 라이터도, 담배도, 담배갑이나 담배연기도, 심지어는 담대 냄새까지 싫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다. 주절주절 담배를 욕하다가 그는 말을 뚝 멈추고는, 혹시 흡연자냐고 뒤늦게 물어왔다. 그렇게 물을 때에는 꽤나 슬퍼보이기까지 해서, 담배는 입에도 대본 적 없고 앞으로 피울 생각도 없다며 고개를 저으면서까지 부정했다. 그는 내 단호한 말을 듣고서는 해사하게 웃어보였다.

이후 그가 건네는 담담한 고백을 받아들여, 결혼을 준비할 때였다. 결혼식장을 알아보러 다니다가 다리가 아파서 들렀던 카페에서 문득 그가 물었다. 언제부터 자신이 좋았느냐고. 그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둘러댔던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야 선명하게 알 것 같았다. 내가 흡연자가 아니라는 말에 돌아왔던 그 맑은 웃음을 봤을 때, 그가 눈은 휘어지고 입꼬리가 올라갔던 밝은 표정을 지었을 때

가, 내가 그에게 반한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닿자 얼굴이 화끈거렸다. 첫 만남에 홀딱 마음을 내줄 정도로 용기있고 패기 넘쳤구나 싶어서였다. 지금의 나와는 거리가 멀어서 그때의 나는 내가 아닌 것 같았다.

얼굴에 오른 열을 식힐 겸 바람이 부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방금 전까지 공동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자가, 꽁초를 던지고 돌아서는 게 보였다. 나는 남자를 지나쳐 걸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 자리로 향했다. 담장 아래에 떨어진 담배꽁초 끝에 작은 불씨가 남아있었다.

'커다란 화마의 시작은 이 담배꽁초의 작은 불씨야. 나중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는 사람도, 건물도 모조리 집어삼키지.'

나란히 팔짱을 끼고 걷다가도, 길바닥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으면 그는 항상 걸음을 멈췄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듯, 그에게는 불씨 남은 꽁초가 방앗간인 셈이었다. 신발 앞코로 꾹꾹 눌러서 불을 끄는 그를, 한 발자국 떨어진 자리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항상 그렇게 했다. 그런 사람이었다.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버스가 신호에 걸린 틈에 주머니에 손을 넣어 폰을 꺼냈다. 메신저 알람이었다. 서울역에 잘 도착했다는 메시지 아래로 사진 두 장이 새롭게 전송됐다. 기찻길 풍경을 찍은 사진과 좌석에 앉은 딸의 사진이었다. KTX에 타기 전과 타고 나서 각각 찍어보낸 모양이었다. 괜히 손가락을 움직여서 딸 아이의 얼굴을 확대해봤다. 아이는 한껏 들뜬 표정이었다. 타지에 가는 건 오랜만이니 여행가는 기분이 날 법도 했다. 또 한 번의 짧은 진동이 울리고, 이번에는 딸이 보낸 메신저가 도착했다.

-엄마, 왜 바로 읽네? 출근 중이라 바쁜 거 아니야? 나 잘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틈틈히 연락할게!

툭툭 화면을 두드려 답장을 썼다.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 아이는 따로 답장 대신 손을 들며 '네!'라고 답하는 강아지 이모티콘을 보내왔다. 그제야 숨을 쉬고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덜컹거리며 나아가는 버스 안에서는 내가 내려야하는 정류장에 대한 안내가 흘러나왔다.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아이를 키우는 데에 부족함은 없었다. 그럼에도 일하는 이유는 단순했다. 시간이 남아서였다.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등교 시간은 더 일러지고, 하교 시간은 더욱 늦어졌다. 산책도 하고 마중도 나갈 겸, 아파트 단지 앞에서 딸을 기다리던 중, 문득 일하다 보면 이 무료함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싶었다. 곧바로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뒤적거렸다. 동네에 있는 매장은 젊은 애들만 구하고 있었고, 나처럼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곳은 죄다 지하철을 타고 옆 동네로 가야했다. 그냥 일하지 말고 지금처럼 집에 있을까 싶던 차에 한 마트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발견했

다. 조금 걸어야 했지만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였고, 단순히 재고 정리를 하는 거라 뒤늦게 일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다.

오전에 출근하면 손님이 비교적 적고, 퇴근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다. 그러면서도 상하차로 운반된 재고 중 냉장 보관 제품들을 빨리 옮겨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오늘 내게 배정된 재고는 밀 키트로 포장되어 나온 냉장 식품들이었다. 유부초밥이나 꼬마김밥 만들기 키트를 날짜순으로 배열하는데, 젊은 여자 두 명이 카트를 밀며 냉장 코너 쪽으로 다가왔다.

"요새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더라. 거의 매일 같이 먹는 데도 하나도 안 질려."

그러면서 떡볶이 재료가 담긴 봉지를 이리저리 뒤집어 봤다. 두 사람은 대화를 이어갔다. 요새는 워낙 간편하게 잘 나와서 사 먹는 것보다 간편 조리로 해 먹는 게 더 편하다는 내용이었다. 두 제품을 두고 고민하는 여자의 얼굴 위로 떡볶이를 먹는 딸의 얼굴이 겹쳐졌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딸 아이도 저 손님과 비슷한 말을 했었다.

'내가 생각했을 때, 한국인의 소울푸드는 바로 이 떡볶이야. 먹어도 먹어도 주기적으로 먹어줄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떡을 집은 포크를 내 쪽으로 건네곤 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 딸은 '엄마는 한국인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떡볶이를 안 먹지?' 하며 신기해했다.

"그럼 둘 다 먹어보지 뭐. 우리 신랑도 나랑 입맛이 똑같아서 떡볶이 귀신이거든."

그렇게 선택지에 있던 제품을 모두 고른 그들은 카트를 밀며 정육코너 쪽으로 갔다. 나는 떡볶이를 안 먹는 게 아니었다. 나에게도 떡볶이가 소울푸드였던 때가 있었다. 특히 딸을 가졌을 때는 삼시세끼 떡볶이를 연달아 먹은 적도 있었다.

소개팅에서 만난 그와는 삼 년을 만나고 결혼했다. 그날은 직업상 밤낮없이 매일 일하는 그의 휴가였다. 어디 나가서 맛있는 거라도 먹을까 했지만, 만삭 상태라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다. 배달 음식 책자를 펼쳐놓고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데, 갑자기 시내에서 파는 떡볶이가 먹고 싶어졌다.

'시내에 파는 떡볶이?'

배달이 안 되는 거리라 직접 가서 포장을 해와야 하는 데도,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데이트 할 때 자주 갔던 거기 말하는 거지? 밀가루로 만든 떡이 아니고, 쌀 가래떡 넣어서 당신이 맛있다고 했던 곳.'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알겠다며 옷을 갈아입었다. 퇴근 시간이라 지하철에 사람이 붐빌 테니, 택시를 타고 가는 게 어떻겠냐는 물었지만, 그는 교통카드를 챙겼다.

'그 가게가 골목 안쪽에 있잖아. 택시가 들어가기에는 좁아. 사고 날 지도 모르고.'

괜히 나 때문에 번거롭게 하는 것 같았다. 미안함에 집 앞까지만이라도 나갈 생각이었는데, 그는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으며 나를 말렸다.

'당신 몸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든데 괜히 나오지 말고 있어. 내가 떡볶이 안 식게 금방 갔다올게.'

그는 안심하라는 듯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뛰어갔다가 뛰어올 기세로 발목까지 푸는 그를 보며 나는 쿡쿡 웃었다. 결국 그의 뜻대로 현관에서 손을 흔들어 배웅했다. 거리가 좀 있기는 하지만 한 시간이면 오겠지 싶었다. 그러나 세 시간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를 기다리다 지쳐, 거실 소파에서 깜빡 졸고 일어났는데도 세상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괜히 긴 정적이 싫어서 탁자에 놓인 리모컨을 집어 들었다. 그제야 나는 그가 오지 않는 것이, 오늘따라 가게에 손님이 많아서라든지, 돌아오는 길에 담배꽁초가 무더기로 버려진 걸 발견했다든지 하는 시시한 이유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 채널 저 채널 할 것 없이 모든 방송국이 뉴스 속보를 쏟아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 속에는 구급차와 소방차가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이 길바닥에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부서진 리모컨 파편 사이로 빠져나온 건전지가 바닥을 굴렀다.

나는 그의 장례식에도 갈 수 없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 때문에 남편의 장례식이 열리는 삼 일 내내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있어야 했다. 병문안을 오는 사람들을 모조리 돌려보냈다. 단 한 사람도 만나지 않았다. 남편을 함께 알고 있는 사람을 보면 주체할 수 없이 울어버릴 것 같았고, 그랬다가는 뱃속의 아이마저 잘못될 것 같았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낳고서도 지인들의 연락을 피했고, 몸조리도 제대로 끝내지 않은 채 대구를 떠났다. 나중에서야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었다는 걸 알았다. 방화범이 경찰에 붙잡혀 수감됐다는 것도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까지 보도됐다. 그럼에도 나는 대구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떡볶이는 입에도 대지 않았다. 누군가의 의도된 범행이었지만, 그 범인이 세상에서 사라지자 원망이 나 스스로를 향했다. 자주 먹던 음식이니 그날 하루 안먹어도 됐을테고, 집 가까운 곳에서 사먹어도 됐을텐데, 굳이 시내에서 파는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해서 남편이 그 지하철을 타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나를 오랫동안 따라다녔다.

남편과 내가 모두 떡볶이를 좋아했던 입맛을 닮은 건지, 임신 중에 떡볶이를 자주 먹어대서인지, 딸도 떡볶이를 좋아했다. 그걸 알아서 딸과 함께 분식집을 찾았지만, 마주 앉아 음식을 바라보기만 하고 먹지는 못했다. 맛있게 먹는 딸 앞에서는 배부르다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엉뚱한 핑계를 댔다.

일을 마치고 근무복을 갈아입으면서 핸드폰을 확인했다. 대구에 잘 도착했다는 문자와 점심으로 먹은 돈가스 사진, 이제 버스 타고 근대 골목에 왔다는 내용까지 쭉 이어졌다. 나는 웃으면서 스크롤을 내리다가 대화 창 하나를 발견하고 손을 멈췄다.

-엄마, 근데 좀 웃긴 게 있어. 나 이제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가려고 지하철 탔거든? 근데 지하철역 찾는 데 한참 걸렸어. 대구에서는 지하철을 도시철도라고 하더라? 대구가 광역시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이 더 큰 도시잖아. 서울에서도 지하철을 지하철이라고 하는데, 왜 대구에서는 지하철이라 하나 몰라. 웃기지?

딸이 대구에 간다는 말을 들었던 어젯밤처럼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저 문자를 마지막으로 대화가 끊겨 있었다. 보낸 시간을 확인하자 벌써 세 시간이나 지나 있었다. 불길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음이 이어지기도 전에 안내멘트가 흘러나왔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곧장 핸드폰에 저장된 다른 딸 친구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귓속으로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마침내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 혜경아, 나 은별이 엄마인데."

"네,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전화 상대가 나라는 걸 안 혜경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함께있는 딸의 친구가 괜찮은 걸 확인하자, 팽팽했던 긴장이 살짝 늘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마트의 마크가 그려진 조끼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은별이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러는데 좀 바꿔줄래?"

그런데 돌아오는 건 알겠다는 대답이 아닌, 물음이었다.

"네? 은별이가 혹시 말씀 안드렸어요? 은별이 오늘 대구 간다고 그랬는데."

"응, 대구 가는 건 알고 있는데, 너랑 같이 간 거 아니었니? 같은 조라고 들었는데."

"같은 조인 건 맞는데요, 저는 학원 가야해서 같이 못 갔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손에 힘을 줘야했다. 혜경은 이상하다는 듯 덧붙였다.

"제가 혼자 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자기 고향이 대구인 거 모르냐면서 어릴 때 살았던 곳이라 길 잃을 일 없으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아이가 대구에서 태어난 건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길 잃을 일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됐다. 딸이 태어나고 한 달도 안지나서 서울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막 태어난 아이가 그 도시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게 있을리가 없었다.

곧바로 택시에 올랐다. 택시가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대구로 가는 가장 빠른

표를 끊었다. 초조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다리를 떨며 서울역까지 남은 거리를 재고 있는데, 메신저가 울렸다. 딸인가 싶어서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딸이 아닌 혜경에게서 온 것이었다.

-아주머니, 제가 전화했는데도 은별이 전화를 안 받아요. 저도 계속 연락해보고 연락되면 바로 말씀 드릴게요!

차마 고맙다는 답장도 할 수가 없었다. 눈앞이 까마득히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대구역에 내리자마자 중앙 파출소로 뛰어갔다. 쾅 소리가 나도록 유리문을 열어젖히자, 파출소 내부에 앉아있던 사람들 시선이 전부 내게로 향했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빠르게 말을 내뱉었다.

"딸이랑 연락이 안돼요. 대구에 온 건 아는데 전화도 안되고요."

경찰복을 입은 순경이 내 쪽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거 천천히 말씀해 보이소. 딸이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젭니꺼?"

그는 나에게 딸의 나이와 전화번호, 주소,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에 관해 물었다. 차근차근 대답하던 나는 인상착의를 묻는 말에 오늘 아침 딸이 보낸 사진을 보여줬다. 그러자 키보드로 여러 정보를 입력하던 그의 손이 멈췄다.

"어? 야 아까 그 아 아이가. 낮에 지 혼자 와갖고는 대뜸 경찰 좀 하나 조회해달라카던 애."

그 순경의 말에 그 옆의 다른 경찰도 자세를 낮추고 화면을 쳐다봤다.

"그 친구 맞네! 서울말 쓰던 학생!"

나는 의아함에 반문했다.

"딸이 여기를 왔다고요?"

무슨 일이 없는 이상, 평범한 고등학생이 자기 발로 경찰서를 찾을 일이 얼마나 될까. 거기까지 생각하자 머릿속에서 그날의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대구에서 일했던 경찰 한 명만 찾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규정상 안 되는데, 하도 찾아달라 그래서 일단 조회해봤는데, 그런 이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슨, 무슨 이름이었는데요?"

"태양이요. 이태양."

죽은 남편의 이름이었다. 누군가의 입에서 그 이름을 들은 지가 벌써 십 년도 더 지나 있었다. 잿빛 연기가 순식간에 훅 사그라드는 느낌과 함께,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경찰인 거 같은데 한 번만 다시 찾아주시면, 어? 엄마?"

당차게 파출소로 들어오던 딸은 나를 발견하고는 눈이 동그랗게 변했다.

"엄마가 왜 여기 있어?"

귀신을 본 듯한 표정을 짓는 딸에게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어깨를 붙잡고 서서 위아래로 꼼꼼하게 훑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보다 조금 더 꾀죄죄 해지긴 했지만, 어디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그러는 너는! 왜 전화를 안 받아!"

그제야 딸은 아차 싶은 표정이었다.

"보조 배터리 가져오는 걸 깜빡했어. 사진도 찍고, 길 찾느라고 지도 앱 켜고 돌아다녔더니 배터리가 금방 닳아버리는 바람에…. 연락 못 해서 미안해."

상황은 싱겁게 종료됐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내게 경찰관들은 의자를 내어주고 차를 가져다줬다.

"죄송해요. 별일도 아닌데 소란 피워서."

딸이 무사한 걸 확인하자 부서질 기세로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온 아까의 일이 부끄러워졌다.

"아입니더. 그나저나 따님 걱정을 많이 하셨는갑네요. 서울에서 이까지 다 오시고."

나는 괜히 종이컵에 담긴 차를 홀짝였다. 딸은 아까부터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오렌지 주스는 마시지도 않고, 나와 경찰을 번갈아 힐끔거렸다.

"내가 아까 니 가고 나서도 있다이가 십오 년 전 자료까지 싹다 디비봤는데, 암것도 안나왔다. 그러니 그만 포기해라. 어머니도 오셨고."

죽었어도 등본 같은 서류에는 남편의 이름이 나왔다. 그러니 아이가 남편에 대해 물을 때마다 내가 말을 돌려도, 열여덟 살이면 아빠 이름쯤은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왜 경찰이라 확신한 건지는 알 수 없었다. 내 물음에 딸은 또 한 번 눈치를 살피다가,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러더니 '아무리 여기가 경찰서지만 그래도 딸이니까 신고는 안 할거지?' 하면서 가방에서 꺼낸 물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내 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것이었다.

"이거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 엄마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엄마가 아빠 이야기할 때마다 표정이 안 좋아서, 그냥 혼자 조용히 알아보고 돌려놓으려고 했어. 진짜야."

그제야 내 옆에 앉아 있던 순경은 조회해도 안 나온 이유를 알 것 같다며, 뱃지를 자신의 가슴팍 옆에 가져다 댔다.

"이기는 소방뱃지다.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보여도 가만 보면 다 다르다. 의미가 달라서 그런긴데, 경찰관은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하니까는, 이 새가 저울을 들고 있는데, 소방관은 안전하게 사람들을 구한다는 뜻이 있어가, 소방모를 쓰고 있다."

순경의 말대로 새와 무궁화가 있다는 공통점에서 제법 비슷한 듯 보였지만, 자

세히 들여다보니 차이가 있었다.

"어? 그러면 니가 찾는 사람이 이태양 소방관님이겠네!"

경찰은 손가락을 튕기며 반갑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사람을, 아세요?"

그가 경찰과도 친분이 있었던가, 기억을 되짚는데, 순경이 당연하다는 듯 답했다.

"알다마다요. 내 매일 출근할 때마다 이분 뵙고 있는데, 모르면 그기는 바보지요, 바보."

내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그는 따라오라며 나와 딸 아이를 안내했다.

그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중앙로역이었다.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숨이 갑갑해져서, 언젠가 남편이 해줬던 말을 떠올려야 했다. 화재 현장이 무섭지 않느냐는 내 물음에, 그는 빙긋이 웃으며 '그 안에 있을 사람들이 훨씬 더 무서울 테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거지.' 했다.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크게 숨 호흡을 한다고, 그러고 나면 세상 무서울 게 없는 용기가 불쑥 솟아난다 했다.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안내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는 역 안에서 걸음을 멈췄다.

"전에 지하철 사고 있었다 아닙니까. 지는 대구로 발령 받은기지 요서 쪽 산 게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마는, 들어보니 너무 불길이 쎄가지고 시신도 못 추릴 정도였다 하데예. 그래가 여기 기억 공간을 만든 거 캅니다."

벽면 한쪽에 젊은 남편 얼굴이 커다랗게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 편지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 편히 쉬기를 바란다는 문구,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옆에 헤드셋 하나가 걸려있었다. 팻말에는 '이태양 소방관의 마지막 목소리. 그를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이태양 소방관! 들립니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목소리가 지직거리는 기계 소리에 섞여들었다. 끊겨서 들리는 와중에도 다급함이 느껴졌다.

"입구가 완전히 막혀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방 오겠다고 했던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지원팀 올 거니까 그때까지만 버티십시오. 금방 구하러 가겠습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통신했을 동료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는데도, 정작 불 속에 있는 남편은 덤덤했다.

"부탁 하나만 합시다. 혹시나 내가 여기서 못 나가면, 우리 부인이랑 다음 달에 태어날 우리 딸 은별이한테 떡볶이 못 사가서 미안하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십 년도 더 전이라 기술이 좋지 못했는데, 지하 깊숙한 곳에 있어서 더 끊김

현상이 심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말도요. 부탁합니다."

세상에 남은 그의 목소리는 그게 마지막이었다. 헤드셋을 벗으며 고개를 들자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순경이 보였다. 은별이는 내 손에 들린 헤드셋을 받아 썼다. 은별이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동안, 순경은 말을 이었다.

"소방관님이 그날 구한 시민만 스무 명이 넘는다 카데예. 쉬는 날이라 지원팀 오기 전까지는 장비도 하나 없었는데, 목격자 말로는 연기 나는 거 보고는 곧바로 뛰어 드갔더랍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님은 휴무 중이었어도, 순직으로 처리된 거라고 들었습니더."

그래, 그런 사람이었다. 소방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구하는 걸 우선순위에 뒀던 사람. 몸에 남은 화상 자국에 약을 발라줄 때는, '내가 태양이잖아. 세상에 나보다 뜨거운 건 없으니까, 어떤 불길도 나를 막을 순 없지!' 하면서 장난치던 사람. 그래서였다. 내가 끝까지 연락해오던 남편의 동료들을 만나지 않고 연락처를 바꿔버린 건. 그들을 만나면 왜 남편이 불길 속으로 들어가게 내버려두었느냐고 원망할 것 같았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건 감정소모가 심한 일이었고, 그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그 화살이 나 자신을 향하게 됐다. 그래서였다. 아빠에 대해 묻는 딸에게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둘러댔다. 아이만큼은 탓할 사람이 없는, 공허하고 무력한 기분을 느끼지 않길 바랐다.

울지 않으려 천장의 노란 조명을 바라보는데, 헤드셋을 내려놓은 은별이가 팔을 벌려 나를 꽉 껴안았다.

"우리 아빠 엄청 멋진 사람이었네. 사랑 고백도 아주 뜨겁게 하고."

이제 보니 은별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남편을 닮았다. 자기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도 원망보다 칭찬의 말을 먼저 했다. 지금껏 숨겨온 이유가 무색해졌다. 말이 없는 나를 알았는지, 은별은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역시 우리 엄마가 보는 눈이 있어."

나는 눈물을 훔치다 말고 피식 웃어버렸다. 그리고는 팔을 들어 은별이를 마주 안았다. 언제부터인가 내 키를 훌쩍 넘어 자라난 아이의 품이 따뜻했다.

인테리어만 새로 바뀠을 뿐, 남편과 함께 왔던 떡볶이 가게는 그 시절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은별이가 물었다.

"엄마는 아빠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 고백은? 고백은 누가 먼저 했어?"

나는 순순히 대답했다. 웃는 얼굴이 멋있었고, 첫 만남에 내가 사귀자고 했다고.

"뭐야, 엄마 금사빠였어?"

가지런히 포크를 놓다 말고, 은별이가 놀란 듯 되물었다.

"금사빠가 뭔데?"

"금방 사랑에 빠지는 타입! 하기야, 아까 보니까 아빠 얼굴이 잘생기긴 했더라."

여전히 궁금한 게 가득해 보이는 은별이에게, 하나씩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아, 너 이름도 너희 아빠가 지은 거야."

"진짜? 보통 이름은 태어나고 짓지 않아?"

"보통은 그러는데, 네 아빠가 하나에 꽂히면 열정적으로 달려드는 사람이었거든. 같이 산부인과 다녀온 날에 바로 한자 사전을 사왔어."

현장에 갔다가 돌아온 어느 날, 그는 내게 이름이 적힌 종이를 내밀었다. 이은별. 의미를 묻자 그는 은빛으로 빛나는 별이라고 했다.

"화재 규모가 꽤 컸는데, 다행히 인명사고도 없었고 불길도 금방 잡혔다더라고. 돌아오는 길에 같이 출동했던 동료들이랑 이건 기적이라는 대화를 나눴대. 그러면서 올려다본 밤하늘이, 마치 은가루를 흩뿌려놓은 것같이 아름다워서, 태어나서 본 풍경 중에 제일 예뻐서, 네 이름으로 짓고 싶다고 그랬어."

"아빠가 감성적인 면도 있었나 보네."

마침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나보다 먼저 맛을 본 아이는 여태 먹은 떡볶이 중에 가장 맛있다며 엄지를 들었다. 그런 딸을 가만히 바라보다 나도 떡 하나를 집어 베어 물었다. 그해 태어난 아이가 열여덟 살이 되었는데도, 떡볶이는 여전히 그때 그 맛이 났다.

"은별아."

그래서 괜히 아이를 불렀다.

"응?"

떡을 베어 물다 말고 아이가 나를 쳐다봤다.

"우리 여행 가기로 한 거 말이야. 대구로 올까? 음, 아빠 일했던 곳도 가보고, 동료분들도 만나보고."

은별이는 대찬성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양을 닮은, 아주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